

2013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istory and Peace

제5회 역사NGO세계대회

시민단체 프로그램

제4차 동북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가는 평화순례와 역사포럼

July 22(Mon) ~ 25(Thu), 2013

Kyung Hee University, Seoul

평화순례 2013. 7.23(화)

역사포럼 2013. 7.24(수)

주관 :  시민
연합 동학민족통일회

주최 :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세계NGO역사포럼
World NGO History Foru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 CIVIC ENGAGEMENT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ational Unifications

(우)110-775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화관 1403호 Tel.02)732-5541 / 02)738-6623 Fax.02)732-5402
홈페이지 <http://donghaktongil.or.kr> 이메일 dongminhoe@hanmail.net



역사NGO세계대회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istory and Peace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8-30 돈의 빌딩 5층 Tel.+82-2-312-6118~9 Fax.+82-2-312-6110
Donyi Bldg. 5F. 78-30, Chungjeongno2-ga, Seodaemun-gu, Seoul Korea
e-mail historyngo@gmail.com www.historyngo.org

2013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istory and Peace

제5회 역사NGO세계대회

시민단체 프로그램

제4차 동북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가는 평화순례와 역사포럼

July 22(Mon)~25(Thur), 2013

Kyung Hee University, Seoul

평화순례 2013, 7.23(화)

역사포럼 2013, 7.24(수)

주관 :  **사단법인 통학민족통일회**

주최 :  **동아시아 평화공헌
세계NGO역사포럼**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 CIVIC ENGAGEMENT

목 차

식 순		4
일 정		5
인사말		6
발표1	동아시아의 역사적 과제와 평화 모색	9
제1주제	윤봉길과 시라가와 요시노리(白川義則)을 통하여 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한다. 와다 토시히로(和田壽博) 일본 에히메대학	11
제2주제	동학농민혁명유족회의 설립과 활동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고문	35
발표2	1894년 일본군의 불법 행위와 동학농민군 학살	45
제3주제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 측의 비문명·비합법적 책동 강효숙 원광대학교	47
제4주제	충남 내포지역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과 장위영의 진압 신영우 충북대학교	74
자료	동북아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평화순례	
자료1	日韓兩軍의 衝突과 日軍의 牙山進擊	97
자료2	豊島 앞바다에서의 海戰狀況 및 朝鮮政府의 依賴에 따른 在牙山 淸兵의 驅逐 및 日·淸兩國의 宜戰 詔勅 公布의 문제	114
1차~3차 동북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나가는 평화순례와 역사포럼		141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안내		151

식 순

1. 일시 및 장소 : 7월 24일, 경희대 청운관 301호

2. 프로그램

◇ 등록 (12:30~1:00)

◇ 1부 개회식 (1:00~1:20)

사회: 김건영 집행위원

개회사

- 고윤지 상임의장

축사

- 박남수 천도교 교령

축사

- 이이화 전 동학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역사학자

◇ 2부 학술세미나(1:20~4:00)

사회: 김동민(한양대)

발표1 : 동아시아의 역사적 과제와 평화 모색

제1주제 — 와다 토시히로(和田壽博) | 일본 에히메대학

윤봉길과 시라가와 요시노리(白川義則)을 통하여 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한다.

제2주제 — 정남기 |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고문

동학농민혁명유족회의 설립과 활동 : 東學農民革命遺族會 새로운 座標

발표2 : 1894년 일본군의 불법 행위와 동학농민군 학살

제3주제 — 강효숙 | 원광대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 측의 비문명 비합법적 채동

제4주제 — 신영우 | 충북대

충남 내포지역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과 장위영의 진압

종합토론 : 토론자 : 배향섭(고려대), 김양식(충북학연구소)

일정

동북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평화순례와 역사포럼

: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의 전적지를 찾아서

1. 일시 및 장소 : 7월 23일, 충청도 일대
2. 답사지

장소	내용
성환전투지 (충남 천안 성환읍)	-청일전쟁 최초 격전지(육지전)- 섭사성이 지휘하는 청군이 성환역 뒷편의 구릉지에 진을 치고 안성천 일대에 첨병부대를 배치, 일본군 혼성 9여단 병력이 야간에 공격해서 전투가 벌어짐
백석포	청군이 상륙한 곳으로 청군의 병참 기지 역할, 일본군이 기습해서 청의 군수물자를 노획하여 인천으로 가져감
풍도 앞바다(도비도)	-청일전쟁 최초 전투(해전)- 일본 해군 함대가 청의 북양함대 소속 군함을 공격하고, 수송선 고승호를 격침한 곳
홍주성	내포 일대의 동학 조직이 기포해서 홍주성 공격, 우금치 전투 다음으로 충청도 최대의 공방전이 벌어진 곳
해미읍성	홍주성에서 후퇴해서 집결해 있던 동학농민군을 이두황의 장위영 병대가 공격해서 막대한 군수품을 노획함

인사말



고윤지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동학민족통일회와 에히메대학교 동북아시아 평화연구소가 함께 동아시아 평화의 광장을 열어가는 역사포럼을 함께 진행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해마다 깊이를 더해 가는 이 역사포럼 프로그램이 동아시아 평화의 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역사NGO포럼의 세계대회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큰 연대의 틀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기회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평화연구소 와다 교수님과 발표에 임해 주시는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고문님, 그리고 신영우, 강효숙 박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학의 역사, 그중에서도 동학혁명과 관련되는 시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여전히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밝혀지며 주목받는 점은 그것이 조선 일국의 사건이거나 역사가 아니며 한반도에 국한된 사건도 아니고, 적어도 동북아시아에 걸치는 국제적인 사건이면서, 나아가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두루 미치는 중대한 역사적 계기라는 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역사NGO세계대회 등을 통해서,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새

로운 많은 사실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학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고, 동학 천도의 진실과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우리 이야기를 한다면,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발화(發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그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도 몰랐던 우리의 새로운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학의 의미, 동학혁명 역사의 참된 계승의 길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이야기, 다른 역사적 사건들과 교류하고 비교하고 공감하는 속에서 더욱 새롭고 다양하고 전면적으로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동학혁명을 비롯한 역사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동학과 동학혁명의 역사는 결코 과거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며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갈등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함으로써 평화적인 미래 지구촌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학민족통일회는 이러한 역사적 전망, 동학의 시공간을 “개벽운동”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계승하고, 우리 시대의 민족적 과제, 역사적 책무에 응답하고자 하는 천도교의 전위단체입니다. 통일운동을 가장 전면적이고 우선적인 당면과제로 삼고 있지만, 오늘날 남과 북의 통일이란 단지 정치적 결합, 민족적 통합이 아니라, 근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온갖 문화와 문명과 체제의 모순들을 지양하는 대안의 통일 조국을 꿈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어떤 문제도 일국적인 시각으로는 그 근본적인 해결을 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접점이 되는 동학혁명의 역사는 우리가 동아시아를 평화로운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 모두가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올해의 여러 행사들의 성과가 지금까지의 노력들에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제공하고 앞으로 동학민족통일회와 평화연구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그리고 더욱 더 많은 단체들이 함께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좋은 공동 작업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표1

동아시아의 역사적 과제와 평화 모색

제1주제 — 와다 토시히로(和田壽博) | 일본 에히메대학

윤봉길과 시라가와 요시노리(白川義則)을 통하여 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한다.

제2주제 — 정남기 |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고문

동학농민혁명유족회의 설립과 활동 : 東學農民革命遺族
會 새로운 座標

**5th International NGOs Conference
on History and Peace
市民団体参加プログラム**

氏名: 日本国 愛媛大学 和田寿博(教授)
WADA Toshihiro Prof.of Ehime Univ. JAPAN

**主題: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
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

自己紹介

- 氏名: 和田寿博 WADA Toshihiro
- 所属: 愛媛大学法文学部
- 職位: 愛媛大学教授
- 生年月日: 1963 年 兵庫県生まれ
- 学位: 1997 年度 博士(商学)を取得
- 所属学会: 経営史学会 日本平和学会
- 専攻: GHQ/SCAPの占領政策と復興
- Toshihiro Wada, Prof. at Ehime University, teach the Peace and Conflict Studies and is a member of the Peace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1 平和学の紹介①講義概要

2013年は1910年の日韓併合から103年、辛亥革命から102年、満州事変から82年、アジア・太平洋戦争、第2次世界大戦の終結から68年です。

日本の学生は911事件や憲法論議、慰安婦論争、東アジアにおける歴史認識、領土問題などを背景に、戦争と平和に関心を持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高校までの教育では、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の戦争体験や外国人の戦争体験を見聞する機会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

平和学受講生は戦争体験を学び、対話を進め、平和な社会の担い手としての一歩を踏み出せるように、戦争と平和を対象とする学問・科学としての平和学の習得を目指しましょう。

出口が見えない社会情勢、経済格差拡大のなかで、「戦争に希望を見出す」若者のイデオロギーが登場しました。このイデオロギーの源泉を考え、対話を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東北アジアの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は、アジア・太平洋戦争における日本の侵略を反省し、和解を進め、どんな問題に対しても平和的解決を目指すことが大切です。そのためには日本人と韓国・中国などアジアの人との平和友好を進めてゆきましょう。

1 平和学の紹介②戦争体験記録

平和学では戦争と平和、国際理解と友好などのテーマを、大学教員ではなく、特に学生の等身大に近い、普通の市民である、しかも実際の戦争体験者である、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のお話を聞き、何かをつかむことにある。学生にとってはお話の内容、伝達方法、感情表現、感じ方など、多様な発見がある。感じ取ったことについては、ゆっくりと意見交換を行って深めてゆきたい。

第1回の場合、高校での勉強から大学での学びへの過渡期＝「学びの一歩」の家庭にある学生を対象に、学生が学びの主人公になるように工夫した。戦争体験者は元放送局アナウンサーで、現在、朗読などの日本語教育に従事されている方である。彼女はアジア・太平洋戦争期に幼少を過ごし、学校や地域が軍国主義となり、戦局の悪化から物資が不足したため、幼少にもかかわらず家事を担った。戦争のため実父を亡くされ、母子家庭として苦勞し、戦後は放送局に勤務し、在京時には戦後日本の変遷を垣間見た。近年は韓国、中国、ヴェトナムなどを訪問されて、紙芝居を通じて日本語・日本文化の普及につとめ、友好の取り組みをされておられる。

1 平和学の紹介③聴講した戦争体験

- ・アジア・太平洋戦争の時代の生活・教育・軍隊
- ・アジア・太平洋各地での植民地支配と侵略
- ・軍政・軍部・軍隊と戦争、沖縄戦、都市空襲、
広島・長崎の原爆
- ・台湾・朝鮮・中国などへの侵略
- ・朝鮮人強制連行、中国人強制連行、性奴隷被害
- ・アメリカでの強制収容、南米移民の戦争
- ・戦後改革と憲法、ポツダム宣言と講和など
- ・朝鮮戦争、ベトナム戦争、イラク戦争などへの関与

1 平和学の紹介④平和友好の旅

私たちは韓国・平和友好の旅を通じて、異民族・文化・歴史・現在を体験し、戦争と平和、自己と世界そして時代について考えます。

1910年、日本は大韓帝国を併合し、1945年まで植民地支配を続けました。1950年、朝鮮戦争が始まり、現在も停戦という名で緊張関係が続いています。日本の戦争責任、日韓の領土問題などの課題もあります。

今こそ、対話と平和友好を進め、東北アジアの平和を実現しましょう。

1 平和学の紹介④韓国平和友好の旅

福岡発⇒釜山着 龍頭山公園／ジャガルチ市場／四十階段
ピョンテク 米軍基地／サムルノリ体験

ソウル 西大門刑務所／ソウル大／明洞

ソウル 昌徳宮／日本大使館／景福宮／イスラム寺院

ソウル DMZ／Musical観劇・Soccer観戦

ソウル ナヌムの家

チョナン 独立記念館

イエサン 知人の結婚式／住民交流

イエサン 尹奉吉義士忠義祠参拝／尹奉吉義士記念館

イエサン 小学校／高校／高齢者施設 修徳寺

イエサン グリーンツーリズム／住民交流

イエサン発⇒釜山着⇒福岡着

1 平和学の紹介④平和友好の旅



2 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ための観点

日本、韓国、中国の国家、国民の交流にあたって、不可欠な観点は何か？

- ①日本の侵略的行為と戦争に対する反省
- ②諸国の内戦の収束
- ③自主独立、対等平等、内政不干涉、平和共存
- ④東北アジアと世界のための協力と対話

以上、平和友好の旅の参加者は確認してきた。

3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①きっかけ

韓国平和友好の旅に参加した学生は韓国禮山を訪問し、住民と交流してきた。

1932年の上海天長節事件によって命を失った日本・松山出身の白川義則大將が暮らした街の学生が韓国・禮山出身の尹奉吉＝尹奉吉義士を知った。

尹義士と白川大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

3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②きっかけ

韓国を訪問すれば安重根、金九、尹奉吉に注目が集まる。

出身地の禮山郡徳山では、毎年4月29日、尹奉吉祭が開催される。

日本で唯一、尹義士義士が語られる金沢市では市民と徳山市民との交流が行われている。

しかし、愛媛県松山市では白川大将についてほとんど語られていない。

尹奉吉義士忠義祠(禮山)



3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③きっかけ

今日、東北アジアには、直接的な戦争は発生していないが、戦争にいたる緊張や諸条件が存在し、その克服は容易ではない。東北アジアの平和を現できるかどうかは、日・韓(北朝鮮を含む)・中(台湾を含む)と米口の人々が歴史を学び、その教訓を生かすことにかかっている。そのような決意を込めて、私たちは82周年目の2013年4月29日、5月26日(白川の命日)、12月19日(ユンの命日)を迎えた(つつある)。

4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①2人の評価

<1>価値観によって異なる評価

尹義士に対しては義士、テロリスト、加害者。

白川大将に対しては上海派遣軍司令長官、侵略者、被害者。

<2>概要について

①直接的: 1932年4月29日の上海天長節事件における当事者

②歴史的: 韓国併合以降の日韓関係、満州事変以降の日中関係の中での当事者

<3>人物紹介

尹義士: 農村の指導者として出発し、民族独立思想とから大韓民国臨時政府(金九主席)の一員

白川大将: 満州国建国時の陸軍大将。上海事件対策の責任者

4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②尹奉吉義士

* 韓国では彼の人柄・足跡・思想は継承、発見、顕彰

(1) 地域の指導者

1908年、韓国禮山に生まれ、家族と農村に暮らし、勉強家として成長する。12歳で3・1独立運動に参加。学問を志す。15歳で結婚。19歳で教育事業(夜学)、啓蒙事業(社会教育)、協同組合事業(=農村振興団体「月進会」)を開く。

(2) 父として: 処刑前の言葉(子どもたちへの遺言)

お前たちにも血が流れ、骨があるのなら
きっと朝鮮のために勇敢な闘士となれ
太極(たいきょく)の旗(韓国の国旗)を高く掲げ
私のなきがらのない墓を訪ね
一杯の酒を注いでおくれ
お前たちは父がいないことを嘆くなかれ
愛する母がいるのだから

4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②尹奉吉義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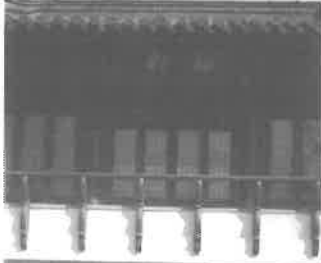
(3) 義士として: 農民運動を弾圧され亡命。大韓民国臨時政府に關係。24歳で上海天長節事件を起こし、同年12月、日本の金沢市で処刑

・「丈夫出家生不環」

「23歳、歳月が経つにつれ、われらへの圧迫と苦痛は増加するのみである。私はここに一つの覚悟をした、率直にゆうならば、瘦せ細る3千里(朝鮮半島を指す)の山河の我が国を黙って見ている事はできぬ、水火に落ちた人を泰然と見ている訳には行かぬ、これに対する覚悟は他ならぬ私の鉄拳で敵を即刻粉碎することだ。この鉄拳は棺桶の中に入れば無用の代物である。老いれば無用だ。今冴えて私の耳に聞こえるのは、上海臨時政府である。多言不要 この覚悟は上海を目標にし、敬愛する父母兄弟と最愛の妻子と麗しい故郷や山河と別れ、辛い胸の中を握りし、鴨緑江を渡った。」(1932年自筆 略歴の一部)

・「いまだ我々の力が弱くて外敵の支配を免れないが、世界の大大勢により、国の独立は遠からず必ず実現されるだろうと信じてやまないし、大韓男児としてなすべきことをしたので、未練なく逝く」(処刑前の言葉)

4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②尹奉吉義士(上海)



4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②尹奉吉義士(大阪・金沢)



4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②尹奉吉義士(金沢)

「尹奉吉義士の記念館 金沢に開設へ」

KBS WORLD (Web) 2012.11.16 より

尹奉吉義士の記念館 金沢に開設へ



2012年、日本の植民地時代に抗議して上海で銃弾を受けついでに日本人を殺害した、尹奉吉(ユンボンギ)義士の記念館が、今年、日本の金沢に開設されることになった。尹奉吉義士記念館推進委員会は、今年、韓国-在日大韓民国同胞の、石川島地方本部の協力で尹奉吉(ユンボンギ)義士の記念館を建設することになった。11日、発表された。これは尹奉吉義士の没後100年に、あたることから、記念館推進委員会が2014年11月1日、死者が殺された日(11月1日)までに記念館を開館することを目指す。記念館は、尹奉吉義士の生誕地、秋田県大館市にある。この記念館は、尹奉吉義士の生誕地、秋田県大館市にある。この記念館は、尹奉吉義士の生誕地、秋田県大館市にある。この記念館は、尹奉吉義士の生誕地、秋田県大館市にある。

4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③白川義則

日本では彼の人柄・足跡・思想は十分に検討されていない

(1) 地域の指導者

1869年、松山藩士の家系に生まれる。

中学校を中退して働き家計を助ける

1884年 陸軍教導団に入り軍人を目指す

(2) 人として

1898年、陸軍大学校在籍時、秋山好古宅に間借りし、秋山から「勉強しているか」と激励を受けた。

1932年上海事変対策では海軍の野村吉三郎らと行動。野村は日米非戦を唱えた水野広徳の友人で、1941年12月8日の開戦時に駐米大使。

4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③白川義則

(3)陸軍大将、上海派遣軍司令長官として:

1932年(昭和7年)1月18日、上海事変を契機に上海派遣軍司令官に就任。同年2月25日の親補式において、昭和天皇は白川に「条約尊重、列国協調、速かに事件解決等」を指示され、さらに「上海から19路軍を撃退したら、決して長追いしてはならない。3月3日の国際連盟総会までに何とか停戦してほしい。私はこれまでいくたびか裏切られた。お前なら守ってくれるであろうと思っている。」と親しい言葉を賜った。白川はこの天皇の信頼に応え、同年3月3日に上海から十九路軍を一掃すると停戦命令を出し、参謀本部から追撃の指令を受けても、司令官の権限をもって停戦を断行した。スイスのジュネーブで行われていた国際連盟総会では、この白川の行動を評価する声上がり、日本を危険視する国際社会の険悪な空気は好転した。陸軍は白川に対し激昂したが、天皇は「本当に白川はよくやった」と喜んだという。その後も、白川の果敢な処置は続き、軍参謀や第一線指揮官の南京進撃論を退け、同年5月5日に停戦の正式調印を行なわれることが決定された。

4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③白川義則

イエサンの住民と松山の学生による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シンポジウム



白川大将の出身地・松山市

5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①現在の論点

人間は歴史的背景、立場の違い、観点から評価される。

上海天長節事件時の日本の支配的イデオロギーという観点によると、尹は「凶悪無残の犯人」(1932年12月19日『北陸新聞』)、テロリスト、白川は「陸軍大将」「男爵」などの表現となる。他方、韓国の独立を願う観点によると、ユンは「義士」、白川は「侵略者」となる。

当時の日本の支配的イデオロギーと韓国独立を願う観点とは相いれず、接点はないが、今日の東北アジアの平和を願う観点から見ると尹義士と白川大将をどのように理解し、表現すべきか？ また日本国憲法、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日韓条約、村山談話の観点から見てどのように理解し、表現すべきか？ 試行中であり、対話が必要である。

5 尹奉吉義士と白川義則を通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②日本の学生の意見

- 日本の学生は朝鮮の近代史と尹義士について詳しくは知らない。
- イエサンの村づくりに取り組んだ尹義士一族への関心。
- 尹義士の亡命と大韓民国臨時政府への関与および天長節事件についての評価は難しい。
- 現代の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何ができるだろうか？を考える

6 東北アジアの平和を実現させるために

- ①他国・他民族に対する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の反省
および平和・友好の促進
- ②多国籍企業の規制、地球環境の保護、地域文化の育成
を図る国際経済秩序の確立
- ③国連を中心とした国際秩序の確立と覇権主義の克服
- ③東北アジアの非核化、軍事同盟の解消、外国の軍事
基地の撤去、平和友好条約の締結、民族自決の擁護
- ④国際紛争の解決する手法としてのテロ・暴力の根絶
- ⑤領土問題の解決
- ⑥紛争の平和解決、災害、難民、貧困、飢餓などの人道
問題に対する平和的な支援
- ⑦価値観や社会制度の異なる諸国、諸民族の対話と平
和共存

終わりです

윤봉길과 시라가와 요시노리(白川義則)을 통하여 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한다.

와다 토시히로(和田壽博, 일본 에히메대학)

WADA Toshihiro Prof. of Ehime Univ. JAPAN

성명: 와다 토시히로 WADA Toshihiro

소속: 에히메대학 법문학부

직위: 에히메대학 교수

생년월일: 1963년 효고현 출생

학위: 1997년 박사학위(상학) 취득

소속 학회: 경영사학회, 일본평화학회

전공: GHQ/SCAP(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점령정책과 부흥

Toshihiro Wada, Prof. at Ehime University, teach

the Peace and Conflict Studies and is a member

of the Peace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1. 평화학(平和学)의 소개 — ① 강의 개요

2013년은 1910년 한일합방으로부터 103년, 신해혁명으로부터 102년, 만주사변으로부터 82년, 아시아·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부터 68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학생들은 9·11 사건이나 헌법 논의, 위안부 논쟁, 동 아시아에 있어서의 역사 인식,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쟁과 평화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전쟁 체험이나 외국인의 전쟁 체험에 대해 보고 들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평화학 수강생들은 이러한 전쟁 체험을 배우고 대화를 진행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쟁과 평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과학으로서 평화학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사회 문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고 경제 격차는 확대되는 가운데, '전쟁에서 희망을 찾자'는 이데올로기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등장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의 원천을 생각하고, 대화를 해 보고자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의 일본의 침략을 반성하고, 화해를 추진하여, 어떠한 문제도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인과 한국·중국 등 아시아인들과의 평화우호를 추진해 나갑시다.

1. 평화학의 소개—②전쟁 체험 기록

평화학에서는 전쟁과 평화, 국제적 이해와 우호 등의 테마를, 대학의 교원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 알맞고 보통 시민이며, 나아가 실제로 전쟁을 체험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학생들은 이야기의 내용, 전달 방법, 감정 표현, 여러 가지 느낌 등 다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느끼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그 깊이를 더해 가고자 한다.

제1회의 경우, 고등학교의 공부에서 대학의 배움으로 가는 과도기, 즉 '배움의 제1보'의 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배움의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전쟁 체험자는 전 아나운서이며, 현재 낭독 등을 통한 일본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다. 그녀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군국주의에 휩쓸린 가운데에 전황이 악화되어 물자가 부족해지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돌보았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후 홀어머니와 함께 고생을 했고, 전후에는 방송국에 들어갔다. 도쿄에서 근무할 때는 전후 일본의 변화를 얼마간 살펴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 등을 방문, 종이 연극을 통하여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알리기 위해 힘쓰면서 우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평화학의 소개—③칭강했던 전쟁 체험

-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의 생활·교육·군대
- 아시아·태평양 각지에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 군정·군부·군대와 전쟁, 오키나와전투, 도시 공습,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 타이완·조선·중국 등에 대한 침략
- 조선인 강제연행, 중국인 강제연행, 성노예 피해

- 미국에서의 일본인 강제수용, 남미 이민과 전쟁
- 전후 개혁과 헌법, 포츠담 선언과 강화 등
-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에 대한 관여

1. 평화학의 소개— ④평화우호 여행

우리는 한국 평화우호 여행을 통해 이민족·문화·역사·현재를 체험하고, 전쟁과 평화, 개인과 세계, 그리고 시대에 대하여 생각해봅니다.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을 병합하여 1945년까지 식민지 지배를 계속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 한일 간의 영토문제 등의 과제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평화우호에 힘써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할 때입니다.

1. 평화학의 소개— ④한국 평화우호 여행

후쿠오카 출발 ⇒ 부산 도착. 용두산 공원/자갈치 시장/40계단

평택 미군기지/사물놀이 체험

서울 서대문형무소/서울대학교/명동

서울 창덕궁/일본대사관/경복궁/이슬람 사원

서울 DMZ/Musical 관람·축구 관전

서울 나눔의 집

천안 독립기념관

예산 지인의 결혼식/주민 교류

예산 윤봉길의사 총의사 참배/윤봉길의사기념관

예산 초등학교/고등학교/노인시설 수덕사

예산 그린 투어리즘/주민 교류

예산 출발 ⇒ 부산 도착 ⇒ 후쿠오카 도착

1. 평화학 소개—④평화우호 여행

2.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할 때의 관점

일본, 한국, 중국의 국가 및 국민의 교류에 있어서 필수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 ① 일본의 침략 행위와 전쟁에 대한 반성
- ② 각국의 내전 종식
- ③ 자주독립, 대등·평등, 내정 불간섭, 평화공존
- ④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위한 협력과 대화

이상의 문제를 평화우호 여행 참가자는 확인하였다.

3. 윤봉길 의사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살펴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①계기

한국 평화우호 여행에 참가한 학생들은 예산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교류하였다.

1932년의 상하이의거로 목숨을 잃은, 에히메현 마츠야마 출신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이 살았던 지역의 학생들이 예산 출신 윤봉길=윤봉길의사를 알게 되었다.

윤의사와 시라카와대장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해본다.

3. 윤봉길 의사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살펴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②계기

한국을 방문하면 안중근, 김구, 윤봉길을 주목하게 된다.

윤의사의 출신지 예산군 덕산에서는 매년 4월 29일, 윤봉길제가 개최된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윤의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카나자와시에서는 카나자와 시민과 덕산 시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에서는 시라카와대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윤봉길의사 총의사(예산)

3. 윤봉길 의사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살펴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③계기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직접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과 여러 조건이 존재하며, 그것을 극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동북아시아의 평화 실현은, 한(북한 포함)·일·중(타이완 포함)과 미국·러시아인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그 교훈을 활용하는 일에 달려있다. 그러한 결의를 안고 우리는 82주년이 되는 2013년 4월 29일, 5월 26일(시라카와의 기일), 12월 19일(윤의사의 기일)을 맞이하였다(맞이하게 된다).

4. 윤봉길 의사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살펴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①두 사람에 대한 평가

<1> 가치관에 의해 달라지는 평가

윤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테러리스트, 가해자.

시라카와대장에 대해서는 상하이파견군사령장관, 침략자, 피해자.

<2> 개요에 대하여

① 직접적: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의거에 있어서의 당사자

② 역사적: 한국합병 이후의 한일관계, 만주사변 이후의 중일관계 속에서의 당사자

<3> 인물 소개

윤의사: 농촌 지도자로 출발, 민족독립을 위해 한국임시정부(김구 주석)에 참여

시라카와대장: 만주국 건국 시의 육군대장. 상하이사변 대책의 책임자

4. 윤봉길 의사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살펴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②윤봉길의사

한국에서는 그의 인격·족적·사상을 계승, 발견,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있다.

(1) 지역의 지도자

1908년, 예산에서 태어나 가족과 농촌에서 살면서 근면한 사람으로 성장. 12세 때 3·1독립운동에 참가하였고, 학문에 뜻이 있었다. 15세에 결혼. 19세에 교육사업(야

학), 계몽사업(사회 교육), 협동조합사업(농촌진흥단체인 '월진회)을 전개.

(2) 아버지로서: 처형 전의 말(두 아들에게 남긴 유언)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4. 윤봉길 의사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살펴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②윤봉길의사

(3) 의사로서: 농민운동으로 탄압을 받자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여하게 된다. 24세에 상하이의거를 결행하고, 동년 12월 일본의 카나자와시에서 처형되었다.

○ ‘丈夫出家生不還’

○ “23세,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우리 압박과 고통은 증가할 따름이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 각오가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뺨뺨이 말라가는 삼천리강산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수화(水火)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대로 태연히 앉아 볼 수는 없었다. 여기에 각오는 별 것이 아니다. 나의 철권(鐵拳)으로 적을 즉각 부수려 한 것이다. 이 철권은 관 속에 들어가면 무소용이다. 늙어지면 무용(無用)이다. 내 귀에 쟁쟁한 것은 상해임시정부였다. 다언불요(多言不要). 이 각오로 상해를 목적하고 사랑스러운 부모형제와 처자와 따뜻한 고향산천을 버리고,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압록강을 건넜다.”(1932년 자필 약력의 일부)

○ “아직은 우리가 힘이 약하여 외세의 지배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세계대세에 의하여 나라의 독립은 머지않아 꼭 실현되리라 믿어마지 않으며, 대한 남아로서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떠나가요.”(처형 전의 유언)

4. 윤봉길 의사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살펴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②윤봉길의사(상하이)

4. 윤봉길 의사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살펴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②윤봉길의사(오사카·카나자와)

4. 윤봉길 의사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살펴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②윤봉길의사(카나자와)

‘윤봉길의사기념관을 카나자와에 세우기로’ KBS WORLD(Web) 2012.11.16일자에서

4. 윤봉길 의사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살펴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③시라카와 요시노리

일본에서는 그의 인격·족적·사상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1) 지역 지도자

1869년 마츠야마번의 무사 집안에서 태어남. 중학교를 중퇴하고 일하면서 가게를 도움.

1884년 육군교도단에 들어가 군인의 길을 가고자 함.

(2) 한 인간으로서

1898년, 육군대학교 재적 시, 아키야마 요시후루의 집에 기숙하면서 아키야마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라고 격려를 받았다.

1932년 상하이사변의 대책을 위해 해군의 노무라 키치사부로 등과 함께 행동함. 노무라는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했던 미즈노 히로노리의 친구로,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 개전 시의 주미대사.

4. 윤봉길 의사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살펴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③시라카와 요시노리

(3) 육군대장, 상하이파견군사령장관으로서

1932년(쇼와7년) 1월 18일, 상하이사변을 계기로 상하이파견군사령관에 취임. 같은 해 2월 25일, 親補式(천황이 특별 관직을 친히 임명하는 행사)에서 昭和(쇼와)天皇은 시라카와에게 '조약 존중, 열국 협조, 신속한 사건 해결'등을 지시하고, 나아가 '상하이에서 19로군을 격퇴하면 결코 오래 추격해서는 안 된다. 3월 3일의 국제연맹총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정전을 하기 바란다. 나는 지금까지 몇 번이고 배신당했다. 자네라면 지켜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친밀하게 말했다. 시라카와는 天皇의 이런 신뢰에 보답, 동년 3월 3일에 상하이에서 19로군을 일소하자 정전 명령을 내렸고, 참모본부에서 추격 지령이 내려와도 사령관의 권한으로 정전을 단행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총회에서 이런 시라카와의 행동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일본을 위협하던 국제사회의 험악한 공기는 호전되었다. 육군은 시라카와에 대해 격양된 반응을 보였지만 天皇은 '참으로 白川는 잘 했다'며 기뻐했다고 한다. 그 후에도 시라카와의 과단성 있는 조치는 계속 되어 군 참모나 제일선 지휘관들의 남경 진격론을 거부했으며, 동년 5월 5일에 정식으로 정전 조인을 거행하기로 결정되었다.

4. 윤봉길 의사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살펴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③시라카와 요시노리

예산 주민과 마츠야마 학생들이 개최한 동북아시아 평화를 생각하는 심포지엄
시라카와대장의 출신지 마츠야마시

5. 윤봉길 의사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살펴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①현재의 논점

인간은 역사적 배경, 입장의 차이와 관점에 의해 평가된다.

상하이의거 시기의 일본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관점에 따르면 윤의사는 '흉악무도한

범인'(1932년 12월 19일 '호쿠리쿠신문'), 테러리스트, 시라카와는 '육군대장', '남작' 등으로 표현된다. 한편 한국 독립을 염원하는 관점에 따르면 윤봉길은 '의사', 시라카와는 '침략자'가 된다.

당시 일본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한국 독립을 염원하는 관점은 접점이 없어 양립할 수 없었으나,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관점에서는 윤의사와 시라카와대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가. 또한 일본헌법, 샌프란시스코조약, 한일조약, 무라야마담화의 관점에서라면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다.

5. 윤봉길 의사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살펴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②일본 학생들의 의견

- 한국 근대사와 윤의사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
- 예산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윤의사 일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 윤의사의 망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관여, 그리고 상하이 의거에 대한 평가는 어렵다.
- 현재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6. 동북아시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 ① 타국과 타민족에 대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및 평화·우호 촉진
- ② 다국적 기업 규제, 지구환경의 보호, 지역문화의 육성을 도모하는 국제경제 질서의 확립
- ③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 확립과 패권주의 극복
- ④ 동북아시아의 비핵화, 군사동맹의 해소, 외국군의 군사기지 철수, 평화우호조약 체결, 민족자결 옹호
- ⑤ 국제 분쟁 해소 수단으로써의 테러·폭력 근절
- ⑥ 영토문제 해결

- ⑦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재해, 난민, 빈곤, 기아 등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지원
- ⑧ 가치관이나 사회제도가 다른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간의 대화와 평화공존

동학농민혁명유족회의 설립과 활동

東學農民革命遺族會 새로운 座標

정남기 |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고문

1. 100년만에 출범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에 즈음하여 전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자주와 평등세상을 외치며 산화하신 동학농민군의 영령을 위무하는 기념행사가 줄을 이었다. 이때 당연한 일이지만 학계와 지역기념사업단체들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동학농민군의 후손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동학농민군 후손들은 어디에 몇 명이나 살아남았으며 어떻게 연명하고 있을까? 그 무렵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던 이이화(李離和)선생께서 한겨레신문에 <동학농민혁명 인물열전>을 집필하면서 처음으로 후손 30여명을 발굴해냈다. 그리하여 역사문제연구소가 유족회를 탄생시키는데 산파역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1994년 2월 27일 서울 남산아래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동학농민군 후손 20여명이 모여 유족회창립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3월 3일 충청로 동아일보 사옥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100년의 세월동안 대를 이어 숨죽여온 동학농민군 후손들은 역사문제연구소의 주선으로 역사적인 거사를 감행한 셈이다.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의 출범은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평가와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세워야할 통일 자주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것이다. 학자들의 집념어린 조사, 연구의 성과로 왜곡된 역사와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었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이념,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이 역사가 발전할수록 더욱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동학농민군 후손들은 이제야 뒤흔히 제 성명을 밝힐 수 있게 되었고 원망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조상들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물림하며 핍박과 가난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천대 속에서 목숨을 부지해왔던 지난날을 되새기며 자주적인 삶에 대한 각성의 계기로 삼고자했다.

동학농민혁명의 명예회복운동은 70년대 이후 반독재 투쟁, 한일굴욕외교 반대투쟁 등, 정치, 사회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족회 창립은 민주,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은바 컸다. 실제로 창립총회에 참석한 외부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친일파 후손이나 수구세력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정치 사회 문화계의 민주인사 일색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자주와 평등을 지향했던 정신에 비춰볼 때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선각자들의 후손들이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겠다고 일어난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대중적 이해의 확산과 민족사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동학농민혁명의 제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반전평화 운동이나 민족통일 운동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곡의 100년 세월을 흘러 보내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후손들의 실제 생활터전은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못 입고 못 먹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배우지 못한 것이 더욱 한스러웠다. 반외세, 평등, 평화, 민주화, 통일, 개혁 등등의 생경한 단어는 외치거나 실천에 옮길 우리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후손 중 상당수는 반민주적인 독재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몰랐고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끌어줄 것으로 굳게 믿고 살아왔다. 외세에 시달리다가 사생결단을 하고 일어난 열혈청년들의 후손이라 하지만 대다수가 대가 끊기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목숨을 건진 후손들마저 성을 바꾸어 숨고 쫓기는 처지에서 어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할 수 있었겠는가.

동학농민군 후손으로서의 올바른 정신과 자세가 후손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임은 말할 나위없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이상을 실현해야할 크나큰 책무는 오롯이 깨달은 백성과 나라의 몫이라고 본다.

2. 유족회 20년 활동과 그 성과

유족회는 설립 직후부터 적은 수의 회원과 열악한 재정형편, 역사적평가가 아직도 미흡한 어려운 환경에서 20년이란 세월을 고군분투 해왔다. 외부의 지원을 받는 일 없이 열성적인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 사무실을 운영하고 회지를 발간하고 지방의 동학관련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동학농민군의 후손이라는 천형과도 같은 굴레를 쓰고 고향을 등지는가 하면 목숨만을 부지하는데 급급하여 남들처럼 배우지 못하고 재산을 모을 수도 없었지만 유족회의 자주적인 운영을 위해 흔들리지 않았다. 가난과 무지의 질곡에서 허우적거린 한 세기를 되돌아보며 이제부터는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회원들의 결의가, 또한 선조 명령들의 한 서린 가호가 뒷받침되어 기적에 가까운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 역사문제연구소에 첫 등지

유족회가 첫발을 내디딘 초기에는 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앞으로 전개할 사업의 기초조사 및 방향설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95년 6월20일 중구 무학동에 처음으로 독자적인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듬해인 96년 4월 12일 공평동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으로 이전하여 회지〈사발통문〉을 창간, 유족회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유족회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겨레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각계각층에 보냄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동학농민군 후손 증언록 〈다시피는 녹두꽃〉이 처음으로 출간되어 유족들의 가슴을 들뜨게 했다.

97년에는 증언록 2집 〈전봉준과 그 동지들〉이 나와 그해 9월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유족들의 기세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두권의 책에 수록된 분은 적었지만 유족들은 함께 기뻐했고 증언록 출판에 유족회가 힘을 보탰기 때문에 더욱 큰 보람을 느꼈다.

유족들은 동학농민혁명 관련행사에 참여하느라 해마다 반복하여 지방을 몰려다녀야 했지만 한편으론 그러한 행사참여가 동학농민군들의 피가 서린 유적지를 답사하고 현지 주

민들에게 유족회의 실체를 알릴 수 있는 유의한 기회로 활용했다.

○ 동학농민군 서훈추진위 발족

초창기 유족회의 최대관심사는 단연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이었다. 95년 9월 20일 인사동 한식집에서 재야인사들을 모시고 가칭 <동학농민군국가서훈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자리에는 예춘호 한승헌 김종배 장을병 한완상 이이화 선생 등 명망가들이 참여하여 김종배선생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국가서훈추진위는 이후 서울, 전주 등지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97년 11월 29일부터 한겨레신문에 <동학농민군 국가서훈>을 주장하는 광고를 연 3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동학농민군의 서훈을 열망하는 후손들의 간절한 소망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성금을 보내주었으며 민주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선 덕분이었다.

○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봉환

1996년 5월 30일 일본 홋카이도대학에 방치되어온 <동학농민군 지도자유골 봉환>은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동학농민혁명이 막을 내리고 일제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전남 진도에 묻힌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무덤을 파헤쳐 일본으로 가져가 연구목적에 이용한 다음 보관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헌 당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께서 주도적으로 봉환을 추진했지만 외교부가 개입하여 천도교 교령과 유족회 회장 3인의 공동대표체제로 의전이 진행되었다. 유족회는 유골이 김포에 도착한 즉시 공항특별실에서 고유제를 주관했고 이어 유골은 천도교 수운회관을 거쳐 전주에서 성대한 의식을 가졌다. 그 유골은 현재 전주 역사박물관 수장고에 안치되어 있다.

○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국회통과

동학농민혁명의 명예회복을 위한 확실한 조치는 특별법제정이다. 일부에서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별법을 원용해서 적용할 길을 찾겠다고 했지만 허사였다. 실제로 몇몇 후손들

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했지만 심사에서 번번이 기각되었다.

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학계인사들과 손잡고 특별법제정을 적극 추진했다. 2000년 12월 8일 국회귀빈식당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갑오동학농민혁명연구회>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만섭 의장 등 중진들이 나와서 지원을 약속했고, 회장에 김태식 부의장, 간사는 윤철상. 권오걸 의원이 맡았다.

2002년 3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연구회 주최 학술세미나 및 입법공청회가 열려 특별법의 골간이 다듬어졌다. 2003년 11월 21일 국회 과거사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술인으로 참석한 유족대표는 명예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이나 보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타협안에 동의했다.

국회가 정부의 재정지출이 큰 특별법은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유족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유족회는 일단 모법이 마련되면 차후 개정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

특별법제정 움직임을 두고 이른바 보수언론과 수구진영에서는 조선시대에 벌어진 사건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명예회복을 시킬 수 있는냐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

유족회가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리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 2월 2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고, 2월 9일 제24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됨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그러나 3월 5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고 이어 시행령이 마련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유족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출범

특별법이 제정과 연계하여 유족회는 그해 3월 1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단체협의회>창립대회를 개최했다.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동단협”이 결성되었지만 실체가 모호하여 새로운 자세로 재출범한 것이다. 이는 유족회와 학계 그리고 지역기념사업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학민혁명기념재단”을 만들기 위한 절차적인 사업이었다.

유족회는 곧바로 기념재단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전국의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재단설립취지문과 발기인 참여 동의서를 발송하여 유력 신문사 사장, 국회의원, 문화예술계인사 등 많은 호응을 끌어냈고 동시에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5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2004년 11월 25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설립인가를 받아 민간재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 명예회복심의위 발족, 유족 1만명 등록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발족하고 경북공안에 사무국이 개설되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유족등록 신청 및 심의를 마친 유족은 1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6년 12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족의 범위를 손자에서 현손(고손자)까지로 늘였기 때문이다.

물론 동학농민군과 그 후손들을 모두 발굴하자면 앞으로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동학농민군은 얼마일지, 자기 할아버지가 동학에 뛰어들었다가 죽어간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후손은 몇 명일지, 혹은 동학농민군 후손임을 인지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침묵하는 유족은 없는지 등등... 동학농민혁명의 명실상부한 명예회복과 조사연구가 더욱 절실한 이유다.

3. 유족회 20년의 반성과 발전방향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출범이후 유족회는 재단창립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단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특별법 개정안이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때마다 유족회의 주장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

유족의 수를 1만명 이상으로 늘이기는 했지만 참여자나 후손들을 새롭게 찾아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밝혀진 참여자의 후손 중 현손까지로 범위만 넓힌 것이다. 유족회가 위상을 높이려면 회원들의 역량을 길러야하는데 젊은 일꾼의 발굴이나 양성에 힘을 쏟지 못했다. 회원들의 자질이나 능력은 초창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의지와 열기가 식어가는 형편이다.

유족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국가유공자로 추서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위해

서는 특별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유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동의는 물론이고 일반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별법을 유족들의 뜻에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내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두 갑자를 발판으로 천도교, 학계와 기념재단, 전국 각 지역 기념사업회와 연대하여 사회적인 지지와 성원을 끌어내야한다. 그러기 위하여 국회에 우리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구축하고, 또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일반인들의 이목을 끌어내는 행사를 반복적으로 벌여야하는데 이 부분에서 기념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 활동가 양성과 역량 강화

지난날 유족회의 운영은 회장과 집행부의 지도력에 의존해 왔다. 유족회가 유지될 수 있었고 사업성과가 있었음은 이들 소수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의 재정적 부담, 그리고 노령화로 인한 활동력의 저하 때문에 새로운 활동가를 양성하지 않으면 갈수록 쇠잔해질 것이 자명하다.

청년회를 만들어 현 회원들의 자녀를 적극 참여시키고 의지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없는, 한명의 활동가도 찾기 어려운 현재의 유족회 실정에 비추어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 회원교육과 철저한 관리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유족의 수가 1만명을 넘었다면 앞으로 추가발굴이 이뤄지면 더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미등록상태로 남아있는 후손을 유족회에 합류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지만 우선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유족회 활동에 참여시키고 조상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교육시키며 회원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체적인 교육이 어렵다면 기념재단 등 외부에 위탁해서라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유적지답사와 청소년캠프, 지역기념사업단체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기획할 수 있다.

○ 새로운 조직체계의 도입

1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단체에 걸맞게 새로운 조직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회원의 참여도와 관심이 적은 회원들이 많다는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방법은 사업, 교육, 유형무형의 수혜 등을 병행해야겠지만 우선 조직을 그 물망식으로 다원화하여 유대감을 증대시켜야 한다.

지역별로 지회를 구성하고 지회가 지역내 회원을 관리하여 지역에서의 참여도 증대, 친목과 동질감의 증진, 나아가서 동학농민혁명의 이념적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자별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참여자 후손들의 회합을 의무화함으로써 문중에서 관심과 발언권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단체 참여로 동학농민혁명 정신확산

회원들이 각자 취향과 연고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과 유족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해낼 수 있다. 지방의 회원들은 그 지역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선양과 본인의 정체성확립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유족으로서 경계해야할 것은 동학정신과 배치되는 수구적인 단체나 외국의 앞잡이 노릇을 일삼는 인사들과의 접촉이다. 그들은 동학농민혁명과 그 후손들을 폄훼하고 정신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 유족회의 법인화(사단법인 등록) 시급

유족회가 2003년 공익법인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2004년 기념재단 설립으로 방향을 바꾼바 있다. 민간재단으로 출발한 기념재단은 특별법에 따라 2010년 문화관광부 산하단체로 바뀌었다. 이제 유족회가 기념재단과 정부에 대하여 공인단체로 인정받고 공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념재단이나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당당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요청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주요추진사업

구분	사업	기간 및 회수	비고
연례사업	동학농민혁명 관련행사 참석	1994. 3 ~ 2012. 7 (170회)	전국 각 지역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순례, 답사	1994. 3 ~ 2012. 7 (19회)	전국 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워크숍	2006. 10~ 2012. 7 (4회)	태안 남원 고창장흥
기획사업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일본에서 유해봉환	1996. 5. 30~31	김포공항, 전주, 천도교,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2006.10.29~2012.7 (6회)	공주 서울 남원 태 안 상주 고창
	김개남 분묘 시굴	2010. 8. 25	입실
학술사업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세미나	1994. 6~ 2012. 7 (15회)	강당
	동학농민혁명참여 유족현황 실태조사	2012. 4. 2~9, 28	서울 경기지역
출판사업	〈증언록1집〉 다시 피는 녹두꽃	1995. 1. 15	역사비평사
	정백현 서울일기	1995. 12. 12	삼희출판사
	〈증언록2집〉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1997. 5. 31	역사비평사
	〈대접주 김인배〉 동학농민혁명의 선두에 서다	2004. 8. 2	푸른역사
	동학농민혁명참여 유족영상증언록 제작	2009. 3. ~8	삼천리 영상
특별사업	동학농민혁명기념일제정 토론회 (1~4차)	2004. 7 ~ 2007. 5.10	연세대, 충북대, 동학혁명기념관 동학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대회	2011. 4. 25	세종문화회관
기타사업	사발통문 회보 발간	1994. 12~2011. 8	유족회
	회원수첩제작	2003. 8. 15	유족회

발표2

1894년 일본군의 불법 행위와 동학농민군 학살

제3주제 — 강효숙 | 원광대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 측의 비문명·비합법적 책동

제4주제 — 신영우 | 충북대

충남 내포지역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과 장위영의 진압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 측의 비문명·비합법적 책동*

강 호 숙 | 원광대학교

들어가는 글

필자에게 요구된 중심 테마는 동아시아 평화와 관련된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동학농민전쟁은 청일전쟁과 깊은 관련 속에서 발생하였고, 종래 일본학계는 청일전쟁을 문명전쟁이라 칭하여 왔는데 현재에도 그러한 주장은 많은 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청일전쟁을 문명전쟁으로 주장하는 일본에게 있어 농민군 탄압 역시 조선을 문명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청일전쟁은 청일이라는 양국을 떠나 戰場이 조선의 육지와 바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세계 전쟁사상 매우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일개전과 청일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은 조선을 병참기지화 했고 제2차 동학농민전쟁을 발발시켰다. 이는 청일전쟁 후방지역으로서의 조선의 역할을 보호할 목적 때문이었고, 초기에 비합법적으로 설치된 병참선로 및 군용전선 등 병참기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러한 주된 목적을 지닌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이하 농민군)이 러시아 국경지역으로 근접했을 때 발생할 러시아의 조선문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농민군을 러시아국경과는 정반대 방향인 서남으로 몰아 부쳐가면서 철저히 탄압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농민군 탄압은 도서지방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그러한 탄압정책은 1898년 10월 27일 당시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을 총지휘하던 병참총감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이하 가와카미)의 “동학당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치할 것을 요한다. 향후 모두 살육할

* 발표문은 필자가 기 발표한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민중 탄압」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왕현종 외 4인 지음,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전략』, 동북아역사재단, 2009)

것”이라는 명령 이후¹ 더욱 철저해졌다.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한 농민군 학살은 실제 일본군의 해외민중학살의 시작이기도 하였고, 중일전쟁 당시의 삼광정책 중 하나인 “殺光정책”의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 간단히 기술하였듯이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은 한 세트 구성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은 별도가 아니라 조청일전쟁이었고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면 동학농민전쟁은 또 하나의 청일전쟁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동학농민전쟁이기에 동아시아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먼저 동학농민전쟁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당시 일본 정부의 조선책략을 먼저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는 과연 당시 일본의 조선 책략을, 일본 측 주장대로 문명을 위한 동학농민전쟁이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조선의 병참화 과정 및 농민군 탄압 과정 등 여러 측면에서 “문명적” 요소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당시 일본의 문명이란 즉 서구열강 제국주의의 만국공법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선진 제국 열강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었기에 문명=만국공법으로 연결되고, 이는 역으로 “비문명적=비합법적”요소로 확인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당시 일본인이 생각한 “문명”이란 과연 무엇이였을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에, 둘째, 일본의 조선 병참화 과정, 셋째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한 농민군 탄압 과정 등을 통해 일본군의 “비문명적”내지 “비합법적” 요소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1894년 당시의 일본군 자료 등을 중심으로 이용하기로 한다.

1. 당시 일본인의 “문명관 전쟁관”

메이지 초기 이후 일본의 지식인을 리드하였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이하 후쿠자와)를 통해서 1894년을 전후한 일본인의 문명과 전쟁에 대한 인식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후쿠자와에게 있어 문명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할 문명”과 “지금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문명” 두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는 일본은 장래 참된 문명보다 더욱 절실한 목

1 병참총감 川上操六의 「...모두 죽여라」 라는 명령은 박종근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박종근, 『日清戰爭と朝鮮』, pp.193-194.)

적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구별을 명료하게 하여 본국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었고, “문명”은 그것을 위해 불가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독립을 지키는 법은 문명의 밖에서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또 “무릇 지금의 문명으로 세계를, 세계 각국의 서로의 관계를 묻는다면…나라와 나라의 교제에 있어 오직 한 가지가 있다. 이르길 평시에는 물건을 매매하지만, 서로 이익을 다투는 일이 발생하면 무기로써 서로를 죽인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세계는 상업과 전쟁의 세계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전쟁”은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후쿠자와는 이처럼 “지금 우리의 문명”이라는 한정 속에 “전쟁”을 긍정하였는데, 그에게 있어 “전쟁”은 “문명”의 일대 구성 요소였다. 후쿠자와는 청일전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싸울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당시 그에게 있어 “문명”행위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즉 후쿠자와는 청일전쟁을 마치 미개국인 청국을 문명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행위로 인식하여 “청일전쟁=문명전쟁”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후쿠자와의 문명관과 전쟁관은 당시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고 현재까지도 그 질은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문명이란 국제법(= 만국공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1860년대에 국제법을 만국공법이라 부른 것에서 비롯된다. 이 용어의 유래는 1864년에 중국에서 International Law를 만국공법으로 번역한 것에서 시작되며, 일본이 1865년에 그대로 수입·번역되었기 때문에 이후 국제법을 만국공법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인들이 즐겨 사용한 “문명 = 국제법”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

일본은 막말 초기 서양문명과의 만남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1853년 7월 도쿄(東京)만 우라가(浦賀)에 입항한 미국의 증기선 크로부네(黒船)는 그 자체만으로 이전의 영국이나 러시아와의 함대와는 또 다른 서양문명의 위용을 보여주었고, 당초 일본개국을 목표로 한 크로부네에 의해 다음 해 일본은 미국과 비자주적인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한 1859년에 이루어진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의 연이은 수호통상조약 체결은 일본 내에 그들 각국민의 거류지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고 영사권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또한 관세율을 협정하고 편파적인 최혜국조항을 인정해야만 했다. 선진 제국 열강의 일방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강요된 내용이었다.

특히 영사권재판 인정은 바꾸어 말하면 비주체적의 상징이었기에 이는 곧 비문명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히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 막부는 이처럼 강요된 조약체결을 통해 국제법이 곧 선진 제국 열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깨닫고, 서양의 학술과 기술도입을 위해 네덜란드에 국비유학생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네덜란드에 파견된 유학생들은 해군관련 기술과 사회과학, 의학, 국제법 등을 배웠다. 특히 츠다 마미치(津田真道)는 니시 아마네(西周)와 함께 자연법(Natuurrecht 性法之學), 국제공법(Volkenrecht 萬國公法之學), 국법학(Staatsrecht 國法之學) 등을 배웠는데, 귀국 후 강의 내용을 번역, 간행하여 이후 일본의 자연법, 국제법 등 성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²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정부는 지속적인 조약개정을 통해 선진 제국 열강과 대등한 국제적 지위에 서는 것을 최우선의 선결과제로 삼았고 해외유학생을 파견하여 국제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시켰다. 상법이나 민법, 헌법이 아닌 국제법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동시에 유럽열강과 대등해지기 위해 국제법 클럽의 정회원이 되고자 끈질긴 노력을 경주하였다.

당시 유럽에서 국제법 클럽의 정회원 기준은 문명국이어야만 했는데 여기에서 문명은 곧 국제법을 의미하였다. 에든버러 대학의 국제법교수로 만국국제법학회 설립 발기인의 한 사람이었던 제임스 로리마는 자신의 저서인 『國際法綱要』 제2권에서 인류를 문명화된 인류, 야만의 인류, 미개한 인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문명화한 인류(문명국)란 국제법상 완전한 법적 주체인 인류를 칭하고, 선진 제국 열강과 미국이 이에 속한다 하였다. 법적 주체로서의 문명국이란 곧 선진 제국 열강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미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메이지유신의 공훈자였던 키도 타카요시(木戶孝允)는 “만국 공법은 약소국을 빼앗는 하나의 도구…”라 평하였고, 이 평가는 국제법의 본질을 진정으로 꿰뚫어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임스 로리마의 문명론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쳐 후쿠자와의 문명론과 메이지정부의 불평등조약 개정 노력 등으로 나타났으며, 청일개전 직전인 1894년 7월 16일 영일통상항해조약 조인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 메이지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치외법

2 井上琢智, 「幕末 明治 大正期イギリス日本人留學生資料(1)」, 『經濟學論研』56(4), 關西學院大學, 2003 : 神保文夫, 「幕末・維新期の遣外使節と留學生達」(2006년 11월, 名古屋대학부속 도서관 주최한 “西洋の發見”이란 테마의 강연회 때 발표된 것임)

권이 철폐되었고 내지 개방을 대신하여 영사재판권 또한 철폐되었다. 관세자주권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고 일방적이었던 최혜국대우도 상호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체결 당시 영국 외무대신 김벌리는 영일 간에 대등한 조약이 체결된 것은 일본이 국제적 지위 향상키는데 있어 청국군 수만 명을 격파시킨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당시 영일통상항해조약 체결은 일본이 문명국으로 크게 한 걸음 내딛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다. 일본 육군성은 이 조약체결의 의미를 영국이 청국이 아닌 일본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이해하고 청일개전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하여질 정도이다. 일본은 불평등조약 체결국에서 일약 선진 제국 열강과 국제법적으로 대등한 문명국의 범주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영국과 러시아와의 갈등 관계가 얽혀있으나 본 발표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어찌되었든 영일통상항해조약은 일본으로 하여금 청일전쟁을 문명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이는 청일전쟁을 국제법에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쟁을 문명의 구성 요소로 인식하였던 후쿠자와는 청일전쟁을 “문명 전쟁”이라 칭하였고, 일본이 “문명”적으로 싸울 것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문명적인 싸움이란 청국 군사도 부상당하면 구별하지 않고 구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극히 한정된 의미의 문명 전쟁이었다.

한편, 일본의 선전포고에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는 한 전력으로 싸우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일본이 청일전쟁을 “문명전쟁”으로 행하는 것을 공시한 것이다. 즉, 일본이 “문명국”이 채용한 국제법에 따른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일전쟁은 일본 측에게 선전포고대로 “문명전쟁”이어야 하고, “정의의 전쟁”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천황의 지상명령이었고, 또한 메이지유신 이후 창출해 온 천황제 국가인 일본을 국제법상의 “문명국”으로서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는 한 전력으로 싸우라”는 선전포고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는 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싸움에 임하라는 내용으로 국제법의 범위를 벗어난 전쟁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일본의 선전포고 자체가 이미 “문명”의 반대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 일본정부는 청일전쟁을 비문명적으로 시작하였다. 즉, 당시 일본인에게 있어 “문명”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천황의 선전포고는 1894년 8월 1일에 있었다. 그러나 對靑 개전을

목적으로 한 일본함대는 이미 7월 23일에 사세보(佐世保)항을 출발하였고, 7월 25일에는 풍도 앞 바다에서 청일해전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 일본이 주장하는 문명=만국공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일본의 국제법 위반의 속임수 공격은 이후 미국에 대한 진주만공격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³

당시 일본 천황의 선전포고⁴를 살펴보면, “조선으로 하여금 화란을 영원히 면하게 하고 치안을 장래에 보존하여 동양전국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여”, “제국의 권리 이익을 손상하여 동양의 평화를 오랫동안 담보하려고 하는 것에 있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동양의 평화 유지를 위해 이웃나라인 조선의 치안을 염려하여 어쩔 없이 일본의 손상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청국과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본은 청일전쟁 이전부터 조선에 비합법적으로 군사적인 기반시설인 군용전선병참선로 등을 설치하였고, 청일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시설은 그대로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설 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비대를 계속 주둔시켰다. 이는, 이후 일본의 조선병합의 군사적인 기본 시설이 되었고, 1910년 결국 일본은 조선을 병탄하여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하에 두었다. 대만 또한 청일전쟁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었다. 즉,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일본 측 선전포고의 내용이 청일전쟁을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킨 허구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허구적인 동양 평화에 대한 표현은 태평양전쟁 당시의 일본 측 선전포고에 “아시아의 독립”, “아시아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방위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1894년 당시 일본군의 사료 가운데, 「비밀 일청조사건 제정보첩 1」(1894.6 1894.10. 육군성), 「비밀 일청조사건 제정보첩」(1894.11 1894.12. 육군성), 「비밀 일청조사건 제5사단 혼성여단 보고첩」(1894년. 육군성), 「청조사건 제상보첩 1, 비밀 육군성」(1894.6.10.), 「청조사건 제상보첩 2, 비밀 육군성」(1894.11·12)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조·청·일 사건 즉 조선·청국·일본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을 배제함으로써 전쟁에서 발생할 국제법 위반의 위험을 없애고자 한 것

3 청일전쟁의 개전시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설이 유력하다. 첫째, 有賀長雄의 1894년 7월 23일에 일본함대가 사세보(佐世保)항을 출발한 날을 개전일로 보는 설과, 高橋作衛의 1894년 7월 25일 풍도 앞바다에서 실시 해전이 발생한 날을 보는 설이 있다.

4 당시 일본의 표현에 의하면 [宣戰の詔勅]이다. 선전포고에 관하여는 법률적으로 檜山の 저서를 참고(檜山幸夫, 『日清戦争』, 講談社, 1997)

이다. 조선의 일반 민중을 전쟁에 포함시킬 때 발생할 선진 식민제국인 서구열강의 질책으로부터 빠져나가고자 한 것이다.

8월1일 선포된 일본 측 선전포고 초고 6본 가운데 4본 정도는 조선을 포함시킨 조청일 전쟁으로 작성되어 있다.⁵ 즉 비무장 상태의 조선을 전쟁에 포함시킬 경우 그야말로 국제법 즉 문명에 크게 어긋나게 되고, 선진 제국 열강으로부터 문명 차원의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므로, 그러한 상황을 면하기 위한 조치로써 청일전쟁 내지 청국만을 대상으로 삼은 선전포고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가능한 문명=국제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 일본정부의 치밀한 책략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보다 앞서 일본군은 1893년 12월 말부터 1894년 3월 말까지 군함 츠쿠바(筑波)와 오시마(大島)함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정보 첩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보고서 가운데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서울 인구 20만 명을 아사 혹은 항복시킬 목적으로 한 서울 부근의 식량 창고를 조사했다는 내용 등 수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일본정부는 당초부터 조선을 전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초기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의 비합법적 “문명”

여기에서 초기 제2차 동학농민전쟁이라 함은 조선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농민군 탄압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10월 18일 이전 시기를 말한다. 조선정부의 농민군 ‘진정’ 요청 과정 또한 비합법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 병참부 설치 과정

청일개전을 전후해서 일본이 조선의 병참화를 위해 파견한 부대로서는 군용전선 가설대, 병참부, 도로 수선대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러한 부대들의 조선 파견과정을 통해 비문명적 요소를 찾아보기로 한다.

조선 병참화를 위해 가장 먼저 파견된 부대는 군용전선 가설대였다. 오토리(大鳥) 공사

5 檜山幸夫, 『日清戰爭』, 講談社, 1997.

가 6월23일에 대본영에 대해 서울—부산 간 전선수리용의 전선과 공구를 요청하였는데,⁶ 대본영은 26일 조선정부로부터 가설권을 영구 획득하여 서울—부산 간의 군용전선 가설에 임할 것을 명하였다.⁷ 그 이유는 개전 후에는 당시 서울에서 청국을 우회해서 상해를 경유하여 일본에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서울—부산간에 군용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송수신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⁸ 이후 제 1·2전선 가설대가 7월 3일과 4일에 각각 부산과 인천에 도착하였다.⁹

그러나 조선정부는 전선가설은 조선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 하여 일본군의 군용전선가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일본군은 좀처럼 훈령대로 진행시킬 수 없었다.¹⁰ 그로 인해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이하 무츠)의 명령에 따라 혼성여단장 오시마(大島義昌, 이하 오시마)는 7월 18일에 조선정부에 대해 군용전선가설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다음 날 전선 가설대에게 전선가설 착수훈령을 내렸다. 또한 혼성여단장 오시마는 조선관민의 방해를 예상하여 그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으로 처리해 가겠다고 오토리 공사에게 보고하였다.¹¹ 이처럼 조선정부의 승낙 없이 강제적·불법적으로 서울—부산 간 군용전선 가설이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서울—부산 간 병참부 설치 과정에 있어 그 임무 변화의 비문명적 요소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기로 한다.

청일개전 직후, 조선의 서해안이 청군의 파견루트였던 관계로 인천항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일본은 군대를 부산에 상륙시켜 육로를 통하여 서울에 진군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부산—서울간의 도로는 험하였고 서울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을 요했던 까닭에 파견군에 대한 양식·탄약 공급 등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병참선로의 설치는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7월28일에 3개의 병참부를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부산 간에 20군데의 병참부가 설치되었다.¹² 8월에 들어서면서 조선민중에 의한 군용전선 절단사건이 빈번하

6 외교사료관소장 『日清韓交涉事件の際に於ける軍用電線架設關係雜件』 6월27일조.

7 방위연구소도서관소장 『日清朝事件第五師団混成旅団報告綴』 6월27일조.

8 『진중일지』 제1군 병참감부 7월4일조.

9 전개, 『日清韓交涉事件の際に於ける軍用電線架設關係雜件』 6월27일조.

10 「京城釜山間電信船補修架設に關する報告」, 『在韓日本公使館記錄4』 國史編纂委員會, 1989, p.571.(이하, 『주한일본 사관 기록』으로 표기).

11 「日清衝突に關する訓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1987, p.472 ; 「京釜間軍用電線架設件」,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986, p.565.

12 『진중일지 제5사단 병참감독부』 7월29일조.

게 발생하자 9월1일 신설 병참사령관에게 병참부의 임무에 군용전선보호를 첨부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¹³ 전쟁이 중국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군용전선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자, 11월 7일에는 병참감부가 대동강 입구의 어은동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병참총감의 명령에 따라 병참부의 임무는 군용전선에 피해를 주는 조선민중 특히 농민군 봉기를 탄압하는 일일까지 확대되었다.¹⁴

병참부와 함께 파견된 서울—부산 간 도로수선대(공병 제6대대 제1중대)는 8월 2일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병참감의 명령에 의해 당초부터 도로수선 뿐만 아니라 군용전선의 감시보호 임무를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수선을 마친 후에는 담당지역의 군용전선 감시보호에 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황해 해전에서 승리한 이후 조선 서해안을 제패하게 되자 서울—부산 간 육로 행군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서울—부산 간의 도로수선을 거의 마친 9월말 이후 도로수선대는 본래의 도로수선대였던 공병부대만을 남기고 점차 소속사단 내지는 부대로 복귀하였다.¹⁵

이상에서, 청일전쟁 확대와 함께 군용전선 가설대·병참부·도로수선대가 본래의 임무에서 점차 군용전선 보호와 항일 조선민중과 농민군 탄압으로 그 임무가 확대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¹⁶ 이것은 청일전쟁 당시 군용전선의 중요성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조선정부의 승인 없이 착수했던 까닭에 조선민중의 저항은 완고하였으며, 조선민중에 의한 군용전선 절단 등의 저항운동은 날로 격심해졌다.

8월 29일, 병참총감 가와카미 소로크(川上操六. 이하 가와카미)는 병참관할구내의 경비에 주력하라는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전선보호를 위해 제10연대 제1대대를 부산—서울 간 병참수비대로 파견하였다. 제10연대 제1대대는 다음 날 부산에 도착했으며, 이후 서울—부산 간 병참선로를 따라 전라·경상 양도의 남부 연안지역의 농민군 탄압의 선두에 섰다.¹⁷

13 『진중일지 종로병참감독부』 9월1일조.

14 『진중일지 제3호 남부병참감부』 11월7일조.

15 『진중일지 제5사단 병참감독부』 8월1일·2일조 등.

16 일본군의 농민군 토벌 목적이 군용전선보호에 있었음은 井上勝生에 의해서 밝혀졌다.(『甲午農民 戰爭(東學農民戰爭)と日本の彈壓』, p.245-255).

17 『진중일지』 제5사단 병참감독부, 8월 31일조.

2) 초기 농민군 탄압

일본군의 군용전선 가설대를 비롯한 병참부·도로수선대가 파견된 경상도에서는 조선 민중의 항일투쟁은 일찍부터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에는 개인적이고 소극적이면서 비조직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즉, 일본군이 조선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부산-서울 간 군용전선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8월 중순 이후, 조선민중의 비조직적이고 개인적인 형태의 군용전선 절단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군에게 있어 조선에 설치한 군용전선은 청일전쟁 수행에 가장 중요한 정보수단이었다. 따라서 일본군은 이후 확대되어 갈 청일전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에 의한 비조직적인 군용전선 절단일지라도 철저히 대응하였다¹⁸.

8월 28일 함창현에서는 농민군이 일본군을 위해 조선인을 무임금으로 복역시키는 일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하면서 관리를 묶기도 하였고, 사람들에게는 일본군을 위하여 용역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태봉의 병참사령관은 일본군의 위세를 보여 병참로의 안녕을 도모할 수밖에 없음을 부산병참감에 보고하고, 다음 날 일부 도로수선대를 인솔하여 함창현에 출동시켰으나 농민군은 이미 도망친 후였다.¹⁹ 이것이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사료에 나타난, 일본군 최초의 농민군 탄압 목적의 출동이다.

30일에는 문경의 병참사령관도 금후 간접 직접을 논하지 않고 군대에 방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곧바로 치기로 결심했다고 부산 병참감에게 보고하였다. 9월 1일에는 약 300여 명의 조선민중에 의한 하담병참부 습격이 있었으며, 4일에는 대구 부근에서 발생한 조선인과 일본인 인부의 다툼에서 일본헌병이 조선인 인부 1명을 쏘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군용전선 절단은 이전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산 병참감은 9월2일에 대구병참부에게 이후 또 다시 절단하는 자가 있으면, 책임 있는 마을은 불태우고, 그 주민을 격살할 정도의 위세를 보여라는 엄한 명령을 내렸다.²⁰ 조선민중의 전

18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이 철저히 농민군을 탄압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조선민 중의 군용전선 절단문제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井上勝生, 「甲午農民戰爭(東學農民戰爭)と日本彈壓」, 『近代天皇制の形成 確立に關する基礎的研究』, 北海道大學文學部, 1999; 강효숙,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歷史學研究』, No.762, 靑木書店, 2002.5; 「청일전쟁에 있어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인문학연구 제6집』,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5.6 참고.

19 『진중일지 제5사단 중로병참감본부』 8월28일·29일조.

20 『진중일지 제5사단 병참감독부』 8월30일조.

신주 파괴 내지 군용전선의 절단행위는 날로 증가하여, 9월 30일까지 적어도 15건에 달하였다.²¹ 부산영사는 24일 무츠와 오토리에게 조선정부로 하여금 병참부와 협의해서 군용전선을 보호하고 농민군 봉기를 예방하도록 제안했다.²²

한편, 9월 2일, 경상도 안동에서 3천여 명의 의병이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켰다.²³ 부산수비대는 이를 좋은 기회로 삼아 곧바로 같은 날 1소대를 안동에 파견하였다. 안동봉기는 어디까지나 의병운동으로 농민군 봉기는 아니었다. 일본군은 안동의 의병봉기를 기회로 농민군 탄압을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본격화하려 한 것이다. 9월 24일 병참수비대 정찰대가 용궁 부근에서 농민군에게 습격당하여 부관 1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곧 바로 대구 부근에 있던 도로수선대가 파견되었고, 그 다음 날에는 부산 수비대는 군용전선 보호와 농민군 탄압을 목적으로 2개 소대를 파견하였다.²⁴

24일에는 다부(현, 칠곡군)병참부 사령관에게 “수상한 자는 때려죽이고, 지방관으로부터 지방관에게 고시하게 하라. 실수해도 괜찮다. 즉, 반죽음을 시켜라”라는 등의 명령이 하달되었다.²⁵ 낙동병참부 사령관은 9월 28일, 경상도 안동부근의 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된 일부 부산수비대에게, “동학당을 모두 없애는 것은 본래 어려우므로, 도중에 집합 혹은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구축하고… 혹은 살육하고 혹은 포박하여 일본 제국의 위세를 보이고, 그들 스스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멈춰라”라는 명령을 내렸다.²⁶ 10월 4일, 부산수비대장은 낙동병참부 사령관에게, “전선에 방해를 가하는 자를 목격할 때는 재빨리 그를 포획하거나 혹은 총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²⁷

조선정부가 일본군에게 농민군탄압을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군용전선이 절단된 부근 마을은 그 책임을 물어 “불태우”고, 군용전선을 절단하는 조선인을 “반죽음, 격살, 타살, 포획, 살육, 총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던 것이다.

21 진계 電線切斷者取締方の件 『日清韓交渉事件の際に於ける軍用電線架設關係雜件』 7월23일조.

22 진계 『日清韓交渉事件の際に於ける軍用電線架設關係雜件』 9월24일조 ; 방위연구소도서관소장 『戰史編纂準備書類東學堂暴民』 9월30일조.

23 박종근, 『日清戰爭と朝鮮』, pp.179-185 ;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pp.105-115 ; 같은 책, 『異端の民衆反亂』, pp.335-340.

24 『천대전문고77 제5사단 진중일지 권지14』 9월 26일조.

25 같은 책, 『진중일지 제5사단 중로병참부』, 1894.9.24.

26 같은 책, 『천대전사료 77』, 1068쪽.

27 같은 책, 『천대전사료 77』, 10월 4일자

〈표1〉 부산수비대의 안동지역 농민군 탄압(1894.9.22. 10.18)

일 자	지 명	일 본 군	농민군 수/ 사상자
9/22		藤田부대, 부산출발(부산수비대: 총 77명)	
9/25	웅궁 문경 간	橋田부대(50명) 鈴木부대(부산수비대:134명):부산출발	약 600명/ 2명 사망, 민가 11채에 방화
9/27	웅궁(2회)	橋田부대	불명/ 격퇴, 수십 명 부상, 헌정점령
9/29	예전부근 대구 착	橋田부대 鈴木부대	불명/ 4명 사망
10/2	낙동 착	鈴木부대	
10/5	충청도 보은	鈴木부대(2분대 인솔)	중국인 4명을 사로잡아 낙동병참부 이관
10/10	낙동→문경	橋田부대	
10/17	부산에 돌아감	鈴木부대	

〈표2〉 서울—부산 간 병참선로 연변의 농민군 탄압(1894.9.21.~10.18)

일자	지 명	일본군 / 사상자	농민군 / 사상자
9/21	경상도 기저	대구병참부수비병 18명 (통역 2명, 인부 2명 포함)	조선인 10여명/ 3명, 촌리 1명 체포
9/23	충청도 덕산 충청도 보은	안보, 충주병참부수비병 8명+불명 충주병참부수비병 14명	불명/ 4명 포박하여 대구병참부헌병에게 인 도 약 1,000명/ 불명
9/29	대구부근 문경부근 석문	대구병참부수비병 11명 공병대(後藤소위인솔 25명+인부12명)	불명/ 불명 약 600명/ 2명 사망
10/12	경상도 밀양 충청도 단월	삼랑진병참부수비병 4명 가흥병참부수비병	약 1,500명/ 8명 사망, 부상 10명 불명/ 4명 체포
10/15	충청도 청풍	가흥병참부수비병 23명	불명/ 31명 사망, 4명 체포
10/16	충청도 요사촌 경기도 이천 경기도 곤지암	가흥병참부수비병 11명 가흥병참부수비병 11명 파견	불명/ 불명 불명/ 불명 非농민군/ 14명 체포

3) 조선정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농민군 '진정'요청 과정

여기에서는 조선정부가 일본 측에 농민군 탄압을 정식으로 요청한 과정과 농민군 토벌대가 어떻게 파견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측은 9월 28일 농민군탄압을 위한 일본군 출병을 대원군이 거부한 이후 특별한 변화 없이 10월 7일을 맞이했다. 이 날 경기도 안성·죽산에서는 농민군이 봉기하여 조선정부는 그 탄압을 계획하고 있었다. 오토리 공사는 곧 바로 무츠에게, 농민군의 서울진격 보고와 함께 서울 수비대로서 2대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병참감의 요청보다 15일이나 빠른 요청이었다. 오토리로서는 농민군의 서울 진격 저지가 최우선 과제였을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곧 바로 외교문제로 발전하여 러시아는 물론 영국 등의 간섭을 피하기 어렵게 되며, 조선에서의 일본군의 주도권 장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토리는 12일에 이르러서는 조선정부가 동학도 토벌을 위한 일본군 급파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무츠에게 전보를 쳤다.²⁸ 히로시마에서 이 전보를 받은 자는 외무서기관 나베시마(鍋島桂次郎)로, 그는 즉시 무츠에게 전보를 쳤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다마 겐지로(児玉源次郎) 육군차관 등이 일찍부터 농민군 토벌을 목적으로 한 일본군 파견에 대해 논의했으나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오토리 공사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가 들어 온 것이다. 가와카미는 재빨리 14일에 인천병참감 이토(伊藤祐義, 이하 이토)에게, 오토리 공사의 요구가 있으면 필요한 군대를 파견할 것을 명령했고, 다음 날 용산 수비대로부터 1소대가 경기도 안성·죽산에 파견되기에 이르렀다.²⁹

한편, 10월 11일, 부산 수비대장은 전라도의 농민군이 22·23일에 김해로 진격하려 하고 있다고 가와카미에게 보고하여, 같은 날 병참총감 가와카미로부터 전라도 하동부에 있는 동학당 격파의 명령을 받았다.³⁰ 조선정부의 정식 일본군 파견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 12일 이전의 일이다.

여기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정말로 10월 12일에 조선정부의 정식 요청이 있었던가의 문제이다. 실제 오토리 공사가 보고한 조선정부의 정식요청이라는 것은 농민군의 위세를 두려워하고 있던 조선 개화파 정부의 구두에 의한 요청이었으며, 문서에 의한 조선정부의 정식 요청은 아니었다. 10월 16일의 오토리 공사의 조선정부에 대한 조희가 그것을 말하여

28 앞의 책, 『韓國東學黨蜂起一件』 10월7·12일자.

29 『진중일지 제3호 남부병참감부』 10월14·15일조.

30 앞의 책, 10월11일조.

주고 있다.³¹

즉 이전부터 일본 측은 조선정부에 대해 몇 번이고 조선군이 농민군 誅討에 나설 때는 일본군을 원병으로서 보내줄 것을 제안하고 있었으나, 조선정부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여, 일본 측이 또 다시 조회를 통하여 조선정부를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10월 12일에 조선정부의 정식 토벌요청이 있었다는 오토리 공사의 보고와는 모순되는 내용이 확인된다. 결국, 조선정부는 10월 18일 조복을 통하여 일본군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일본군의 원병문제는, 조선에서 일본군의 안정적인 기반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 일본 측과 농민군의 위세를 두려워하고 있던 일부 개화파와의 협의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본래 조선정부의 요청에 일본이 응하는 형태여야 할 것이 정반대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이다.³² 시기적으로는 7월 23일에 이미 일본군이 조선왕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후였고, 더군다나 조선군의 무기를 압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3. 제2차 동학농민전쟁의 실상

1) 병참총감의 '모두 죽이라'는 살육 명령

조선정부의 공식적인 농민군탄압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불과 4일 후인 10월 22일, 인천병참감 이토는 가와카미에게 '병참사무는 동학당 때문에 항시 고민하고 있고, 아군 작전상 지대한 관계가 있는 군용전선 또한 안전을 지키기 어려우며... 이번에 수비병 2중대를 더 증가시켜 오직 동학당 격양에 임하게 하여 이르는 곳의 적을 섬멸케 하면 일거에 장래의 화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인해 조선 남부 국민의 감정을 해하게 되겠지만, 아군 전반의 이익을 도모할 때 그 경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³³

이토는 일본군에게 가장 중요한 군용전선에 위해를 가하는 농민군을 섬멸함으로써 장래의 화근을 제거하고, 그로 인해 조선민중의 감정을 해하게 된다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31 전계 『韓國東學黨蜂起一件』 10월 16일자.

32 같은 책, 10월 18일자; 앞의 책, 『東學黨鎮壓の爲め援兵派遣決定』, 『주한일본공사관기록 5』, p.322.

33 『진중일지 제3호 남부병참감부』 10월22일조.

일이라 하면서 수비병 2중대의 증병을 요구했던 것이다. 가와카미는 이토의 요구를 그 다음 날 곧바로 승인했으며, 24일에는 이토 직속의 서울수비대 일부를 파견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인천병참감이 요구한 것은 군용전선과 병참부 보호목적인 병참부 수비병의 증병이었다. 따라서 그는 같은 날 재차 군용전선 보호를 목적으로 한 동학당 박멸 병력을 별도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7일에는 4번째의 농민군 토벌대 파견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³⁴

10월 27일 가와카미는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농민군은 향후 모두 살육하라는 살육 명령을 내렸다.³⁵ 이후, 농민군 토벌만을 목적으로 한 후비독립 제19대대의 조선 파견 소식이 전해졌으며,³⁶ 모두 살육하라는 전쟁 최고 책임자의 명령은 현지의 지휘관이 그대로 충실히 실행하여 철저한 농민군 탄압이 이루어졌다. 모두 죽이라는 살육 명령은 중일전쟁 당시의 삼광작전 중의 하나였던 '殺光'³⁷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살육명령의 수행은 일본군의 최초의 해외민중학살(Genocide)로 나타났다. 즉 1894년 11월에 일본군 제2군이 여순 반도 점령 당시 행했던 민간인 학살에 앞선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학계에서는 여전히 1984년 11월 21일에 있었던 중국 여순구 학살을 일본군에 의한 최초의 해외민중학살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³⁸

2) 일본군의 전력

본격적인 농민군 '토벌'만을 목적으로 한 제19대대가 조선에 파견된 이후의 일본군에 의한 농민군 탄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9대대는 조선군을 동반하여 3로로 진군해 가면서 농민군을 조선의 서남단 방면으로

34 같은 책, 10월23·24·27일조.

35 병참총감 川上操六의 모두 죽이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이미 박종근씨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박종근, 전제 『日清戰爭と朝鮮』 pp.193-194.

36 『진중일지 제3호 남부병참감부』, 10월28일.

37 일본군의 용어로는 '진멸소탕작전', '소탕작전'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측에서는 이것을 '삼광작전' 혹은 '삼광정책'이라 불렀으며 일본에서도 이 용어가 정착해 있다. '三光'이란 중국어로 '燒光', '殺光', '搶光'(모두 태우고, 모두 죽이고, 모두 빼앗다)를 의미한다. 삼광작전은 중국공산당과 팔로군이 지배하고 활동하던 지역과 사람들에 대하여 일본군이 철저하게 살육, 약탈, 방화하는 소탕작전을 전개한 것을 의미한다. 일본군의 삼과작전은 항일근거지, 항일게릴라 지구의 민중에 대한 진멸작전, 즉 제노사이드작전(절멸작전)이었다.(笠原十九司, 『南京事と三光作戰』, 大月書店, 1999. pp.77-78)

38 田中利幸 외, 『戰爭犯罪の構造』, 大月書店, 2007.2.

몰아붙여졌으며, 제18대대의 1중대가 그에 가담하였다. 그 배후지인 충청·경기도에는 용산·인천수비대로부터 3중대가 파견되었다. 서울—부산 간의 각 병참부 수비병은 병참선로 주변을 담당하여 농민군이 병참선로를 넘어 러시아와의 접경지대로 도주하는 것을 막았다. 또한, 부산수비대에서 파견된 부대는 전라·경상도 남단지역의 농민군을 탄압했으며, 筑波·操江号함대 육전대가 도서지역의 농민군 탄압에 가담하였다(〈그림-1〉 참조). 제19대대가 남하한 지역에는 또 다시 서울, 용산, 인천 수비대가 파견되어 제19대대의 배후에서 잔여 혹은 도주하는 농민군을 탄압하였다.

당시 서울이남 지역의 농민군 탄압에 투입된 일본군 수를 제19대대를 기본으로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9대대는 3중대로 편성되었고, 1893년 12월 23일의 「후비보병연대편제표」에 “후비보병 독립대대의 편제는 본표의 대대와 같다”라는 표기에 의하면, 본부는 56명, 1중대는 22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의 서울수비대(제18대대) 1중대, 용산·인천수비대의 1중대, 부산수비대 1대대(병참부 수비병과 전라·경상도 남부에 파견된 부대를 포함)와 서울 부산 간 병참부의 보충병, 육전대(筑波함대:승무원 251명, 操江号:승무원 82명)등이 농민군토벌에 참가했다.³⁹ 제19대대를 포함하여 약 12중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2,708명에 달한다. 그리고 일본군의 초기 비합법적 농민군탄압까지 포함하면 서울이남 지역의 농민군 탄압에 참가한 일본군은 15중대로 산출되며 인수는 3,371명에 달한다.⁴⁰

일본군의 충실한 살육명령 수행에 희생된 농민군의 수는 혹자는 사망자 5만 명, 혹자는 사상자 3~40만 명이라는 주장 등이 있다.

한편, 일본군이 농민군 탄압 당시 사용한 총은 주로 스나이더(Snider-Enfield)로, 영국과 영국령 인도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총길이는 1,250mm, 무게 약 3kg, 발사속도는 6초에 1발로 최대 사정거리는 1,150m, 유효사정 거리는 900m였다.



〈대한제국의 화승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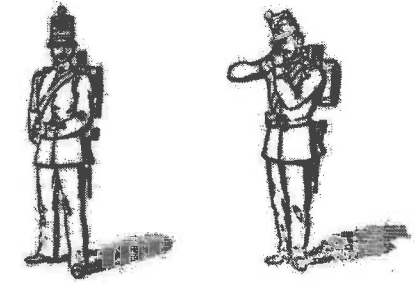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영국제 스나이더 총〉

39 방위연구소, 『남부병참감부일지』, 1894년 11월 16일.

40 앞의 책,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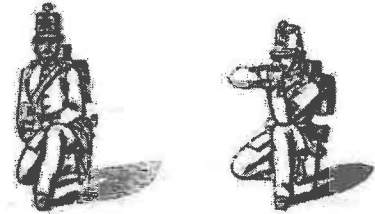


〈스나이더 총알과 단면〉



AS A FRONT MARK
STANDING, READY.

AS A REAR MARK STANDING,
PRESENT (1st Motion).



AS A FRONT MARK KNEELING,
READY.

AS A REAR MARK KNEELING,
PRESENT (1st Motion).

〈스나이더총 저격 자세〉

이의 일본군 서울수비대의 경우 일부 무라다총(村田銃)을 사용하였는데 무라다총은 최초의 일본산 소총으로 메이지 13년식, 16년식, 18년식, 22년식, 30년식 등이 있다. 제2차 동학 농민전쟁 당시에 사용된 것은 13(1880)년식과 18(1885)년식으로, 총길이는 각각 1,294mm / 1,278mm였고, 무게는 4,620g / 4,098g, 사정거리는 둘 다 1,800m였다.

한편 당시 농민군의 최고의 무기는 화승총이나 수렵총이었고, 전라북도 고산에는 화약을 만드는 곳도 있었지만 농기구나 죽창이 그 농민군 대다수의 중심 무기였다. 최고의 무기인 화승총의 경우 유효 사정 거리 또한 50m 정도에 불과하였다. 전투에서 화승총을 유효하게 사용하려면 일본군과 50m 거리에서 접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화승총에 불을 붙이고자 하는 순간에 이미 일본군의 스나이더 총알은 900m 건너편에서 농민군을 향해 날아왔다. 무라다총의 경우는 1,800m 거리에서 농민군을 향해 총을 쏠 수 있으니 농민군은 무기 면에서 일본군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일본군은 정규 군인이었고 조직적으로 근대식 훈련과 무기 사용법에 익숙해 있었던 것에 비해, 농민군은 거의 조직된 훈련은 받을 상황도 되지 않았던 일반 민중으로 구성된 단체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특히 농민군 토벌대로 파견된 제19대대는 후비병이었는데, 후비병이란 상비역 7년(만20

세부터의 3년간의 상비역과 예비역 4년간)을 마친 후, 5년간의 병역에 복무하는 병사를 말한다.⁴¹ 이같은 후비병으로 구성된 제19대대는 이미 일본의 세이난 센소(西南戰爭) 등에 참가한 경력을 지니고 있었고, 대대장인 미나미(南小西郎)는 에도(江戸)시대의 잔여 무사계급 토벌을 오랫동안 지휘한 경험을 가진 자였다.

수많은 일본군 사료에서, 일본군이 총을 한 번 쏘면 농민군은 놀라 여기저기로 흩어져 도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일본군과 농민군과의 전력을 비교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교되지 않는 일본군의 우월한 전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제2차 동학농민전쟁은 일본군 사료에 비추어 볼 때 거의 일본군의 일방적인 탄압이었고 학살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농민군은 거의 전국에 걸쳐 1895년 청일화약 이후에도 끈질기게 투쟁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4. 일본군의 생포 농민군 처리

부산수비대에서 대구부근에 파견된 미야케(三宅. 이하 미야케)부대⁴²의 보고에 의하면, 9월 21일, 대구를 출발한 미야케 부대는 내창촌에 이르러 이지동, 구해평, 상오곶을 생포하여 현장에서 심문하였고, 9월 30일, 대구병참부로 끌고 가 곧 바로 헌병에게 인도하였다.⁴³ 10월 14일, 충청도 충주병참지부에서 단월⁴⁴에 파견한 일본군은 농민군 지도자 성두한을 비롯하여 농민군 34여명을 죽이고 4명을 생포하였고, 같은 날, 충주병참지부에서 생포한 농민군 7명이 가흥병참부에 호송되었다. 10월 16일에는 곤지암 부근에서 농민군 2명을 생포하여 곤지암병참부에서 심문하였다⁴⁵. 10월 17일, 즉, 조선정부의 공식적인 농민군“진정”요청이 있었던 바로 전날, 인천병참감은 가흥병참사령관에게, 충청도 안성과 죽산에 조선정부가 출병시켰는데, 생포한 자는 조선군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⁴⁶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1894년 10월 18일에 있었던 조선정부의 공식적인 농민군“진정”

41 앞의 책, 「後備歩兵連隊編成表」, 『千代田文庫 531 전시편성』; 大江志乃夫, 『徵兵制』, 岩波書店(新書), 1993, pp.83-84.
 42 사료에 등장하는 일본인 이름은 완전한 이름과 성씨만 나와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모두 성씨만을 인용하기로 한다.
 43 방위연구소, 『천대전사료 77』, p.1064.
 44 단월은 일본 측 사료에 '단케츠'로 나오는 지명을 한자로 변용하여 표기한 것임.
 45 방위연구소, 『진중일지 제3호 남부병참감부』, pp.22-23.
 46 같은 책, 『진중일지 제3호 남부병참감부』, p.27.

요청 이전에 일본군에 의해 행해진 생포농민군 처리 관계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일본군의 생포농민군 처리(1894. 10. 18 이전)

연번	일 자	지 명	이 유	처 리 내 용 등
1	9/9	태봉		접장 박모 생포/ 태봉병참부 헌병조장이 심문→부산수비대
2	9/21	대구부근의 내창촌 등	붕기 지도	이지동, 상오검, 구해평, 이응칠/ 대구병참부 헌병에 인도
3	9/27	낙동	전신주 부러뜨리기, 강도 범인	대구 사람, 낙동병참부 송원호 총살, 낙동병참부
4	9/28	낙동 부근	전선 절단	1명 참수/ 낙동병참부
5	9/30	인동	농민군 증거 현저	1명 생포/ 대구병참부→인동부→대구병참부
6	10/16	충주	불명	7명 생포/ 충주병참부→가흥병참부
7	10/17	곤지암	심문 중	2명 생포/ 곤지암병참부에 인도

10월 18일, 조선정부의 일부 개화파로부터 농민군 탄압을 위한 일본군 파견을 요청한 이후, 일본군에 의한 생포 농민군 처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 조선관리나 조선군에게 인도하여 처리, ② 일본군이 심문한 후에 조선 관리나 조선군으로 하여금 처리, ③ 일본군이 심문한 후에 일본군에 의한 처리, ④ 농민군 지도자는 서울의 일본공사관에 호송하여 처리하는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외에, 농민군 토벌대인 제19대대가 그 임무를 거의 마친 1895년 2월 5일 이후,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이하 미나미)가 전라도 나주에 임시 재판소를 설치하고 각 지역에서 호송되어 온 농민군을 재판한 또 하나의 유형이 있다. 따라서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포농민군 처리 유형」

- ① 일본군에 의한 심문과 처리(병참사령부에 호송한 후의 처리를 포함)
- ② 일본군이 심문한 후, 조선 관리 혹은 조선군의 요청을 받아 일본군이 처리
- ③ 일본군이 심문한 후, 조선 관리 혹은 조선군으로 하여금 처리
- ④ 전라도 나주의 임시재판소에서의 처리
- ⑤ 서울 일본공사관에 호송하여 우치다(内田) 영사의 회심에 의한 처리

제4차 동북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평화순례와 역사포럼

이외에 조선군이 생포하여 처리한 유형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본군에 한정하고, 조선 정부의 정식요청 이후, 일본군에 의한 생포농민군 처리상황을 지역별·부대별로 나누어 표로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인천·용산수비대의 생포농민군 처리

유형	일 자	지 명	생포농민군의 수/ 처리 형태	처 리 자
③	10. 25	경상도 성주	18명/ 1명-사형, 17명-방면	대구병참부 수비병
②	10. 28	경상도 삼주	2명/ 참수	불 명
②	11. 11	충주부근	1명/ 총살	인천수비대(飯森부대)
①	11. 12	괴산오류동	14명 중, 6명 총부리로 타살	인천수비대(飯森부대)
①	11. 17	보은	14명 중, 10명을 총살	인천수비대(飯森부대)
②	12. 5	충청도 해미지역	수백 명 생포하여 50명을 죽임	인천수비대(山村부대)
②	12. 5	충청도 태안지역	수백 명 생포하여 50명을 타살	용산수비대(齊藤부대)
②	12. 11	충청도 서산지역	84명을 생포하여 34명을 타살	인천수비대(山村부대)
①	1895. 2. 10	경기도 이천	1명(고재학) 참수	이천병참부 수비병
⑤	2. 28	충청도 불명	1명(문센코), 공사관에 호송	

〈표-5〉 鈴木부대(부산수비대)에 의한 경상도 남단지역의 생포농민군 처리

유형	일 자	지 명	농민군의 수/ 처리 형태	처리자
⑤	11. 2	진주	13명/ 심문 중	부산수비대
③	11. 7	고성	1명/ 살해	조선관리
③	11. 13	진주 舊해창	21명 - 수령 임석준 호수, 김권순 총살, 8명 투옥, 12명 방면	조선관리
③	11. 13	곤양 금병산	21명- 수령 최석원 총살, 20명은 엄형 후에 석방	조선관리
③	11. 13	진주	58명 - 수령 김상규 호수, 동몽 김권순 총살, 27명 투옥, 29명 방면	조선관리
③	11. 21	하동 주교장	3명: 총살	조선관리
③		하동부근 전투	11명: 총살 17명: 엄형 후에 석방	조선관리
③	11. 28	진주부근	1명 살해	조선관리

〈표-6〉 鈴木·藤坂부대(부산수비대)의 전라도 남단지역의 생포농민군 처리

일자	지 명	농민군의 수/ 처리	처 리 자
1.5	섬거역부근	접주 金以甲: 참수, 27명: 砲殺	藤坂+鈴木부대(부산수비대)

제4차 동북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평화순례와 역사포럼

1.6	섭거역부근 광양부	도집강정흥섭 생포:조선법에 의한 참수 영호대접주 금구인 김인배: 호수 영호수접주 순천인 유하덕: 호수 사곡접주 한군래, 한진유: 포살 옥용접주 서서윤형제: 포살 인덕접주 박치서형제, 성석하: 포살 광양,순천접주 김학식: 포살 봉강접주 박홍서: 포살 월포접주 김명숙: 포살 순천, 서면접주: 김가, 황재숙: 포살 우장도당 김차검: 포살 외 87명: 포살	藤坂+鈴木부대(부산수비대)
1.7	순천부	영호남집강 쌍암면 정로형: 포살 성찰 권병택: 포살 사면접주 김영구: 참수 별량면접주 김영우: 참수 영남호북도집강 쌍안회, 정로식, 이해명, 성찰권: 참수 혹은 포살 불명자 94명: 타살 수십 명: 투옥 계속 수색 중	藤坂+鈴木부대(부산수비대)
1.10	낙안읍부근	20명 중: 오원기 참수, 8명 포살, 20명: 조선 관리로 하여금 처형	藤坂+鈴木부대(부산수비대)
1.11	보성군	8명 중: 3명 감금, 5명 방면	불 명
1.13	보성군	부춘동 14명 생포	불 명
1.14	보성군	해창산 11명 생포	불 명
1.15	보성군	부근에서 51명 생포	불 명
1.16	보성군	협의자 22명 처형. 거두 7명 생포	불 명
1.17	불 명	거두 17명 생포	불 명
1.18	불 명	1명 생포, 10명 포살	불 명
1.30	불 명	1. 26에 생포한 8명을 처형, 5명은 취조 중	불 명

〈표-7〉 제19대대의 생포농민군 처리(장흥전투:1895. 1. 7 이후)

지 명	처형된 농민군의 수	지 명	처형된 농민군의 수
해남부근	250명	강 진	320명
장흥부근	300명	나 주	230명
함평, 무안, 영광, 광주, 능주, 담양, 순창, 운봉, 장성, 영광, 무장 등의 각지			30-50명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등 참고)

〈표-8〉 나주 임시재판소의 생포농민군 등 처리(1895. 2: 제19대대)

유형	이름	신분	처 리
④, ⑤	전봉준	농민군	일본공사관에 호송
④, ⑤	김개남	농민군	일본공사관에 호송
④	이소사	농민군(여)	방 면
④	최동자	농민군	방 면
④	불 명	강진병사	방 면
④, ⑤	권풍식	함 평	일본공사관에 호송
④, ⑤	유원규	보성군수	일본공사관에 호송
④, ⑤	유제관	여 산	일본공사관에 호송

〈표-9〉 황해도의 생포농민군 처리

유형	일 자	지 명	인 수	처리자
⑤	1894. 12. 10	해 주	농민군 거두 2명	
심문 중	1895. 1. 30	은 울	농민군 수령 이하	어은동 병참부
심문 중	1895. 2. 7	봉산부근	접주 1명, 농민군 6명 포박	봉산 병참부

이상은, 일본군의 「생포농민군 처리 유형」 가운데, 주로 ①②③④에 해당되는 것이다. 유형 가운데, ⑤ 서울 일본공사관에 호송하여 우치다 영사의 회심에 의한 처리는 ①, ②, ③, ④와는 구분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1895년 9월 20일, 우치다 영사가 외무차관 하라 타카시(原敬)에게 보낸, 「기밀 30호」와 「동학당 일에 대한 회심 전말 구보(東學黨事=付會審ノ顛末具報)」⁴⁷를 살펴보면, 우치다 영사는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공사의 훈령에 따라 1894년 11월 2일부터 1895년 4월 25일까지 매회 법정⁴⁸에 출석하여 조선의 법무아문 관리와 함께 회심을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법정에 출석한 수는 31회이고, 취조한 피고인의 수는 61명이었다. 회심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의 일본공사관에 호송된 생포 농민군은 최우선적으로 우치다 영사가 사전조사를 한 후에 비로소 조선정부의 법무아문으로 보내졌고, 우치다 영사 스스로 2, 3명의 일본 관리를 동반하여 법무아문에 출장하여 조선정부의 관리와 입회하여 각 피고인의 심문을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47 같은 책,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p.507.

우치다 영사의 농민군 회심은 1895년 3월 27일부터 시작하여 동년 4월 25일(음력 1895년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로 한정된다. 1895년 5월 4일(음력 4월 10일)이후에는 우치다 영사의 회심 서명이 없다. 재판은 1895년 4월까지의 법무아문의 특별권설재판소에서 행해졌으나, 5월 4일 이후의 농민군 관계의 재판은 고등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 권설재판소는 1895년 1월 11일(음력 1894년 12월 16일)에 개설되었는데, 이전의 의금부를 개명한 것으로 지방재판 이외에 법무아문의 일체의 재판을 행하였다.⁴⁸ 또한, 앞서 확인한 우치다 영사의 최초의 회심일자인 1894년 11월 2일부터 우치다 영사가 최종적으로 회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895년 4월 25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면 175일이 산출된다.

한편, 당시 생포된 농민군 재판에 적용한 법률은 조선의 대전회통의 형전이었으며 근대적인 법률은 아니었다.⁴⁹ 다음으로, 4월 23일의 전봉준·손화중·최영창(최경선의 이명)의 판결 선고가 주목된다. 4월 25일은, 1895년 4월 19일에 반포된 「재판소 구성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재판소처무규정통칙」에 의하면, 모든 민·형사 사건은 적어도 2심의 재판과 소송이 가능하다.⁵⁰ 그런데, 시행 이틀 전인 4월 23일에 전봉준·손화중·최영창에 대한 사형 판결이 선언된 것이다. 세 사람은 근대적 법률이 규정한 최저한의 2심의 재판과 소송 한번 해 보지 못하고 처형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우치다 영사의 감독과 회심 아래 진행된 재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문명=국제법 적용조차도 피한 책략을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사형된 전봉준의 유골은 유가족이나 친족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따라서 전봉준의 묘는 현재 가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이후 안중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안중근을 찾아온 그 형제들에게 사형 집행 전달까지도 유해인수를 약속했던 일본 측은 끝내 안중근의 유해를 유족들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전봉준의 유해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그 매장 장소에 관해서는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위대한 운동가, 사상가의 사후 영향을 두려워한 일본 측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는 문명=국제법 문제 이전에 인륜을 거스르는 행태로, 일본정부는 관련 사료를 공개하여 유

48 송병기 외,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대한민국도서관, 1970, p.153.

49 대전회통은 조선시대 고종 2년(1865년) 9월부터 시행된, 조선 500년의 법령집이다(김기춘, 『조선시대형전 -경국대전 형전을 중심으로-』, 삼양사, 1990.

50 왕현중, 『갑오개혁연구 -개혁관리의 근대국가론과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p.358.

족들이 그 유해를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랄 뿐이다.

나가는글

동아시아에 있어 향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첫 걸음은 분명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일본 지식인과 일본정부는 문명국이 되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그것은 국제법상 완전한 법적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조약체결에 있어 대등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만국 국제법학회 설립 발기인이었던 제임스 로리마가 말한 문명국 > 야만국 > 미개국이라는 문명론에 큰 영향을 받은 일본은 국제법 클럽의 정회원이 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결국 청일개전 직전에 영일통상항해 조약을 체결하여 이전의 불평등 조약 내용을 상당부분 대등하게 수정하면서 영국으로부터 그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기에 이르렀다. 영국 외무대신 김벌리는 영일 간에 대등한 조약이 체결된 것은 일본이 국제적 지위 향상시키는데 있어 청국군 수만 명을 격파시킨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일본 육군성은 이 조약체결의 의미를 영국이 청국이 아닌 일본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이해하고 청일개전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하여지기도 하였다. 이후 일본정부는 탈아론을 끊임없이 주창하면서 해외침략의 근현대사를 이어가게 되었다.

일본군의 해외침략은 조선의 동학농민군 탄압에서부터 시작된다. 1893년 12월 조선에 비밀리에 파견된 해군 정보 첩보원의 보고에서 나타난 전쟁 발발 시 서울인민 20만을 아사 혹은 항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과 1894년, 1895년 당시 일본군의 기록에서 보이는 조청일 사건, 조청사건이라는 사료집 제목과 선전포고문 초고 4본에서 확인되는 조선을 포함시킨 내용 등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일본군에 의한 조선의 병참기지화와 초기에 비합법적으로 설치된 병참선로 및 군용전선 등 병참기지 시설물을 보호를 위한 비문명적 책동, 그리고 비합법적으로 설치되어 가는 일본군 군용전선과 병참부에 대해 방해 작업을 가하는 농민군에 대한 일본군의 비문명적 탄압은 결국 농민군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면서 조직적인 봉기를 하도록 자극하였다. 그리고 일본 측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정부에 대해 일본 측에 농민군 탄압을

요청하도록 계속 종용하였고, 조선정부는 그 강요를 이겨내지 못하고 10월 18일 농민군 탄압을 일본 측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0월 18일 이전부터 일본군은 이미 비합법적 즉 비문명적 농민군 탄압을 행하고 있었고 생포한 농민군을 처리하고 있었다.

1894년 11월 초 농민군 토벌대인 제19대대가 별도로 조선에 파견된 이후, 농민군탄압전략은, 농민군이 러시아 국경지역으로 근접했을 때 발생할 러시아의 조선문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농민군을 러시아국경과는 정반대 방향인 서남으로 몰아 부쳐가면서 철저하게 탄압하는 전략으로 수행되었는데, 일본군 사료를 보면 이는 10월 28일 병참총감 가와카미 소로크의 농민군을 모두 죽이라는 살육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행해진 일본군에 의한 농민군 탄압은 일본군대사 측면에서 볼 때 중국 여순구 민중학살보다 앞서는 일본군 최초의 해외민중학살이었고, 모두 죽이라는 살육 명령은 이후 중일전쟁 당시 삼광작전 중의 하나인 살광 작전의 원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식으로 조직되고 훈련받은 일본군 그리고 이미 일본에서 잔여 무사계급의 투쟁을 십 수 년에 걸쳐 탄압한 경력을 지닌 베테랑 일본군 부대와 일반 민중으로 조직된 동학농민군의 전투는, 당시의 일본군 사료에 의하면, 일본군이 스나이더총을 한번 빵-하고 터뜨리면 농민군은 혼비백산하여 사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정도의 전력적인 큰 차를 보이고 있었다.

생포된 농민군 대장 전봉준·손화중·최영창 등에 대한 재판 역시 매우 비문명적인 행태로 나타났다. 즉 근대적 재판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4월 23일 전근대적 형법인 조선의 대전회통의 형전에 비추어 사형을 선고하여 전봉준 등에 대한 사형 판결이 선언된 것이다. 세 사람은 근대적 법률이 규정한 최저한의 2심의 재판과 소송 한번 해 보지 못하고 처형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 후 전봉준의 유해는 그 가족이나 친족에게 인계되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이후 안중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태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륜을 거스르는 행태이다. 스스로가 문명과 국제법 신봉자가 되어 끊임없는 탈아론의 환상 속에서 스스로 문명과 국제법 뿐만 아니라 인륜을 거스르는 모습을 자행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일본의 모습이 보여진다.

향후 동아시아에 있어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탈아론의 환상에서 벗어나 入亞論을 수립하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 첫 걸음이 제2차 동학농민

전쟁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일본정부는 당시 자행된 농민군 학살 등에 대한 반성, 사죄와 더불어 특히 전봉준 등의 유해 매장지 관련 사료를 공개하고, 그 유골을 발굴하여 유족들이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탈아론에서 입아론으로의 자리 찾기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동아시아에서의 향후 평화는 이루어진다고 보며, 그 첫 걸음이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충남 내포지역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과 장위영의 진압

신 영 우 | 충북대

1. 머리말

내포(內浦)는 바닷물이 내륙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만(灣)의 포구를 의미하는 말이다. 충남 서북부 일대에는 이런 포구가 많이 발달해있다. 그래서 이 일대를 내포라고 부르는데 조선 조정에서 충청도 서해안에 관해 논의할 때 내포를 18개읍¹으로 말하고 있다. 『여지도서』에 기록한 내포는 서천, 먼천, 서산, 태안, 온양, 평택, 홍산, 덕산, 청양, 남포, 비인, 결성, 보령, 아산, 신창, 예산, 해미, 당진 등 18개 고을이었다.

이 지역은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첫 전투인 풍도해전과 성환전투가 일어나 그 실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동학농민군의 재봉기 결정 이후 내포 일대의 동학조직은 대규모 봉기에 참여하였다. 각 군현에서는 동학농민군이 관아를 압도하였다.

전라도에서 재봉기한 남접농민군은 공주성을 거쳐 북상을 계획하였다. 내포는 북상길의 요지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일본군과 경군 등 진압군이 주요 목표로 정해 내려온 곳이나포지역이었다.

진압군의 주력은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였다. 서로 중로 동로 3대로 나누어 남하한 이 일본군 대대의 지휘관은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소좌였다. 미나미 소좌는 일본군과 동행하던 경군 각 부대는 물론 행군로 인근에 위치한 지방의 관군까지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1 『비변사등록』 영조 1737년 9월 5일. 내포(內浦) 18개읍의 수령을 혹 체직하면 이때 신관을 맞이하고 구관을 보낼 때 인부와 말을 내놓으라고 책망할 수 없습니다. 임자년(1732)에 진흙소를 설치한 고을에는 가족을 거느리고 다니는 예를 폐지하였으니 지금 이 18개읍도 임자년의 예에 의하여 내년 가을까지 가족을 거느리고 오는 폐단을 없애도록 법으로 정하여 경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자, 임금은 그렇게 하라고 일렀다.

경군은 양호도순무영의 편제 아래서 통위영과 경리청 그리고 장위영을 동원해서 구성되었다.

충청도 서해안 지역을 순회하며 공주로 내려간 것은 일본군 서로군이였다. 공주 우금치 전투를 앞에 두고 서로군은 지대를 파견하여 동학농민군 근거지를 수색하였다. 홍주성의 방어전투도 이 지대가 주력이 되어 치르게 된다. 또 일본군은 후비보병 제 19대대의 서로군을 응원하는 병력으로 후비보병 제6연대 제6중대를 파견하였다. 인천에 주둔했던 이 중대는 충주와 홍주 부근으로 들어가 일본군이 빠져나가 비어있던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을 기습하였다.

일본군의 순회보다 뒤늦게 우금치전투의 와중에 내포지역을 순회했던 경군 부대가 장위영이였다. 홍주성전투 이후 소규모로 서산 등지로 분산해서 재기를 도모하던 동학농민군은 장위영 병대의 기습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진영이 무너지게 된다.

이 글은 일본군과 장위영 병대가 내포 일대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진압군측의 보고 자료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검토하려고 한다.²

2. 내포 일대의 동학농민군과 무장봉기

1894년 내포지역의 비상 상황은 일본 함대가 청의 해군을 공격한 해전이 벌어졌던 豊島 앞바다 전투부터 시작된다. 풍도전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군의 기습으로 시작되었다.

청군이 아산에 상륙한 것은 조선정부가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파병을 요청한 때문이었다.³ 광을호를 타고 온 청군 2,000여 병사는 백석포에 상륙해서 성환으로 이동하였다.⁴ 백석포는 청군의 군수물자를 쌓아놓은 군수기지 역할을 하였다. 성환은 조선의 교통망에서 중요한 역이 있는 곳이었다. 청군이 성환에 간 것은 전라도에서 북상하는 동학농민

2 이 글은 서산문화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증보 보완한 것이다.

3 청군이 동학농민군 진압에 개입한 것은 4월부터이다. 4월 4일 초토사 홍계훈이 인솔하는 장위영 병대가 인천에서 청의 군함 平遠號를 타고 群山까지 간 적이 있다. 홍계훈과 동행한 청의 관리 徐國燦은 당시 전라도 일대의 동정을 염탐하기도 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二 京城 釜山 仁川 元山機密來信, 기밀 제5호 (31) 民亂의 情況에 관한 淸國軍艦 平遠號 艦長 直話報告의 件

4 『錦藩集略』 別啓, 1894년 6월 26일.

군을 막는 요지였기 때문이지만 당시 서울에 들어간 일본군의 동정이 심상치 않은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었다.⁵

일본군은 해군 함정 大島艦과 武藏艦을 풍도 부근에 보내서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다. 아산만에 정박시킨 청의 함정들인 揚威號 操江號 湄雲號 등의 동정이 조사되어 보고되었다. 백석포에 있던 청의 육군도 상세한 정보가 파악되었다. 일본 군함 무장호에서 보고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백석포 인가에서 上流로 5,6町에 있는 해안 암석에 배를 대고 상륙하여 바로 山頂에 올라 청군 야영의 정황을 보니, 충청도 연도로도 헤아릴 수 있는 좌우 경사된 골짜기 5개소에 천막을 쳐 놓았다. 그 중에서 많은 것은 한곳에 24, 5장을, 적은 것은 10 혹은 5에 불과하고 또 조선인 집과 혼합한 것이 있음을 보았다.⁶

이처럼 백석포에서 성환에 이르는 주변까지 정찰해서 상세하게 정보를 파악한 것은 일본군의 기습에 따른 전투를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상황은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은 사실상 청일전쟁의 서막이었다.

일본군은 6월 23일 경복궁을 기습 점거하였다.⁷ 군사력에서 격차가 나는 조선의 궁궐을 이때 점거하고 국왕을 인질로 삼은 것은 청과 전쟁을 결정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1882년과 1884년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종결된 바 있었다. 조선에서 세력을 펼치려면 청을 배제해야 했고, 그것은 10년 간 국력을 기울여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경복궁을 기습한 직후 일본군은 육군과 해군이 같이 淸軍을 기습 공격하는 작전에 들어갔다. 1894년 6월 25일(양력 7월 23일) 먼저 해군이 전단을 열었는데 전투가 벌어진 곳은 풍도 앞바다였다.

당시 풍도 앞 상황을 보면 선전포고도 없이 일본 함대가 기습한 것이 명백하였다. 청의 해군은 廣乙號가 병력 2,000명을 백석포에 하선시켰고, 수송선 高陞號가 다른 병력을 상륙

5 『홍양기사』 6월 24일 영접사의 답장을 받고 한양의 變故에 대해 상세히 들었다. 영접사가 원수 섭사성에게 군대를 북쪽으로 전진하도록 요청하여 成歡驛에 이르렀는데, 한양으로부터 電報가 와서 중지하고 성환에 지금 주둔하고 있다고 하였다.

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二. 京城 釜山 仁川 元山機密來信 > (35) 武藏艦 豊島 부근 視察報告

7 『홍양기사』 6월 23일 扈隸가 한양에서 돌아와 소식을 전했는데, 21일에 대궐 안에 變亂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서 영접사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아보게 하였다.

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엄호하는 濟遠號와 廣乙號가 操江號와 함께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함정들을 요시노[吉野], 아키츠시마[秋津洲], 나니와[浪速]함으로 구성된 일본 연합함대가 일자로 대열을 갖추어 밀고 들어오면서 공격하였다. 갑자기 기습을 받은 제원호와 광을호는 청국 여순항으로 도주하였고, 조강호는 태안까지 피하였다가 아키츠시마함에게 노획되었다.

이 전투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고승호가 격침된 것이었다. 고승호에 승선했던 독일인 한네켄은 침몰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기선 고승호는 7월 23일 1,220명의 승선자와 대포 12문 기타 소총과 군수품 등을 탑재하고 太沽를 출발하여, 같은 달 25일 아침 프린스 제롬灣 밖인 朝鮮 群島 근방에 도달했다. —오후 1시경에 이르러 낭속함은 고승호를 향해 수뢰 한 발을 발사했지만 적중하지 않았으므로 側砲 5門을 발사, 이어서 갑판과 포탑에 있는 기계포와 대포를 연발하여, 대략 1시간이 경과하여 고승호가 침몰하기에 이르기까지 발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포격이 시작되자 승무원과 淸兵 약간 명이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 나는 그 艦의 水雷口로부터 수뢰가 튀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 다음 곧 6개의 포문을 열었는데 수뢰가 우리 배에 도달하기 전에 굉장히 큰 소리의 포성이 두 번 일어났다. 그리고 수뢰는 우리 배의 중앙인 석탄창에 적중했고 백주대낮이 순식간에 어두운 밤으로 되어 炭粉 木片이 飄浪하는 파도와 섞여 하늘 높이 치솟았다. 여기서 우리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쳤다. 헤엄을 치고 있는 사이에 나는 우리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보았다. 船尾가 먼저 침몰했다. 이 사이 발포가 계속됐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도 살아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안 배위의 병사들은 분연히 포격에 대항해서 총을 쏘았다. 나는 일본 군함에서 보트를 내리고 다수의 병사를 태우고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 배의 殘兵들을 구조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믿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았다. 보트에 타고 있던 병사는 침몰하고 있는 배위의 잔병들에게 사격하였다. —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병사 중 수영하여 그 생명을 보전한 사람은 겨우 170명 정도에 불과하며⁸

나니와호의 함장은 도고 헤이하찌로[東郷平八郎]였다. 그는 침몰한 고승호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치는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고 침몰하는 배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학살하기

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四. 東學亂과 淸日關係 三 (8) 英國商船 高陞號 擊沈事件

위해 보트를 내려 보냈다. 이 기록을 남긴 한네켄은 일본 해군의 잔학상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벌어진 전쟁 발발 상황을 태안과 아산 등지에 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었다. 조강호에서 피해 나온 청군을 태안부사가 만나보고 충청감사 이현영에게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안부사 尹守榮의 보고 내용에, “6월 23일 유시(酉時, 오후 5~7시) 쯤에 중국 병정 100명이 갑자기 관청 마당에 들어왔는데, 혹 목덜미와 등을 다치거나 혹은 손과 발을 다쳐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놀라서 어디로 향해 가다가, 다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글을 써서 물어보니, 중국 군사들도 글을 써서 답하기를, ‘우리들은 廣乙兵船에 우리 병사를 태우고 아산에 내려준 후에 우리나라로 되돌아가는 길에 서해의 竹島에 도착하여 일본 군함 3척을 만나 서로 교전했다. 우리들의 사상자와 저들의 사상자가 몇 십 명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들은 간신히 이곳에 도착하였으나, 배는 죽도 등지에 표류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병사들에게 읍에서 착실하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그들이 바라는 대로 아산으로 호송했습니다. 광을선의 파손 여부와 일본인들이 머물고 떠난 행적을 자세히 살펴서 잘못된 것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府使가 즉시 죽도로 서둘러 갔으므로, 연유를 우선 급히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⁹

풍도해전 나흘 뒤인 6월 27일에는 성환에 있는 청의 육군이 경복궁을 기습했던 오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¹⁰ 소장이 지휘하는 일본군 혼성 제9여단 병력의 공격을 받았다. 성환에서 격전을 벌였지만 패배하게 된 청군 4,000명은 아산을 거쳐 공주로 후퇴하였다.¹¹

이 와중에 내포 일대는 갑자기 전장터로 변하였다. 서산 해미 홍주 덕산 예산 등지는 패퇴하는 청군이 들어와서 약탈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瑞山 海美 洪州 德山 禮山 등의 읍은 태안에서 온 중국 병사와 성환에서 싸움에 져서 흩어진 병

9 『錦藩集略』 別啓, 甲午六月二十五日.

10 大島義昌(1850~1926)는 일본군 仙台鎮台參謀長, 東京鎮台參謀長 등을 거쳐 1891년 보병 제9여단장이 되었다. 1894년에는 제9혼성여단장으로 서울에 들어와서 경복궁을 침범하고 장위영 무장해제를 감행했다. 충청도 성환에서 청군을 기습 격퇴시키고 평양의 청군을 공격했다. 1898년 제3사단장으로 노일전쟁에 참전했다.

11 이청군은 공주 판관 신육의 안내를 받아서 곧 침주와 충주를 지나 강원도로 우회하여 평양으로 이동하였다.

사들이 흘러 들어와서 의지할 곳이 없어 마을을 수색하고 약탈하여, 백성들이 모두 놀라서 흩어졌습니다.¹²

일본군의 행패는 더욱 심하였다. 아산 현감 정인진이 보고는 심각하였다.

지난 6월 27일 오시 무렵에 몇 천명인지 알 수 없는 일본군이 각각 총과 칼을 가지고 馬隊와 함께 혹은 성환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 혹은 백석포에서부터 출발하여, 일시에 갑자기 빠르게 진격하기도 하고, 혹은 객사에 주둔하거나, 혹은 사면으로 山坂에 주둔하면서 社稷을 불태웠습니다. 이어서 인가와 각각의 관청건물 등에 들어가 남아 있는 돈과 곡식 및 여러 물건들을 모두 빼앗아 갔으며, 각종 장부들도 모두 불에 타고 찢겨 졌습니다. 도로의 민가와 의복, 그릇, 여러 물건들이 부서지고 찢겨졌고, 뒤져서 가져간 것이 그 수를 알 수 없으며, 위협하고 능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관리와 백성 사이에서 남녀노소가 이러한 광경을 보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서로 따라서 울부짖으며, 모두가 목숨을 보존하려고 도망하여 숨었습니다.¹³

조선이 벌인 전쟁이 아닌 청과 일본과의 전쟁에서 내포 일대가 심한 약탈장이 되었고, 민가뿐 아니라 관청까지 들어와 주둔한 일본군은 각종 장부와 물건들을 빼앗아갔다. 청군을 맞이해서 뒷받침하는 책임이 이 일대의 지방관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약탈까지 당하게 된 것이었다. 더구나 조세로 거둔 곡식까지 일본군이 탈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백석포에서 봉세미를 윤선으로 신고 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탐지할 겨를도 없어 실제 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중국 군대에 편안함을 제공하는데 힘을 다 쏟았는데, 또 다시 일본군들이 갑자기 들어와 공포와 겁을 주는 일을 당하니, 읍이 회복될 기약이 없습니다. 일본군들은 오늘 아침 일찍 둔포로 향하여 갔고, 방금 40여 명이 읍에 남아 있으면서, 청국 병사들이 남기고 간 탄환과 기계를 官門 안팎에서 꺼내어 태웠습니다.¹⁴

12 『錦藩集略』 別啓, 甲午七月初三日.

13 『錦藩集略』 別啓, 甲午七月初三日

14 위 자료.

충청도 서해안 일대의 여러 군현에 이 같은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자 공주 홍산 은진에 서는 양반 유생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러자 충청감사 이헌영이 거사를 막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 유희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산하도록 한 것이다.¹⁵ 부여 유생 千基一도 창의 모병을 시도하였다. 역시 충청감사 이헌영이 이를 제어하였다. “경솔하게 거사를 하였으니, 오히려 임금의 급한 사정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마침내는 국가의 해가 될 것이 명확하다. 이번 달의 시기와 기미를 시험 삼아 보건대, 宗社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임금에게도 탈이 없으니, 창의 모병하여서 장차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생각건대 없는 것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소란의 단서를 야기하여, 위로는 국가에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화를 일으킬까 두렵다. 진실로 군대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고, 적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다면, 반드시 조정에서 召募하게 될 것이니, 어찌 많은 선비들의 논의가 빼어나오기를 기다리겠는가?”라는 것이었다.¹⁶ 결국 양반 유생들의 거사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중지되었다.

실제로 대응하고 나선 세력은 동학 조직이었다. 6월 29일에 임천 군수가 충청 감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에는 전라도 성당지역에서 충청도까지 와서 활동하는 동학도들이 나온다.

6월 29일 신시 무렵에 道人이라 칭하는 20여 인이 혹은 총과 창을 지니고 혹은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전라도 聖堂에서부터 방향을 바꾸어 임천에 도착하여 作廳에 난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먹이는 질치는 公兎이 맡아서 하게 지시하였습니다. 하루 밤을 머물고 그 다음날인 7월 1일 신시 무렵에 다시 성당 등지로 향해 갔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문득 爲國安民한다는 것을

15 위 자료, 別甘, 公州鴻山恩津儒會所. “여러 유생들이 지금 모였는데, 창의하려는 것인가? 임금께 충성하려는 것인가? 충성과 분함 때문에 격발되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려 한다고 하니, 어찌 가상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적절한 시기를 따르고, 적절한 기미를 살피지 못하여, 망령되게 논의하여 경솔하게 거사한다면, 오히려 임금의 급한 사정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마침내는 국가의 해가 될 것이 명확하다. 지금의 시기와 기미를 시험 삼아 본다면, 과연 어떻다고 말하겠는가? 진실로 군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면, 적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대하여 어찌 많은 선비들이 뛰쳐나오기를 기다리겠는가? 조정에서는 반드시 召募하게 될 것이니, 시기와 기미로 볼 때 실로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비유컨대 만일 호랑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집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구하는 것에 급급하여 무기를 들고 둘러싸서 그것을 잡으려 한다면, 호랑이는 나올 수 없어서 포호하면서 집안에서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이니, 어찌 근심이 없게 된다고 하겠는가? 지금 이에 창의하였다고 하는 것이나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은 잘못된 소문이 더욱 잘못 전해져서, 오히려 격렬하게 되어 틈새를 만들었으며, 화 또한 예측하지 못하여 임금에게 근심에 근심을 더하여 끼치게 되니 장차 무슨 말로 그 책임을 피하겠는가? 지금 소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망령되게 의논하여 경솔하게 거사하니 진실로 매우 불가한 일이다. 다행히도 여러 군자들이 물러가 학업을 닦도록 하며, 다만 다음 일의 상황을 보면서 조정의 처분을 기다려 진실로 적당한 시기와 기미를 살피서, 이로써 모든 것을 알도록 하라.”

16 위 자료, 別甘, 諭示 扶餘儒生千基一.

평계했지만, 기세는 감히 누구냐고 물어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합니다. 마을을 순찰하여 정탐하여, 사사로이 총과 마필을 마음대로 가져갔으며, 또한 饒戶를 쫓아내고는 窮民을 구호한다고 말하면서 곡물꾸러미를 압류하고 돈과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¹⁷

서천포·청양·이인·정산 등지에서도 동학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서천 군수 金麟洙도 긴급한 보고를 하고 있다.

7월 초 9일 오시 무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 57명이 각각 총과 창을 지니고 한산에서 이곳에 도착하였는데, 총을 쏘면서 읍에 들어와 각 관청건물에 머무르며 술과 음식을 토색하면서 이르기를, '우리들은 扶安의 동학인이다. 전라도 연해에 일본배가 와서 정박한 것이 수백 척이어서, 도 전체가 위급하고 황망하여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마필과 무기가 모자란다. 너희 읍에 남아 있는 총과 말의 상황을 나는 이미 자세히 들었으니, 총 1,000자루와 말 100필, 화약과 철환을 충분히 가져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고, 이방과 守城砲手 隊長을 잡아가서 죽인다고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것이 끝이 없었으며, 수성포수가 지닌 총 6자루, 화약 3근, 철환 100개, 창 2자루, 시골 당나귀 2필, 말 1필 등을 빼앗아서, 신시 무렵 나갔습니다.

동학 조직은 일본의 침략 행위를 막기 위해 항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복궁을 기습 점거하고 경군 병영을 기습해서 무장 해제시킨 일본군의 위력은 잘 알고 있었다. 청군까지 일거에 궤멸시킨 일본군과 싸우려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했다. 그것은 군량을 마련하고 무기와 화약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결국 관아에 보관된 무기를 탈취해서 무장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각 군현의 관아와 동학 조직 사이에 대립 상태가 치열해졌다. 세곡을 빼앗기거나 관아의 무기를 탈취당하면 지방관과 향리가 먼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동학 조직이 봉기한다면 군수미와 군수전은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서 여러 군현의 읍내로 들어가서 식량과 무기를 강제로 확보하고 있었다. 이것은 화적과 같은 행위로 보고되었다. 더구나 부농 지주들에게 강제로 군수미와 군수전을 헌납하라는 요구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17 위 자료, 甲午七月初七日.

되었다.

연산 현감 李秉濟는 “7월 초 6일에 동학배 20여 명이 각각 총과 창을 지니고 쏘면서 돌입하여 총 4자루, 돈 30냥, 백성의 말 3필을 빼앗아갔으며, 초 7일 미시 무렵에 100여 명이 또 갑자기 들이닥쳐 돈 100냥을 토색해 갔고, 초 8일에는 10여 명이 총을 쏘면서 들어와서 읍의 말 1필을 빼앗아 가서 읍과 마을에서 폐단을 저지르고 민정을 시끄럽게 하였습니다.”고 보고하였다.

이제 지방관과 양반들에게 동학도는 무장을 한 화적으로 인식되었다. 동학도들의 행위를 충청감사 이현영은 “옛날 채무를 강제로 받으려고 인명을 죽였으며, 관청건물에 들어와서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아 가는 것이 끝이 없었고, 또 수성포군이 지닌 무기를 빼앗았으며, 마을을 살살이 뒤지고 거리에서 멋대로 다니면서 돈 곡물 마필 총 칼 등의 물건들을 빼앗아 가는 등의 일을 저지르니, 이는 변괴이며 들어도 매우 놀라운 일”로 정리하였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일본군의 경복궁 기습과 친일 개화파의 등장, 그리고 1개사단의 일본군이 부산에서 내륙을 지나 서울로 올라가는 사태와 청일 양군이 평양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다. 당장 눈앞에서 재물을 탈취하는 동학도들이 더 큰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8월에는 동학도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8월 1일에는 ‘1만여 명’이 공주 正安面 弓院에 모여서 창의를 했다고 감영에 그 뜻을 밝혔으며, 다음날에는 깃발을 잡거나 창과 칼을 지니고 본부 안으로 들어와 길에 가득 찼다.¹⁸ 충청감영조차 부내에 들어온 동학도들을 제어할 수 없었다.

조정에서는 충청도 선무사로 鄭敬源을 파견하였다. 이 충청지역을 돌면서 동학 조직을 선무하는 직임이었다. 정경원이 홍주에 와서 내포 일대의 이른바 접주들을 불러 모았을 때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파악되었다. 홍주의 金永弼 丁大哲 李漢奎 鄭元甲 羅成蕃, 덕산의 李春實, 예산의 朴德七 朴道一, 대흥의 兪致教, 보령의 李源百, 남포의 秋鏞成, 정산의 金基昌, 먼천의 李昌求였다.¹⁹ 잘 알려진 것처럼 예산의 박도일은 朴寅浩로서 朴熙寅과 더불어 덕포 예포를 이끌던 내포지역의 동학 고위지도자였다. 내포 여러 군현에서는 이들 두

18 위 자료, 甲午八月初五日.

19 『홍양기사』 갑오 8월 6일.

지도자가 동학을 전파해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었다.²⁰

선무사 정경원이 파견되었어도 동학 조직이 일본과 싸울 것을 목표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각 군현의 관아와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9월에 들어와서 전봉준이 전라도에서 재봉기를 결정해서 삼례에 집결하였다. 9월 21일 동학 교단도 교주 최시형의 기포령에 따라 동학 조직이 퍼져있던 모든 지역에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

이때 내포지역에서는 관아에서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하였다. 먼저 9월 중순 태안에 별유사로 파견된 金慶濟가 태안부사 申百熙와 함께 해미 서산 태안의 동학 두령들을 체포하였다. 동학 조직의 움직임이 수상해지는 것을 보고 먼저 제압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한 결정에서 나왔다. 김경제는 흥문관 수찬 등 내직만 주로 역임했던 유생으로서 갑오년의 사태진전에 대한 이해가 적었다. 신분 간의 차별을 엄격히 준수하려고 시도하거나 강성한 동학 세력도 엄격히 대응하면 위축될 것으로 보았다.²¹

분개한 태안에서 봉기에 나선 동학농민군은 10월 1일 읍내로 진공해서 관아를 점거하여 체포된 동학도를 풀어주고 별유사 김경제와 부사 신백회를 처형하였다. 충청감사 박제순은 장계에서 그 사정을 보고하고 있다.

10월 1일에 접주라고 하는 5명을 염탐해서 잡아들여 온갖 방법으로 타이르고 바로 풀어주었더니 그 다음날 2일 진시(辰時, 오전 7시~9시)쯤에 저들 1만 여명이 각자 총과 창을 소지하고 관아에 들입하여 사방을 포위할 때에 방어사와 종부과원이 이 광경을 보고 잠시 下吏 金元燮의 집으로 피신하였는데, 저들이 바로 동헌에 올라와서 찾아도 없자 官舍와 각 건물을 태운 뒤에 사방의 마을을 끝까지 뒤져 방어사와 종부과원이 끝내 잡혀서 창으로 마구 찌르고 끝내 칼로 흉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²²

20 내포지역의 동학농민군 봉기에 관한 연구는 표영삼, 「충청 서부지역 동학혁명」 『교리교사연구』 5, 2000과 이진영, 「忠淸道 內浦地域의 동학농민전쟁 전개양상과 특성」 『동학연구』 14 15집, 2003 그리고 성주현, 「박인호계의 동학혁명과 그 이후 동향」 『동학학보』 17호, 2009가 있다.

21 『홍양기사』 갑오 9월 14일. “別諭官 金慶濟가 흥주에 도착하였다. 주공이 별유관을 영접하여 正衙에 앉아 비괴를 불러 布諭文을 읽고 그것을 듣게 하였다. 공이 명령을 내려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포유문을 듣는데, 신분을 어지럽히고 등급을 없애서는 안될 것이다. 양반은 대청에 올라 난간밖에 엎드리고 상놈과 천인은 계단 중간에 엎드려서 듣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저들은 감히 거역하지 못했으나 불만스런 기색이 얼굴에 드러나는 자가 많았다. 포유문을 읽는 것이 끝나자 공이 또한 일일이 성명을 들어 파악한 행동을 적발하여 책망하기를, “이처럼 따뜻하게 타일렀는데도 오히려 뉘우치지 않으면 곧이어 법으로 다스려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리와 낮빛이 모두 엄중하여 보고 듣는 자가 공손하게 얼굴빛을 바꾸었다.”

22 「충청도관찰사장계」, 1894년 12월 12일

신백희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고 한다.²³ 동학농민군과 지방관의 명분 싸움은 치열하였다. 서산에서도 지방관을 처형하는 일이 벌어졌다. 실록에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서산군 禮吏가 殿牌를 지고 와서 該邑에서 匪賊이 변란을 일으켜 郡守 朴鎡基는 살해되고 관청 건물은 다 타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적의 기세가 등등하여 수령을 죽인 것만도 더없이 통분하고 놀라운 일인데 전패를 옮겨오기까지 하였으니, 매우 황송합니다.”²⁴

10월 초 내포 일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의 세력은 거대하였다. 지방관아에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홍주성만 목사 李勝宇의 노력으로 민보군을 결성해서 읍내 함락을 막았다. 이승우는 전라감사로 임명된 것도 지역 유림들의 仍任 청원으로 유임되었고, 토포사를 겸하게 되어 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3. 일본군 제19대대 서로군과 제6연대 6중대의 내포 지역 진압과정

1) 후비보병 제19대대 서로군과 승전곡 흥주성전투

동학농민군의 재봉기 움직임에 방관만 할 수 없게 된 시기는 9월 초순이었다. 무장봉기를 준비하는 와중에 경기도까지 사태가 심상치 않았다. 그래서 9월 10일 경군 지휘관을 서울을 방위할 수 있는 요지인 죽산과 안성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였다.²⁵ 장위영 부영관 李斗璜과 경리청 부영관 成夏永이 선임되어 각각 거느리고 있는 병대를 이끌고 부임하도록 했다. 현직 경군 지휘관을 지방관으로 겸임시켜서 동학농민군을 제압하도록 한 것이다.

23 『良齋先生文集』 別編卷之一, 題跋, 題泰安忠節錄

24 『고종실록』 1894년 10월 11일.

25 『일성록』 1894년 9월 10일. “議政府啓言 昨日議案以近日匪徒至犯畿甸 竹山安城兩邑并令遞改 自政府另擇有幹器人差出帶兵前赴事啓下矣 竹山府使以壯衛營領官李斗璜差下 安山郡守以經理廳領官成夏永差下 各率所領兵丁 不日下送請以爲相機剿捕 允之”

그 직후 정부에서는 최고진압기구로서 양호도순무영을 설치하고, 경군 여러 병영을 동원해서 동학농민군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진압군을 보내도록 하였다. 가장 시급한 지역이 해안지역에서는 태안과 서산이었고, 내륙지역에서는 청주였다.

이달 6일 洪州牧使의 秘牒을 받아보니 泰安과 瑞山을 먼저 수비해야 한다고 하며, 洪州도 단숨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풍문에 의하면, 태안 서산군수와 宗親府에서 파견한 관원 金이 모두 살해된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방이 포위되어 보고문이 不通되어 있는 중에 洪주의 보고문은 노끈으로 만든 것으로 하였다고 하니, 보고문을 보내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淸州에는 죽은 자가 없지만, 그 후 적세가 더욱 치열하여 이미 운집한 수만 명이 며칠 지나지 않아 병영을 침범할 기세가 보여도 방어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²⁶

이때 충청감사 박제순이 보고한 내포 일대의 사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무엇보다 태안과 서산 지방관이 피살되었고, 내포 일대의 호대한 동학 세력에 지방관이 동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성군수로 임명된 성하영은 출동을 급히 하지 않은 책임 때문에 지방관 직임에서 해임되고 양호도순무영 별군관으로 임명되었던 경리청 부영관 홍운섭이 안성군수를 겸하게 되었다. 하지만 성하영은 경리청 병대를 이끌고 청주로 직행해서 지원하는 등 이전과 다름없이 활동하였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성하영의 지휘력을 평가해서 다시 서산군수에 임명하였다.

서산 관아는 전 군수가 피살된 후 경군 지휘관을 새 군수로 맞게 되었지만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선 성하영은 임지인 서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당장 충청감사 박제순이 전라도의 동학농민군 대군이 공주성을 침범한다고 화급하게 사방에 구원을 요청했다. 그 예하에 있는 서산군수 성하영은 공주로 직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학농민군의 시각으로 보면 관군과 전투를 벌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웠다. 재봉기 목적은 일본세력을 축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군에 동학농민군은 가장 큰 반일 세력이었다. 동학농민군을 제거해야 저항을 줄일 수 있었다. 더구나 청과 전쟁을 벌이는

2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4.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遺의 件 (31) 湖西東學徒로 인한 日本軍 支援要請, 별지.

동안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을 거쳐가는 병참망과 전진망을 동학농민군이 차단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국력을 기울인 전쟁을 위해서도 동학농민군 진압을 서둘렀다. 경북궁 점거 후 동맹조약을 강제로 체결해서 협력을 요구했던 일본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면서도 관군을 앞세우고 그 지휘권까지 이양을 받았다.

조선정부는 충청도의 수부인 공주성이 함락될 위기에 직면하자 일본군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였다. 일본군이 경북궁을 점거해서 국왕을 인질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봉기한 동학농민군을 평정해달라고 정부에서 일본군에게 사정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전에 忠淸監司 朴齊純의 급보가 도착하였는데, 湖西 여러 읍에 東匪의 세력이 더욱 치열하고 그밖에 매우 큰 소란을 피워 평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貴 日兵들을 몇 명이나 파견하여 巡撫營 병사와 함께 미리 나아가게 하였습니까? 그 일을 명시하여 巡撫營에 알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²⁷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증파 목적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일본군이 원했던 바의 요청이었다. 제19대대는 3대로 나누어 남하하였는데 서해안 지역을 행군로로 정하고 갔던 것은 제2중대가 맡은 서로군이었다. 서로군은 10월 17일 진위에서 양성으로 행군하면서 지대를 평택으로 보내 수색을 시작하였다.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²⁸

[표 1] 서로군 본대와 지대의 행군 일정

날짜	西路軍 제2중대
10월 17일 (양 11월 14일)	振威縣
18일 (양 15일)	陽城縣 (지대)平澤驛
19일 (양 16일)	稷山縣 (지대)牙山
20일 (양 17일)	天安 (지대)牙山 -
21일 (양 18일)	天安 - (지대)新昌
22일 (양 19일)	天安 - (지대)禮山
23일 (양 20일)	德坪 (지대)沔川

27 위 자료. 이는 외부대신 김윤식이 일본공사에게 요청했던 것이다.

28 위 자료, 6, 二. 各地東學黨 征討에 관한 諸報告 <제1권 제7장의 후반부> (3) 各地 戰鬪詳報 및 東學黨征討策 實施報告書 送付의 件

제4차 동북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평화순례와 역사포럼

24일 (양 21일)	公州 (지대)德山(勝戰谷 전투)
25일 (양 22일)	公州 - (전투) (지대)洪州
26일 (양 23일)	公州 - (지대)洪州 -
27일 (양 24일)	公州 - (지대)洪州 -
28일 (양 25일)	公州 - (지대)洪州 - (전투)
29일 (양 26일)	公州 - (지대)洪州 -
11월 1일 (양 27일)	公州 - (지대)洪州 -
2일 (양 28일)	公州 - (지대)洪州 -
3일 (양 29일)	公州 - (지대)洪州 -
4일 (양 30일)	公州 - (지대)洪州 -
5일 (양 12월 1일)	公州 - (지대)洪州 -
6일 (양 2일)	公州 - (지대)洪州 -
7일 (양 3일)	公州 - (지대)洪州 -
8일 (양 4일)	公州 - (전투) (지대)洪州 -
9일 (양 5일)	公州 - (전투) (지대)大興 -
10일 (양 6일)	公州 - (지대)維鳩
11일 (양 7일)	公州 -

이 표에서 전투로 표시한 날은 서로군 본대가 3일과 지대가 2일이다. 서로군 본대는 천안에서 바로 공주로 들어가서 우금치전투를 벌이고, 지대는 승전곡과 홍주성전투를 벌인다. 공주 우금치전투는 전봉준이 봉기를 결정하고 집결시킨 남접농민군 주력과 최시형이 기포령을 내린 이후 집결한 남접농민군 주력이 연합해서 벌인 최대의 전투였다.

지대가 지나간 지역은 내포 주요 군현이었다. 아카마쓰(赤松國封) 소위가 지휘하는 지대는 1개 소대에 2개 분대가 추가되고 경군 34명이 동행했던 적지 않은 병력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대는 평택에서 아산으로 행군하여 하루를 체류하고 신창 예산 면천으로 갔다. 서산과 당진을 수색하고 홍주를 경유하여 공주에서 서로군 본대와 합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²⁹

10월 24일 餘美邑 부근 고지와 海美城에서 동학농민군이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아카마쓰 소위는 면천에서 지대 병력을 이끌고 승전곡으로 향했다. 승전곡 입구에서 4, 5백 명의 동학농민군을 발견하고 사격을 가했다. 일본군 지대는 퇴각하는 동학농민군을 따라

29 이하 승전곡전투는 일본군 전투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 (5) 勝戰谷附近 戰鬪詳報

들어갔다.

첨병은 이미 전방 약 1,500m 앞에 있는 벌판에 10명쯤 되는 적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전진하여 승전곡 좁은 골짜기 서쪽 고지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전방 약 500m 앞에 있는 밭에 4, 5백 명의 동학도가 깃발 몇 폭을 나부끼며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 이것을 산꼭대기에 있던 우리 병사가 저격하는 것과 동시에 4분대가 모여 있는 적에게 일제사격을 퍼붓고 나머지 대원들도 서둘러 사격했다. 동학도가 허둥지둥 사방으로 흩어져 퇴각했다. 그래서 전 대원을 전진케 해서 밭 가운데 이르러 정지시켰다. 2분대로 하여금 적을 추격케 하기 위해 적의 퇴각로인 중앙 산꼭대기로 가게 하고 나머지 대원들에게는 적의 유기물(깃발 창 엽총 백미 의복)을 소각케 하고, 화약은 물속에 버리게 했다. — 이때가 오전 11시 30분이었다.

승전곡은 긴 골짜기가 구불구불 돌아나가는 지형을 갖고 있다. 산길과 골짜기를 통해 동학농민군을 추격하던 일본군 지대는 1만 5천명이나 되는 동학농민군과 마주쳤다. 동학농민군은 대군이 방어수단을 준비해둔 지역으로 유인책을 쓴 것처럼 보인다. 높지 않은 야산으로 올라가 전진하던 일본군은 높은 산 위에서 맹렬히 사격하는 기세에 밀려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와 함께 동학농민군은 화공을 가했다. 골짜기를 타고 서풍이 부는 것을 이용해서 산과 들에 불을 지르고 공격하자 아카마쓰 소위는 퇴각을 결정했다. 황급히 도망가는 일본군을 구한 것은 미리 엄호대를 배치해서 접근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오후 3시 30분 산정 오른쪽 산길을 전진하던 대원은 조선 병사와 합류하여 산을 내려와 본대의 후방 약 3백m 되는 곳으로 나왔다. 그 보고에 따르면, 그 분대가 행진하던 길머리 위 산정에서 수천 명의 적군이 맹렬하게 사격해 왔으며, 게다가 서풍을 기화로 산과 들에 불을 지르고 습격해 와, 그 연기와 불길이 하늘을 찌르고, 중과부적으로 본대에 합류했다고 하였다. — 적은 뒷산과 앞서 퇴각했던 산정으로부터 급진하여 사격해 왔다. 그 기세가 맹렬했다. 마침 잘된 것이 엄호대가 큰 길 왼쪽 작은 독에 의지해서 엄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대는 시냇물 오른쪽 물가를 따라 퇴각했으며, 제3소대의 2개분대로 하여금 도동읍 후방 고지에 의지해서 엄호분대의 퇴각을 엄호케 하고 승전곡의 좁은 골짜기로 일퇴일지하여 먼천으로 퇴각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일본군과 전투를 해서 격퇴한 것은 갑오년 전 기간에 걸쳐서 승전곡 전투가 유일했다. 저녁 10시에 덕산 읍내로 퇴각한 일본군 지대는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소 5마리에 실은 짐은 모두 잃고 말았다. 전투보고서에 나온 유기물은 다음과 같다.

[표 2] 승전곡 전투시 일본군 분실물

배낭 78개	상하겨울내의 78벌	휴대식량 312食분
日袋 78개	군대수첩 78개	깡통, 소금 각 78개
쌀자루 78매	밥통(飯盒) 78개	구두 78켤레

이 분실물을 보면 지대의 수가 78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쌀자루와 5기분의 휴대식량³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였고, 겨울철 전투에 대비해서 겨울내의를 비롯해서 구두까지 더 가지고 다녔다. 일본군 지대는 승전곡의 퇴각에 놀란 나머지 다음날 아침 홍주로 급히 퇴각했다.

홍주성에 들어간 일본군 지대는 상황을 보고하고 응원대가 올 때까지 체류하였다. 4일째 되는 날 홍주성은 동학농민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게 된다. 전투 이후에도 홍주성에 계속 머물러서 모두 13일 간이나 있었다.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지대가 이처럼 한 지역에 오래 머물렀던 것은 서로군 본대가 공주에서 20일 간이나 체류했던 것 이외에는 없었다.

내포에서 홍주성은 각 군현에서 집결한 동학농민군이 1차 점거 목표로 삼았던 지역의 중심이 되는 성이었다. 토포사인 홍주목사 이승우는 부임 이후 민보군을 조직해서 동학 조직의 활동을 제어하고 관치질서를 지켜올 수 있었다. 내포의 동학농민군이 공주성을 공격하는 남북접 연합농민군을 후원하려면 홍주성을 점거해서 세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홍주성은 공주의 배후 요해처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서울로 동학농민군이 북상하려면 관군과 민보군의 거점이 될 홍주성을 먼저 장악해야 했다.

일본군 지대는 인천의 병참사령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승전곡전투에서 강력한 동학농민군에게 패퇴한 것이 그만큼 위협적이었다. 인천병참사령관 이토(伊藤) 중좌는 후비보병 제19대대를 배속 받아 명령을 내렸던 지휘관이었다. 이토 중좌는 즉시 인천에 주둔했던

30 전투 중 점심식사를 한 것까지 포함하면 덕산에서 출발할 때 5기분을 휴대했다.

후비보병 제6연대 제6중대를 파견하였다. 중대장 야마무라 타다마사(山村忠正) 대위는 “西路 즉 공주가도로 분건하는 중대에서 파견한 1지대(1소대와 2분대)는 현재 홍주에 있으며 원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인천으로부터 바닷길로 牙山부근에 가서 洪州로 전진, 토벌지대와 협력해서 剿滅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받는다.³¹ 이때 “餘美場 海美縣 新禮院 禮山”을 경계하라는 지침도 받았다.

제6연대 6중대 병력이 아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홍주성전투는 동학농민군의 패배로 끝난 상태였다. 아산현감 양재건에게 들은 정황은 “28일, 29일경 동학도 수만 명(예산 해미 태안 서산에 모인 자)이 홍주를 습격했으나 당시 일본군대와 조선군사 약 2천여 명이 여기서 적을 격퇴, 적 수천 명을 살상”했다는 것이었다.

홍주에 들어가서 아카마쓰 소위의 지대와 만난 야마무라 대위는 서로군에 소속된 지대 병력은 공주로 보내서 서로군 본대와 합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6중대 병력만으로는 내포 일대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작전을 개시했다. 해미와 태안 그리고 서산 일대의 동학농민군은 야마무라 대위가 지휘하는 일본군에게 잔혹하게 살육이 된다.

6중대는 사이토(齋藤) 소위에게 명령해서 1개 소대와 민보군(지방민 의용병) 30명을 인솔해서 해미로 가도록 했다. “정보에 의하면 적이 해미 이북 서산과 태안에 집합해서 再擧하려는 것” 같기 때문에 이를 정찰해서 체포해오라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내포 일대의 동학농민군은 호된 보복을 받게 되었다. 해미로 간 사이토 소위는 12월 8일 오후 동학농민군 “대부분은 서산과 태안에 있다. 이 부근에 잠복해 있던 적 수백 명을 잡았다.”는 보고를 해왔다. 이들 중 50명이 살해되었다. 살해하는 방법은 끔찍했다. “2명을 참살하고 48명을 총대로 타살”했다는 것이다.³²

서산과 태안의 상황을 알게 된 야마무라 대위는 직접 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해미에서 돌아온 사이토 소위에게 1소대를 맡기고 홍주성에 체류하도록 했다. 만일 동학농민군이 내습해 오면 이를 격퇴해서 “홍주 이북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6중대 본대는 해미로 가서 “잠복해 있던 적 수십 명을 잡아 모두 홍주로 호송하였다.” 그리고 “오늘 이후 잡는 賊徒는 계속해서 그곳으로 호송할 터이니, 신속히 처형할 것을 목사

3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 (30) 洪州附近 東學黨征討 및 視察所見에 關한 山村大尉의 報告寫本 送付

32 위 자료.

에게 충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외로 걱정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명령을 내렸다.

(양)12월 10일 밤 서산에는 일본군 지대가 파견되어 동학농민군을 잡아오도록 했다. 홍주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집에 돌아와 있던 동학농민군은 도피하지도 못하고 잡혀왔다. 추위가 혹심한 때라서 산중에도 잠복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

이날 밤 9시 다음 인원을 서산으로 파견해서 그 읍을 둘러싸고 잠복해 있는 적을 잡게 하였다.

- 一. 하사 1명
- 一. 병졸 10명
- 一. 조선인 巡檢 金龍喜
- 一. 해미 義勇民兵長 金龍山
- 一. 해미 義勇民兵 20명

위의 인원을 파견한 이유는 해미로부터 서산을 거쳐 태안에 이르는 거리는 90리, 또 서산을 거치지 않고 태안으로 갈 때는 60리나 된다. 만약 서산을 거쳐 태안으로 갈 때는 길이 멀고 또 그 적들이 겁을 집어먹고 멀리 도주하거나 혹은 깊이 잠복해서 잡을 수 없게 되므로, 깊은 밤에 그들의 가택에 가서 잡게 하고 본대가 곧바로 태안에 진입하며, 가깝고 또 태안의 적도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오후 3시 본대는 태안에 도착하여 곧 각 요로에, 下士 또는 上等兵에게 병졸 5명 내지 10명씩 딸려서 길목을 지키게 하고 해미 의용민병을 教導로 해서 적 1백 명을 잡았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서산으로 파견했던 하사 이하(병졸과) 조선인 순검 金龍喜 등이 적 84명을 잡아 태안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철야 심문 끝에 首魁로서 사형에 처할 자를 결정했다.

이 6중대가 동학농민군을 살해하는 방식은 잔학하였다. 체포한 동학농민군을 ‘총대로 타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군의 보고에는 살해한 수가 30명라고 하지만 이는 믿기 어려운 수이다. 아마무라 대위가 홍주성에 1개 소대를 남겨둔 이유로서 든 것이 “현재 홍주성 안에는 적을 잡아 아직 처형이 결정되지 않은 자가 수백 명이 있다. 만일 우리 군대가 일시에 철수할 때는 어찌면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12월 10일 해미에 도착한 뒤 사이트 소위에게 보낸 훈령에는 다음 내용이 있다. “오늘 이후 잡는 賊徒는 계속해서 그곳으로 호송할 터이니, 신속히 처형할 것을 목사에게 충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외로 걱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육을 지시하고 서산과 태안에서 사로잡은 184명 이상의 동학농민군 중 30명만 처형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6중대는 덕산을 거쳐 인천으로 돌아갔는데 이들이 내포 일대를 순회하면서 동학농민군 근거지를 수색하고 체포 처형한 내용은 제대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지나치게 많은 학살로 인해 반감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희생자 수를 줄이는 사례는 후비보병 제19대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4. 경군 장위영 병대의 내포 지역 순회

죽산부사 이두황은 청주성의 구원요청에 따라 장위영 병대를 이끌고 청주로 갔다. 청주성에 도착했을 때는 남영병의 반격으로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였다. 이두황은 보은으로 직행해서 장내리에 들어가 마을 전체를 불살라버렸다. 그 뒤 충청병사 이장희의 요청으로 목천으로 직행해서 동학농민군 근거지를 점거하였다.

충청감사 박제순이 공주성이 함락 위기에 처하자 모든 경군 파견병을 공주로 집결하도록 했으나 이두황의 장위영 병대만 오히려 북상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두황은 병력을 내포지역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순회를 시작하는데³³ 이는 홍주성 패배 이후 동학농민군의 기세를 완전히 제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두황의 장위영 병대가 순회한 지역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33 『양호우선봉일기』 1894년 11월. “본진이 비류를 토벌하려고 지금 瑞山과 洪州 등지로 향하여 가다가, '적도가 벌떼같이 일어나고 개미같이 모였으며, 뱀처럼 서리고 지렁이처럼 엉켜 있으면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또 앞에 나타나 교란시키고 또 뒤에 나타날 염려가 있다'고 하니, 바라건대 모름지기 귀진은 별도로 계책을 베풀고 특별히 隊伍를 단속하며 기밀을 자세히 살피고 적의 정황을 정탐하시오. 따라서 적의 후미를 차단하고 뒤에서 聲援하는 형세를 취하는 일이 좋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표 3] 장위영 병대의 순회지역

날짜	장위영 순회지	날짜	장위영 순회지
11월 2일	天安	9일	洪州
3일	溫陽	10일	大興
4일	新昌	11일	公州 유구
5일	禮山	12일	公州 동천
6일	德山	13일	定山
7일	海美	14일	利仁
8일	海美	15일	魯城

장위영 병대가 전투를 벌인 지역은 해미가 유일하였다. 해미는 동학농민군이 반격을 피하면서 재집결했던 지역이었다. 이곳을 장위영 병대가 홍주성 전투 후 9일만에 다시 공격해온 것이다.

날이 아직 새기도 전에 위태롭고 험준한 곳을 넘어 바로 성 북쪽에 다다라 불의의 계책으로 기습하니, 적이 이내 계책을 잃고 허둥지둥 당황하여 달아났다. 後軍을 校洞에 주둔시키고 바로 수십 명의 군사로 하여금 성으로 돌진해 들어가 기치를 세워 우선 적의 기세를 꺾고 군사를 4군데로 나누어 보내어 패배하여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였다. 총으로 쏘아 죽인 자가 40여 명이고, 찾아내어 체포한 자가 100여 명이었다. 부녀자와 어린이들이 들을 뒤덮고 계곡을 메웠다. 몹시 고통스러워 부르짖으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지라, 측은한 마음이 들어 군사를 철수하여 성으로 들어갔다. 노획한 물건을 점검해 보니, 목천 세성산의 군수품보다 오히려 많았다.

홍주성으로 보낸 노획물이 세성산보다 많았다고 한다. 이것은 동학농민군의 근거지로서 해미성이 가졌던 중요성을 보여준다.

佛郎器 11좌, 대포 4좌, 子砲銃 22자루, 千步銃 10자루, 鳥銃 43자루, 창 85자루, 環刀 9병, 大鉦 3좌, 小鉦 3좌, 북 2좌, 砲丸 130개, 장전 4부, 납탄 6궤, 焰硝火藥 500근, 浸水器 8면, 水烟桶 4개, 말 8필, 나귀 5필, 소 52두

해미성에서 퇴각한 동학농민군은 서산 梅縣으로 갔다. 장위영 병대는 매현까지 추격해

서 공격하였다. 매산 공격을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달 초7일에 해미에 주둔하고 있는 적을 격파한 뒤에, 군수품을 책자로 만들어 이미 치보하였거니와, 그날 남은 적들 가운데 도망하여 달아난 자가 다시 그 고을 서북쪽 산기슭에 있는 옛 산성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성은 4면이 깎아지른 절벽이요, 가운데는 또 편편하고 넓어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한 곳입니다. 바로 2개 소대를 파견하여 -위쪽으로 돌진해가서 그 성을 격파하고 적을 쫓아냈습니다. 그 중에 풀음막 40여 곳이 있었고 흩어져 있는 무기가 매우 많았습니다. 또 일종의 남은 적당 400~500명이 성 남쪽 10리쯤에 있는 猪城으로 향하였습니다. 장차 그곳을 차지하고 수비할 것이기 때문에 또 1개의 소대를 파견하였습니다. - 뒤따라 추격하여 연이어 쏘아 죽이며 1개 진을 해산시켰습니다. 혹여 병사들이 피곤할까 염려되어 곧바로 철수하여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또 정탐한 자의 말에 따라 참령관 원세록이 대관 윤희영·이규식(李圭植)과 교장 이정진·양기영(梁基英)·최기성·홍선경(洪善敬)·김인길(金仁吉)을 나누어 별군관 윤지영·김광수(金光洙)와 함께 해당 1중대 병사를 인솔하여 서산 땅으로 가서 순찰하다, 하나의 큰 비적 소굴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서산 매현으로, 고개는 높고 가운데가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遠照鏡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깃발이 주변에 꽂혀 있고 적들이 가운데 모여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몰래 서산읍으로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황혼이 겨우 지나자 저녁밥이 다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혹 기밀이 새어 나갈까 염려되어 밥을 먹는 것을 잠시 미루고 바로 적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뜻밖에 나타나서 함성을 지르고 포위하여 총을 쏘아 대니 적들도 거세게 저항하였습니다. 나는 총탄이 뒤섞여 빗발쳤는데 대포를 자주 쏘다가 쉬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넉넉히 1시간쯤 지났을 무렵에 뜻밖에 賊陣에 쌓아 둔 화약에 불이 붙어 벼락 치는 소리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적들이 쏟아져 달려 나와 마치 좁쌀이 흩어지듯 달아났습니다. 이에 우리 군사들도 한동안 겁을 먹고 놀랐다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수백 무(武, 1무는 반걸음. 곧 3척)의 거리를 추격하여 흩어져 있는 병장기를 수습하고 다시 서산읍으로 돌아와 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전 군수가 피살당했던 곳을 찾아냈는데, 그곳은 읍내의 栗場村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모두 죽이고 이내 군사를 돌려 해미성으로 돌아오니, 새벽닭이 3차례 울 때였습니다. 접전할 때 쏘아 죽이고 칠혹 같은 밤에 길을 재촉하여 왔기 때문에 그 수효를 미처 셀 수 없었습니다. 포로들은 모두 옷 등 뒤에 적의 도장이 찍혀 있어서 전혀 의심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심문도 하지 않고 즉석

에서 총살한 자가 23명이었습니다. 그들 명단과 노획한 군수품은 정리하여 책자로 만들어 첩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홍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사관 아카마쓰 고쿠보(赤松國封)가 보내 온 공문에, '공주가 위급하니 각 부대를 모아 일제히 남적을 토벌하라'는 말에 따라, 아직 붙잡지 못한 이곳 나머지 적을 버려 두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행군하여 홍주의 읍에 이르러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하여 공주로 급히 갈 생각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서산쪽으로 가지는 않았다. 이두황은 당진·면천·서산·태안 등지에 동학농민군이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받았으나 공주성으로 즉시 오라는 아카마쓰 소위의 공문을 받고 홍주성을 거쳐 남하하였다.

5. 맺는 말

1894년 가을봄기 이후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서로군 지대와 제6연대 제6중대 그리고 경군 장위영 병대가 서산과 태안을 비롯해서 홍주와 해미 등지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과정은 치열하였다.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매우 컸던 까닭에 전투도 격심하게 전개되었고, 진압한 양상도 처절하였다.

홍주성에서 밀려난 동학농민군은 해미성 등에서 집결하여 재기를 모색하고 있었으나 다시 경군 장위영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서산·매현에서 마지막 항거를 시도했으나 결국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특히 야마무라 타다마사(山村忠正) 대위가 지휘하는 후비보병 제6연대 제6중대의 진압 과정은 잔인하였다. 체포하는 대로 수십명씩 타살하는 방법으로 제거했던 것이다.

충청도 내포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그 진압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 사례연구를 통해 일부가 정리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기포와 전개과정, 그리고 여러 전투와 해산 이후의 실상에 대한 조사 연구는 더 진전이 있어야 한다.

동북아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평화순례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의 전적지를 찾아서

일시: 2013년 7월 23일

장소: 충청도 일대

〈자료〉

日韓兩軍의 衝突과 日軍의 牙山進擊

1894년 7월 23일 王闕近傍에서의 日·韓兩軍의 衝突과 日軍의 牙山進擊

문서번호 機密第147號 (上野 二等領事), 機密第149號 (能勢 二等領事),

機密第150號 (內田 二等領事), 機密第151號 (永瀧 領事官補)

발 송 일 1894년 8월 5일 (1894-08-05)

발 송 자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수 신 자 元山·釜山·仁川·京城 領事

朝鮮의 내정개혁에 관하여 본관이 본국 정부의 훈령을 받들어 조선 정부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이미 통지한 바와 같거니와, 그 권고에 대하여 지난 달 16일 外務督辦과 내정개혁 협의의 위하여 파견된 위원 申正熙 의 3명으로부터 불만족스런 회답이 있었으므로, 본관은 드디어 강경한 수단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京釜 간 전신이 불완전하고 약정한 첫 번째 취지를 어겼음을 힐책하고 우리 손으로 그 가설에 착수하였습니다. 둘째로 조약에 따라 병영의 건설을 독촉하였으며, 셋째로 淸國이 속국 보호를 구실삼아 출병한 것은 조선의 자주독립권을 침해한 것이니, 만약 이것을 조선 정부가 방임할 때는 日·朝 條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하여 청군의 철수를 청구하였습니다. 넷째로 앞 조항의 이유에 의거하여 청·조 간에 체결된 水陸貿易章程, 中江通商章程 및 吉林貿易章程의 3개 조약의 폐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청군의 철수에 대하여서는 22일 중으로 결정해서 회답해 줄 것을 기한을 정하여 엄중히 독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날 밤 11시 넘어서 外務독판으로부터 우리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애매한 회답이 왔으므로, 즉시 이를 반박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병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불행한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울러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23일 오전 3시경 보병 1개 연대 포·공병 약간을 남문·서문으로 출동시켜 王宮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더니, 조선군이 먼저 발포하여 이에 항거하였으므로 우리 군대도 이에 응전하여 곧 왕궁으로 쳐들어가 대항하던 조선군을 축출하고, 국왕·왕비 및 세자궁을 보호하여 모시고 그대로 왕궁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 정부에서는 당일의 사변 때문에, 閔泳駿을 비롯하여

권력을 쥐고 있는 민씨 일족은 종적을 감추고 대원군이 그날 입궐하여 바로 정무를 집행하고 개혁파를 등용하여 정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軍國機務會議를 만들어 매일 개최하여 대소의 정사는 이 회의에서 결의하여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밤낮 쉬지 않고 개혁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산에 주둔하고 있는 청군을 철수시키는 일에 관해서도, 지난달 25일 조선 정부로부터 외무독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代辯해 달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훈령을 받들어, 같은 날 大鳥 旅團長이 대군을 이끌고 출발하여 지난달 29일 忠淸道 成歡驛 (중요한 요지로 淸軍이 이곳에 근거를 두고 胸壁을 축조하여 수비가 엄중하다고 한다) 에서 양군이 격전 끝에 일본이 큰 승리를 거두고, 즉시 진군하여 아산으로 갔더니 청군은 이미 도주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거지를 모두 평정하고 이달 1일 旅團長 이하 그 곳을 출발, 개선의 길에 올라 오늘 京城에 도착하였습니다. 단 개선과 환영의 경황은 뒤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아산과 성환으로부터 도망친 청군의 대부분은 충청도 洪州로 향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정보에는 淸將 葉氏가 부하의 병력 약간을 인솔하여 雙樹山城에 웅거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1894년 8월 5일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元山·釜山·仁川·京城 領事 앞

그 후의 보도에 의하면 淸軍 약 2,500명이 지난 3일 충청도의 槐山에서 일박하고 4일 公州 남쪽 30리 되는 靑山이라고 하는 곳에서 점심밥을 먹었으며 어젯밤에는 淸風에서 일박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첨부하여 말씀드립니다.

○ 機密第754號 艦隊司令長官 伊東佑義 殿

英國商船 高陞號 擊沈事件

英國商船 高陞號 擊沈事件¹

豊島 앞바다 海戰時 帝國軍艦 浪速이 淸國 政府가 고용한 英國 商船 高陞號를 격침한 사건은 開戰 전에 淸나라 정부를 위해 병사와 무기를 탑재한 局外國의 운송선이었다는 이유로 장차 日·英 兩國 間에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형세를 발생시켰다. 이 때문에 陸奧 外務大臣은 日本駐劄 英國代理公使를 招致해서 고하기를, 제국 군함 浪速이 高陞號를 격침시킨 사실을 인정하며 또한 후일 本件에 관한 전말을 심사해서 만약 제국 군함 浪速의 행위가 정곡을 잃은 점이 있다면 제국 정부가 상당한 보상을 해주는 데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7월 29일 法制局長 末松謙澄에게 다음과 같이 訓令하였다.

一. 이번 朝鮮 牙山 입구에서 격침한 운송선은 그 船名을 무엇이라 칭하며 淸나라 선적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나라 선적에 속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것.

一. 그 배의 噸數 船質 속력 및 製造年월.

一. 타고 있던 선원의 총인원수 및 그 국적.

一. 그 배에 타고 있던 군인수 및 무기의 수량.

一. 타고 있던 서양인의 성명 직무 및 연령.

一. 출발한 장소 및 그 행선지.

一. 출발 연월일시.

一. 침몰시 사망한 인원수 및 생존 인원.

一. 그 배는 淸나라 정부에서 새로 구입하고도 아직 旗章을 바꾸지 않은 사이에 격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것.

이 밖에도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한 모든 사항을 가능한 한 세밀히 조사해 주기 바라여 이에 訓令함.

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권 국역.

이상과 같은 훈령을 부여하고 고승호 침몰시 제국 군함 낭속이 원조한 그 배의 선장과 일등항해사 2명(영국인), 按針手 1명(스페인인) 및 제국 군함 秋津洲가 포획한 청나라 군함 操江의 함장 이하 승무원 약 50명, 군함 八重山으로 제국 해군근거지로부터 佐世保에 송치한 자들에 대해 그 전말을 조사시켰다.

末松 법제국장은 고승호 승무원 및 청나라 군함 조강에 편승하고 있던 덴마크인을 조사하여 고승호 선장에게는 一鎊 2,000원, 일등항해사에게는 일금 1,500원, 按針手에게는 일금 800원을 惠與해 주었다. 그리고 8월 4일 부상한 안침수를 제외한 선장 등을 佐世保鎮守府 관할 하에 있는 소증기선으로 長崎로 보내 석방하였다. 末松 법제국장의 조사시말서는 다음과 같다.

제국 정부는 末松 법제국장의 조서에 의거해서 군함 낭속의 행위가 정당행위였음은 한점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영국 정부는 아직 그것의 상세한 내용을 들어 보기도 전에 우선 8월 3일 英國駐在 青木公使에게 書面을 보내 말하기를, “고승호 침몰에 관해 아직 상세한 보도를 접하지 못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 책임을 저야한다. 이 뜻을 미리 통고한다.”라고 하여 자못 제국군함 낭속의 행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青木 공사는 공사관에 고용된 외국인 씨볼트에게 비공식적으로 영국 외무차관을 면회시키고, 제국 군함 낭속의 행위에 대해 제국 정부가 조금도 책임질 이유가 없음을 변론케 하였다. 다음에 그 문답을 기록한다.

1894년 8월 7일 바론 알렉산더 씨볼트와 발치 氏의 대화 요지

「시」 본인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별반 통지드릴 일이 없다. 그러나 다만 貴官께서 무엇인가 본인에게 들려주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여 방문하였다.

「발」 본인은 일본의 승리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새로운 통보나 확실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 (되는 승리라는 말을 할 때 약간 의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이때 씨볼트는 발치의 손에 있는 조선 지도를 목격하고 現代戰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지시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산의 본영 즉, 청나라의 최초 지위는 현재 빼앗겨 조선 남부에서 淸軍은 潰散했으므로 京城 근방에서의 전쟁은 사실상 끝났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발치는 킴벌리卿이 영국 선박 고승호 침몰사건에 관해 青木 자작에게

보낸 서한으로 화제를 돌렸다.

「시」 그 서한에 대해서는 本人도 들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으로는 영국 외무성이 그 서한에 대한 충분한 회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의 사건은 참으로 불행한 사변이며 본인도 개인적으로는 그 조난자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군사상 특히 國際公法上的의 관점에서 관찰해 보면 영국 외무성이 품고 있는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다음과 같다. 즉, 청나라 정부가 1885년에 체결한 조약에 따라 출병시킬 권리가 있는 장소인 조선에 청군을 운송하려 한 영국 선박을 일본의 巡洋艦이 침몰시킨 것이며, 일본인은 이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청나라의 출병을 방해할 권리는 없다.

「시」 전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귀관은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즉, 東京駐在 英國代理公使가 일본 정부에 통지한 바로는 청국 정부가 이번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최종적인 제의를 하였을 때 일본의 默諾으로는 6월 20일까지 꼭 분명한 언질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당일 또는 그 이후가 되어도 아무 말 없으면 청나라 정부는 조선에 출병을 시작하겠다고 明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곧 최후통첩(ultimatum)이 아니겠는가.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병을 통지하는 것은 수일 후에는 交戰을 개시하겠다고 강박 또는 선언한 것이 아니겠는가. 歐洲 諸國 정부에서는 모두 그와 같은 해석을 내릴 것이다.

「발」 혹은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도 역시 그 대안으로 청나라에게 겨우 5일간의 여유만 주고서 그 결심을 재촉하였다. 그러니 『최후통첩』은 역시 일본 쪽에서도 나온 것이다.

「시」 『최후통첩』을 낸 것이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는 논할 바 없다. 본인이 여기서 증명하고자 하는 바는 오직 『최후통첩』이 어떻게 간에 한 쪽에서 제출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기한이 지나면 조만간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직 개전의 선고를 한 것이 아니다.

「시」 그것을 본인도 시인하는 바이지만 근세의 國際公法 학자 특히 영국의 국제공법 학자의 설에 의하면, 정식 宣戰은 할 필요가 없고 단지 국경으로 진군할 의사의 표명만으로 충분하다. 귀관도 틀림없이 기억할 것이다. 1870년 普佛戰爭 개시에 있어서 베를린 駐在 佛國代理公使로부터 비스마르크에게 제출된 書翰에는 단지 프랑스 정부는 그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개진하였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이보다 한층 정중한 수속절차를 집행하였고 영국 공사에게 의뢰해서 청나라 정부에 통지한 것은 청나라가 이상 더 군대를 증발하게 되면 일본 정부는 이를 恐□

로 간주하고 즉시 교전행위로 생각하는 것이 판연하다고 하였다 한다.

「발」 그렇지만 전쟁은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시」 그렇다. 고승호가 낭속함에 의해서 停船 당했을 당시에는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그 후 數分 뒤에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제원호가 낭속함을 향해 水雷를 발사하였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 水雷發射가 교전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발」 확실히 그렇다. 그렇지만 이 일은 아직 증거가 안 된다.

「시」 본인은 낭속함이 발포하는 것을 삼가고 있을 때 제원호에서 第一砲를 발사한 것이 틀림없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제원호는 休戰旗를 게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휴전기를 게양한 것은 매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 旗를 방패삼아 적에게 접근하려는 詭計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일은 여기서 상관없다.

「발」 청나라 巡洋艦이 발포한 것은 낭속함이 그 운송선을 정선시켰기 때문이다.

「시」 이 운송선은 영국 아니면 청나라의 선박이다. 만약 귀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선박이 영국 선박이었다면 청나라 군함이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영국 군함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에 그 운송선이 청나라의 선박이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청나라 군함이 이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영국 정부가 지금 불만을 주장할 이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 운송선은 영국 선박이든가 청나라 선박이든가 양자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으며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만약 그 운송선을 영국 선박이라고 가정한다면 청나라 군함이 발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발」 그 선박은 영국 선박이며 귀하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선박을 정선시켜도 청나라 군함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발포를 개시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낭속함은 그 영국 선박을 정선시킨 것이다.

「시」 그렇다.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 순서에 따라 이 사변을 논의해 본다면 귀관도 낭속함의 거동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다고 양해하게 될 것이다. 日淸 間의 戰端은 제원호의 소행으로 인해서 열렸고 그 때부터 전시의 법률이 실제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하면 交戰國은 戰時 禁制品을 운송하는 중립국의 선박을 억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병사와 軍器가 전시 금제품이라는 것은 귀관도 인정할 것이라 믿는다.

「발」 물론이다. 그렇지만 그 선박을 침몰시켜 그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익사시킬 필요는 없다.

「시」 그 일은 나중 문제에 속한다. 戰端이 이미 열리고 낭속의 함장은 보트를 보내서 同艦으로 따라 오라는 명령을 고승호에 전달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낭속 함장은 고승호를 포획물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제공법이 인정하는 바이다.

「발」 그렇지만 그 선박을 침몰시킬 필요까지는 없었다.

「시」 이 역시 나중 문제에 속한다. 낭속 함장이 따라오라는 명령을 고승호에 전달했을 때 그 선장은 명령에 순종했다. 그런데 청나라 사람들이 항복할 것을 거부하고 이를 방해했다. 폰 한네켄 氏와 겔스위시선장 및 낭속 함장이 증언한 것으로 보아서 고승호의 선장은 이미 그 선박의 지휘권을 상실하고 완전히 청나라 사람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 명백하다. 淸人은 선장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가 보트를 내리는 것을 방해했으니 이는 곧 법적으로 말해서 그 선박을 약탈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선박은 비록 영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벌써 영국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표자인 선장이 이미 그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은 이 배에 타고 있던 청나라 병사 자신이 했든가 또는 그들의 장교의 명령으로 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말해서 그 선박은 해적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 되고, 후자의 경우라면 청나라 皇帝陛下의 군대가 일본 정부와 청나라 정부와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그 시점에서 그 선박을 탈취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낭속 함장이 그와 같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아주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즉, 적의 군대가 승선해서 그 적의 소유가 된 선박의 저항에 부딪치어 이기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것이다.

「발」 그렇지만 그 선박을 격침시킬 필요까지는 없었다.

「시」 이 점에서도 역시 私情과 公法の 구별을 해야 한다. 만약 그 낭속 함장이 그 밖의 별도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었다면 그 함장에게 조금도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것이 없다. 만약 또한 본인이 믿는 바와 같이 그 함장이 동반한 군함은 청나라 순양함을 추격하면서 항진 중이었으며 어느 때 우세한 청나라 해군에게 습격 받을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때 일순간도 시기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가 동반하는 군함에 잇따라 항진해야 함은 낭속의 의무였다. 게다가 낭속은 청나라 군함으로부터 매우 난폭한 공격을 받아서 거의 자신이 침몰당할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 적함이 쏜 榴彈이 기관실을 맞추어 만약 이것이 파열하게 되면 낭속의 운명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발」 그렇지만 바다 속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발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 이 일에 대해서는 그 후의 보도로써 명백해졌다. 「한네켄」 氏의 최후 진술에 의하면 무장한

일본 보트가 침몰 중에 있는 선박을 향해 발포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귀관께서도 그 선장의 진술서를 읽어보아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오직 청병이 水中에 있는 歐洲人에게 발포하였기 때문이다. 즉, 일본인은 이들 구주인을 구조하려고 출동하였고 격앙한 청병을 대항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영국의 대중이 오류에 편파된 전파 때문에 시종 현혹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이들 정보는 모두 上海나 天津으로부터 왔다고는 하지만 대개는 영국에서 조작된 것임을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는 바이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수중에 있는 구주인이 포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수중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나오려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사격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보도로는 사격받은 것은 침몰하고 있는 선박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서 어느 것이나 모두 서로 모순된 보도를 하고 있다. 게다가 폰 한네켄 氏는 청나라에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을 공평하고 중립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 그 선장과 일등선원이 진술하는 어느 것에 대해서도 진실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해로운 보도를 하는 자 중에서 이미 이들이 진술한 것은 강박에 못 이겨 한 것이며, 그 영국 선박의 선원은 일본 관리에게 囚人으로 구류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으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주 가까운 항구인 佐世保로 끌려가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한 뒤 長崎로 보내졌다. 新聞紙上에서 떠들어대는 것 같이 영국 해군사령관이 그 인도를 요구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발」 우리들은 아직 그러한 말을 들은 바 없다.

「시」 아마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흡사 일본인에 대해 고의로 世論을 격앙시키기 위한 사건일 뿐이다. 본인은 정치가가 이러한 경우에 처해서 허심탄회한 판단력을 잃지 않기를 오직 희망할 뿐이다.

「발」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모두 믿지 않는다. 오직 상세한 보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자 한다. 그러나 본인은 낭속은 결국 영국의 선박을 억류할 권리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귀하는 트렌트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거의 미국과 戰端을 야기할 뻔했다.

「시」 트렌트사건은 이 사건과 판이하다. 그 이유는 당시 美國 군함은 영국의 郵便汽船을 억류하고 南方의 외교사절 數名을 체포했다. 그리고 미국인은 외교관 혹은 파견위원을 가리켜 戰時 禁制品이라 하였는데 이 일은 진실로 無法에 속한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의 불만을 사게 되었던 것이다.

「발」 본인은 은밀히 귀하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이번 영국 선박 침몰사건은 대단히 부당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실로 우매한 사건에 속한다.

「시」 본인도 귀하와 같이 이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변명하고 현 시점에서 역시 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論談할 만한 사실로 간주해도 만약 영국이 겨우 일개 관리 때문에 일본에 대한 交誼關係를 변경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영국이 조약개정을 해서 창설 중에 있는 대사업이 이 때문에 破却될 것이고 귀관들께서 일본에 주었던 公明한 양여의 결과는 모두 없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국을 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 일본은 영국을 일본에게 있어서 그 주권을 속박하는 압제적인 조약에서 벗어나게 한 『救濟主』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 국민 일반이 감사하는 점이라고 하기에는 아마 좀 큰소리치는 것이 되겠지만, 이들 국민 일반의 감정이 완전히 영국으로 쏠리고 있는 점은 귀관도 인정할 것이다. 李鴻章은 『亞細亞는 亞細亞人の 亞細亞이다』라고 하는 취지로써 일본과 합세 협력해서 西洋 諸國에 맞서려고 다년간 획책하여 열심히 일본을 유인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것은 아마 李鴻章에게 歐洲하고만 친해지려고 작심한 것처럼 보이는 일본에 대한 嫌忌를 증가시켰을 것이다.

「발」 그렇다면 일본이 그와 같은 방침을 취한 연유는 무엇인가.

「시」 그 연유는 오직 일본인은 淸人이 뜻하는 바나 주의에 대해 조금도 신용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西洋 諸國에 반대하는 排外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와는 결코 협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외교정략을 조금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의 조선사건에서 그 본색이 들어났다. 따라서 高陞號 사건 같은 것은 그 談判을 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영국의 상책이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일본에서 얻고 있는 영국에 대한 호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영국과의 親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종류임을 가리지 않고 주저 없이 행하겠지만, 國威를 손상시키는 것 같은 일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발」 그렇다면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시」 보상금문제는 권리문제로서 이를 논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본인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지금 여기서 그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곤란한 문제는 괴로운 논의를 하지 않고 우정어린 방법으로 낙착 짓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발」 그렇지만 귀하가 위의 의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구하는 점을 낙착시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시」 그것은 그리 쉽지 않다. 만약 영국 해군장관이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

을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본인은 그들도 완전히 이와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발」 그럴 것이다. 영국인은 이러한 경우에 그 잘잘못을 묻지 않고 영국 해군장관을 비호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낭속 함장이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면 일본은 그 함장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귀하에게만 말해 둔다.

「시」 본인은 영국 정부가 그 관리에게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도 그를 비호할 것 같으면 일본 정부가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여튼 차차 증거가 來着하는데 따라 본건은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발」 하여튼 영국 정부는 본건에 관해서 당분간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본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흡족하고 충분한 상세한 보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 김벌리백작이 보낸 서한에 회답건으로 얼마간의 대답을 한 후 면담을 끝냈다.

요컨대 영국 정부는 長崎에 海事裁判所를 개설, 고승호 승무원을 소환해서 심문케 하고 그래도 아직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면 上海에 있는 海事裁判所를 開廷케 해서 충분히 심의케 한 후 공식적으로 제국 정부에 조회하려고 하는 것 같다.

末松 법제국장의 조사시말서에 나오는 고승호 승객 1명이 독일인이라는 것은 바로 청나라 정부에 고용된 독일인 한네켄²이다. 이 사람은 그 선박이 침몰할 때 익사를 면하고 仁川에 있는 영국영사의 심문을 받았다. 지금 그 심문에 답한 진술서를 보아도 역시 제국 군함의 행위가 정당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아래에 그 진술서³를 기록 하겠다.

2 1855~1925. 독일 장교. 베를린 주재 淸國 공사관 초청으로 천진으로 가서 淸軍 敎官 겸 직예총독 이홍장의 副官 역임. 여순 포대의 건축설계. 고승호에 승선해서 조선 아산에 파견되었으나 일본 군함에 피격되어 구사일생.

3 이 진술서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권 「淸運送船 高陞號 격침과 便乘한 獨逸人 한네켄 氏의 筆記寫本入手」 에도 실려 있다. 이 문서는 大鳥 特命全權公使가 陸奧 外務大臣, 伊東 聯合艦隊司令長官에 보내는 것으로 필사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며칠 전 牙山 앞바다에서 우리 군대에게 격침된 淸國軍 운송선 高陞號에 便乘하고 있던 淸國陸軍 雇用教師인 獨逸人 한네켄 씨는 다행히도 이 배가 침몰할 때, 부근 도서로 헤엄쳐 나와 조선 배를 빌려서 지난 28일 仁川에 도착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 英國 副領事의 물음에 답해서 진술한 필기사본을 입수하였기에, 참고로 別紙와 같이 사본을 작성하여 드리오니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고승호는 7월 23일 1,220명의 승선자와 대포 12문 기타 소총과 군수품 등을 탑재하고 太沽를 출발하여, 같은 달 25일 아침 프린스 제롬灣 밖인 朝鮮 群島 근방에 도달했다.

이때 뱃머리 右舷에서 대형 군함을 목격했다. 이 군함은 서쪽(대체로 폴트 마이살 방향)으로 疾驅 중이었으며 청나라 군함 靖遠을 닮은 形의 배로 보였다. 이 군함은 우리 배에서 먼 거리를 두고 항진하였으며 끝내 그 종적을 감추었다. 7시쯤 뱃머리 左舷에서 인천 방향으로 돛을 올리고 항진하는 배를 한 척 발견하였다. 그 배가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 배의 船首(혹은 船尾)를 가로질러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 배는 아산을 향해 항진했다.

8시쯤 豊島 배후에서 항진해 오는 대형 군함을 발견했으며 10분쯤 지나 먼저 한 척, 이어서 두 척(즉, 합해서 세척)의 巨艦이 그 섬의 배후에서 항진해 오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 배는 우리들이 보기에 모두 굉장히 큰 鐵甲艦이었다.

9시쯤 그 군함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군함에 일본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고 그 국기 위에 白旗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군함은 속력을 내서 우리 배를 향해 항진해 왔고 우리 배 앞을 지나갈 때 그 旗를 기울여서 경의를 표했다.

이 때 그들 諸船艦의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p>一. 高陞號 二. 日本國旗와 白旗를 게양한 軍艦 三. 操江號 四, 五, 六. 다른 軍艦</p>	<p>[참고] 「淸運送船 高陞號 격침과 便乘한 獨逸人 한네켄 氏의 筆記 寫本入手」 (『駐韓日本公私記錄』 1권 국역) 출처 이미지 도식화.</p>

여기에서 먼저 본 돛을 올리고 항진 중이던 배가 조강號이었음을 알았다. 이 배는 이때 돛을 내리고 威海衛를 향해 물러갔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강대한 일본 함대를 만나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중 한 척의 배가 우리 배를 향해 그 旗를 기울여 신호했으므로 그들이 별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리라 확신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함대가 조강號를 뒤쫓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앞의 그림에 있는 제4, 제5, 제6은 모두 일본 군함이며 항진중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4의 일본 군함이 신호를 보내 공포 2발을 터뜨려 우리 배에게 停船하여 닻을 내리라는 신호를 했을 때 우리 배의 위치는 다음과 같았다.

<p>一. 高陞號 二. 日本國旗와 白旗를 게양한 軍艦 三. 操江號 四,五,六. 다른 軍艦</p>	<p>[참고] 「淸運送船 高陞號 격침과 便乘한 獨逸人 한네켄 氏의 筆記 寫本入手」 (『駐韓日本公私記錄』 1권 국역) 출처 이미지 도식화.</p>

우리 배는 그 신호에 따라서 닻을 내렸다. 이때 다시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었다.

“그 위치에서 정선하라.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책임을 져라.”

그리고 제4의 일본 군함은 우측으로 돌아 제6의 군함과 함께 항진중인 제5군함에 접근했다. 추측컨대 이는 우리 배가 청나라의 운송선인 것이 분명했지만 영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런 다음 제4의 군함이 우리 배를 향해 왔으며 그 艦의 모든 포문을 열고 대략 4분의 1마일이 되는 거리에 停船하여, 보트에서 내려 우리 배를 향해 왔다. 우리 배에 타고 있던 淸兵 司令長은 나에게 고해 말하기를, “우리 병사를 적의 포로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 바다 속으로 수장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선장에게 통고할 것을 요구했다. 청나라 병사들이 감정을 매우 격양시키고 있는 상태이어서 나는 이들을 진정시키고 담판 중에는 船上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키기에 큰 곤란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선장인 겔스워시에게 청군 사령장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의 보트가 우리 배에 도착하고 士官 몇 명이 배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들이 타고 온 보트에는 수병들이 소총과 刀劍을 갖추고 있었다. 일본 士官은 선장실에 들어갔으며 선장은 배의 서류 등을 보이고 실제로 영국의 선박임을 증명했

다. 여기에서 선장은 일본 군함을 따라 와야 한다는 한 마디 말을 들었다. 나는 이 면담 현장에는 없었으며 이 면담에 앞서 나는 선장에게 만일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나를 부르라고 말해 두었다. 이때 나는 사령장과 병사들을 진정시키는데 전념하였다. 나는 일본 보트가 오기 전에 선장과 협의해서 선장이 출발 항구인 太沽로 귀환하기를 요구하기로 미리 말을 정해 두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항구를 출발하기 전에는 아직 선전포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士官의 담판은 선장 잭스워시에게 어떠한 요구도 관철시킬 여유를 주지 않았고 이미 벌써 일본 군함을 따라올 것을 명했던 것 같았다. 또 나는 일본 士官이 떠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명령을 전해 들었다.

선장 잭스워시는 그 담판의 결과를 나에게 말해 주었다. 내가 이 말을 청군 사령장에게 통역해 주자, 사령장을 위시해서 청나라 병사 사이에 대소요가 일어나 검과 소총을 겨누면서 선장과 선원들은 물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구주인을 위협하고 선장이 명령에 따라 닻을 올리고 따라가려 할 때는 모두 살해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다시 이 소요를 진정시키는데 진력하였고 또 선장에게 말해서 담판을 위해 보트를 보내달라는 신호를 게양케 하였다. 그러자 보트가 곧 도착했으므로 나는 내 자신이 트랩 입구에 나가 일본 士官과 담판하려 하였다. 배안에는 병사들이 총검을 휴대하고 군집해 있었으며 일본 사관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 줄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틀림없이 그를 살해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 사관을 감히 배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었다.

일본 사관은 오른손으로 칼 손잡이를 잡고 트랩에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고해 말하기를 “선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박을 당해 貴命을 따를 수 없다. 배안에 있는 병사들은 선장이 귀명에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령장과 병사들은 그들이 출발해 온 항구로 귀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장과 나의 생각으로는 이미 선전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배는 본시 평시에 출발했으므로 이와 같은 요구는 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나는 일본 사관이 나의 말을 이해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일본 사관은 이 말을 사령관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하고 떠나갔다.

그 보트가 일본 군함에 도달한 후 우리들은 얼마동안 그 회답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다음과 같은 신호를 접하게 되었다.

『서둘러 배를 떠나라.』

이 신호는 오직 배에 타고 있는 구주인과 선원을 위해 발신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만 이 권고에 따를 틈이 없었고 또한 대개가 이에 따를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이 때는 이미 淸兵들이 모든 船架를 점령하였다. 이에 이르러 선장 잭스워시는 다음과 같은 신호를 게양했다.

『우리들은 배를 떠나는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 군함은 이 신호에 대해 회답하는 旗를 게양했을 뿐, 우리들에게 그들의 의사가 어떻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일본 군함이 운전을 개시해서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 배의

右舷 정면 대략 150m되는 거리에 도달했을 때 운전을 멈추었다. 여기서 나는 그 艦의 水雷口로부터 수뢰가 튀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 다음 곧 6개의 포문을 열었는데 수뢰가 우리 배에 도달하기 전에 굉장히 큰 소리의 포성이 두 번 일어났다. 그리고 수뢰는 우리 배의 중앙인 석탄창에 적중했고 백주대낮이 순식간에 어두운 밤으로 되어 炭粉 · 木片이 翻浪하는 파도와 섞여 하늘 높이 치솟았다. 여기서 우리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쳤다. 헤엄을 치고 있는 사이에 나는 우리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보았다. 船尾가 먼저 침몰했다. 이 사이 발포가 계속됐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도 살아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안 배위의 병사들은 분연히 포격에 대항해서 총을 쏘았다. 나는 일본 군함에서 보트를 내리고 다수의 병사를 태우고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 배의 殘兵들을 구조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믿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았다. 보트에 타고 있던 병사는 침몰하고 있는 배위의 잔병들에게 사격하였다. 나도 바다 속에 있던 한 사람으로 일본 군함과 침몰선의 병사로부터 저격 받은 것은 사실이다. 대개 침몰선의 병사가 저격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면치 못할 바에야 동포도 역시 살려 둘 수 없다는 잔인한 생각에 기인한 것 같다. 고승호는 水雷가 발사된 후 대략 반시간쯤 해서 완전히 침몰하였다.

고승호는 한 가닥 행운을 맞이할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다. 즉, 그 현장에서 停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지리는 신호를 해 왔을 때, 닻줄을 풀고 다시 詭計를 써서 걸으려는 일본 군함의 명령에 따르는 듯하고 나중에 섬 배후로 도망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선장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선장과 役員들은 그 배에 틀림없이 英國旗가 게양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 능히 보호받을 것이며 감히 적대행위를 받지 않으리라 확신한 나머지 그와 같은 禍를 초래하였다. 그 배의 역원과 병사 모두 이 화를 입게 되었음은 내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단,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병사 중 수영하여 그 생명을 보전한 사람은 겨우 170명 정도에 불과하며 그밖에 구주인으로서 무사히 육지에 도착한 사람이 있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콘스탄틴 · 폰 · 한네켄(自署)

1894년 7월 30일

이상은 나의 면전에서 스스로 서명하였다.

在濟物浦 英國 副領事 W.H. 윌킨슨

이렇게 해서 在長崎 영국 海事裁判所는 고승호 승선원이 제국 정부의 조사를 받은 다음 석방되어 長崎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 8월 4일 영국 영사관에서 재판관을 열고 다음과 같은 심판 및 선고를 하였다.

고승호는 락구드 스쿠나形 裝鐵船으로 등록 톤수는 1,355톤, 공인번호는 7,000번이고 바르르인화루니스에서 제조되었으며 船籍은 런던 항에 속해 있다.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사실이 이상과 틀림없는 것 같다. 本船은 조금도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고 단지 淸兵 1,100명을 태우고 조선 아산으로 향해 7월 23일 혹은 그 무렵 太沽를 출발하였다. 7월 25일 아침까지는 만사 이상이 없었는데 오전 9시경에 이르러 일본 군함 낭속으로부터 停船 投錨하라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豊島에서 대략 北東방향에 있고 그 거리는 그 섬에서 대략 4분의 1해리 떨어진 수심 11尋(1화승은 6²으로 대략 우리의 1尋에 해당함)이 되는 장소에서 이 신호에 복종하였다. 낭속함은 보트를 사용해서 두 번 고승호와 교섭했고 고승호의 역원에게 그 배를 떠나라고 명령했지만, 청병은 역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이 교섭이 끝난 오후 1시경에 이르러 낭속함은 고승호를 향해 수뢰 한 발을 발사했지만 적중하지 않았으므로 側砲 5門을 발사, 이어서 갑판과 포탑에 있는 기계포와 대포를 연발하여, 대략 1시간이 경과하여 고승호가 침몰하기에 이르기까지 발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포격이 시작되자 승무원과 淸兵 약간 명이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중에서 선장 토머스 라이더 겔스워시, 一等運轉手 휘에스 헨리 덤블링과 按針長 리니아스 에간세리스타(마닐라인)은 승무원 중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다.

이 재판소는 전기한 일의 상황을 조사하여 적어 그 判定 조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1. 고승호는 충분히 항해하기에 적당했고 또 필요한 여러 조건에서 완전했었다고 인정한다.
2. 고승호의 침몰 전과 침몰될 때까지 역원과 승무원의 행위는 만족스러웠고 비난할 만한 흠은 없었다.
3. 침몰한 원인은 일본 군함 낭속이 행한 포격에서 비롯되었다.
4. 선장과 그 승무원들로서는 이 재액을 면할 수단이 없었다.
5. 이 재판에서는 선장 토머스 라이더 겔스워시와 역원 및 승무원에 대해서 비난할 점이 아무 것도 없다.

6. 이 재판에 든 비용 6파운드 4실링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1894년 8월 7일

長崎에서

재판장 英國領事 존·아이·구인 署名
케푸 요르구號 선장 존·밋첼 署名
도루메란號 선장 토마스·이·카우엘 署名

더욱이 上海에서 영국 해사재판소를 개정하고 재차 고승호 선장 등을 신문한 끝에 제국 군함의 행위가 정당하였다고 선고했다. 또한 열석한 審判者 영국 해군제독은 그 배의 격침은 정당했었다고 생각하므로 일본 정부에 대해 아무 요구도 하지 말 것을 본국 정부에 권고하는 전보를 보냈다 한다. 그 후 영국 정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 고승호 격침에 관한 어떠한 일도 제국 정부에 조회해 오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면 추측컨대 영국 정부도 역시 제국 군함 낭속의 행위를 시인하는 것 같다.

일설에 의하면 인도차이나 기선회사는 그 所有船인 고승호가 아직 太沽를 출범하기 이전에 청나라 정부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하였다.

『청나라 정부는 在天津 香港 上海銀行에 英國貨 4만 파운드를 예치하고 만일 선전포고를 진후해서 고승호의 잘못이 생길 때에는 회사에서 이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특히 영국 정부가 청나라 정부에 대해서 교섭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전하나 그 확증은 얻지 못하므로 여기에서는 잠시 의문점으로 남겨두고 후일의 참고로 하려 한다.

[高陞號 引揚 件]

발송일 1895년 1월 15일 오전 11시 50분 발신 (1895-01-15)

발송자 公使 井上 수신자 廣島 外務大臣 陸奧

高陞號 引揚에 관한 日·英人간의 논쟁이 일어난 것은 일본인이 그 인양에 착수한 것과 동시에 영국인도 이에 착수하면서 일어난 것임. 그 결과 쌍방이 다같이 仁川에 와서 협의한 끝에 계약을 체결하고 領事에게 인가를 신청하게 된 것임. 그들의 목적물은 船體 그 자체가 아니며 그 속에 있는 金인 것임. 그리고 위의 계약에 따르면 인양한 金의 6할은 은행에 예치하고 그 4할은 쌍방간에 나누기로 되어 있음. 현재 船籍은 영국으로 되어 있다지만 그 金은 우리가 총칼로 적의 손에서 떨어뜨린 것이므로 우리의 소유라 해도 좋을 것 같음. 이에 관계한 영국인이 그들 총영사에게 품의를 올렸지만 그 영사도 회답하기가 난처하여 우리 영사 永瀧에게 의견을 물었음. 그러나 우리 영사도 회답을 회피하고 이 일에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는 바임. 그러나 이를 이대로 내버려두고 있으면 그들은 그대로 인양할 것이 틀림없으며 일본인 쪽만 인양을 못하게 한다면 그 전리품은 전적으로 영국인 손에 들어갈 것임. 이 일을 이대로 방치해 둘 작정인가.

[자료]

豊島 앞바다에서의 海戰狀況 및 朝鮮政府의 依賴에 따른 在牙山 淸兵의 驅逐 및 日·淸兩國의 宜戰 詔勅 公布의 문제

豊島 앞바다에서의 海戰狀況 및 朝鮮政府의 依賴에 따른
在牙山 淸兵의 驅逐 및 日·淸兩國의 宜戰 詔勅 公布의 문제

帝國의 세력이 점차 朝鮮에 신장하는 경향이 나타나자 淸國 정부는 일찍부터 이미 교전하기로 뜻을 굳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속 군대를 牙山과 義州 방면으로 증파하였다는 警報가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우리 육해군도 역시 크게 결의를 한 바 있었으나 아직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英國과 이탈리아의 조정도 있고 해서 한층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국과 이탈리아의 조정을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청나라 군대의 거동을 관망하고 있었다. 이즈음 조선 연해를 정찰하기 위해 순항하던 우리 吉野·浪速·秋津洲 3군함은 7월 25일 오전 7시경 조선 豊島 앞바다에 있는 쇼바이올島 근처에 이르렀다. 이때 홀연히 2척의 군함이 南陽灣 쪽으로부터 우리 군함을 향해 다가왔다. 그것은 청나라 군함 濟遠과 廣乙이었다. 당시 우리의 한 군함은 將旗를 게양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해군의 통상적인 경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투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대해 적의를 나타냈다. 해면이 좁아 항진하기에 불편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세 군함이 방향을 돌려 바다 한 가운데로 나가 순식간에 彼我의 거리가 좁혀지자 저들은 돌연 포격을 개시하였다. 우리 군함은 이에 응전해서 격심한 포격을 가하였다. 끝내 제원은 마스트에 제국 군함기를 게양하고 그 위에 白旗를 게양하여(항복을 표하는 신호) 直隸 海灣을 향해 도주하였으며 광율은 수심이 얕은 동쪽 해변을 향해 도주하였다. 이 海戰이 한창일 때 청나라 군함 操江은 영국 상선 깃발을 게양한 청나라 운송선 高陞號를 경호하고 항진해 왔다. 우리 군함 추진주가 가까이 다가가서 조강을

포획하는 사이에 우리 군함 낭속은 고승호를 향해 空砲 2발을 발사하여 멈출 것을 명하였고 우리 사령관에게 그 배의 처분방침을 협의하였다. 사령관은 낭속 함장에게 그 배를 우리 해군 근거지로 연행하라는 명령을 전하였다. 그래서 낭속함은 보트를 내려서 二番分隊長 人見 대위를 파견해 그 배에 타고 있는 인원을 조사하고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케 하였다. 이 배는 청나라 정부에 고용되어 청나라 병사 약 1,000여 명과 무기를 적재하고 牙山으로 항행하고 있는 도중임을 알게 되었다. 人見 대위는 선장에게 낭속함을 따라 오겠는가 아니 오겠는가를 물었다. 선장은 대답해 말하기를 “우리는 달리 도움을 받을 길이 없으니 단지 貴命을 따를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위가 닳을 내리라고 명하고 함대로 돌아와 함장에게 복명하고 있을 때, 선장은 다시 보트를 보낼 것을 자기에게 통지해 주기 바란다는 신호를 해 왔다. 그래서 보트를 보내고 파견 사관에게 선장이 무엇 때문에 보트가 필요한가를 묻게 하였다. 선장이 말하기를 “배안에 있는 청나라 병사는 거의 모두가 貴艦을 따라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며 배를 太沽로 귀항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마 그들이 외국 선박을 타고 있어서 본국을 출발할 당시에는 아직 교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답을 하고 있는 동안 배 안의 청나라 병사는 매우 시끄럽게 떠들었으며 우리에게 적의를 나타냈다. 그리고 선장 등은 청나라 병사의 협박을 받아 도저히 우리 낭속을 따라올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파견 사관은 선장에게 “우리 들은 군함으로 돌아가 함장에게 명령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다. 우리 낭속 함장은 청나라 병사가 선장을 협박하여 우리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 앞쪽 마스트에 赤旗를 게양하는 동시에 신호로써 즉시 그 배를 떠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그 선장은 또 보트를 보내라고 신호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시 그들 자신의 보트를 타고 오라고 신호하자 선장은 또 신호로써 우리는 그러한 허락을 받을 수 없다고 답해왔다. 이와 같은 응답이 오고 가는 사이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 이미 정오가 지나갔는데도 우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달리 방도가 없었으므로 그 배를 격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오후 1시에 드디어 고승호를 격침시켜 타고 있던 장병을 모두 죽였다. 이날(즉, 7월 25일) 마침 조선 정부는 大鳥 공사에게 아산에 駐留하는 청나라 병사를 구축해 줄 것을 의뢰해 왔다. 이는 아마 조선이 이제 완전무결한 독립국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나라에게 입증하려면, 아산에屯營할 때 조선을 청나라의 屬邦이라고 공언하고 조선의 독립을 방해하였던 청나라 병사를 격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조선 군대의 힘으로써는 이것이 불가능하

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독립이 동양평화의 근본임을 인정하고, 동양평화를 위해 다년간 전력을 기울였어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겼던 우리 정부가 어찌 그 의뢰를 마다하겠으며, 하물며 조선조정의 이와 같은 의뢰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바가 아니겠는가. 앞서부터 주먹을 불끈 쥐고 청나라 병사를 격퇴시킬 것을 단단히 베풀고 있던 우리의 군대는 모두 용기를 떨치고 일어나 28·29 양일에 걸쳐 크게 아산에 있는 청나라 병사를 크게 격파하였다. 다음에 당일 청나라 병사를 격퇴시킨 상황을 기록하겠다.

○ 混成旅團 戰鬪詳報

一. 素沙場 도착 후 실시한 일은 다음과 같다.

기병 장교에게 1개 분대를 인솔시켜 아산의 적의 정황을 정찰케 하였다. 이들 척후병은 다음날 29일 오전 10시 처음으로 보고를 보내왔는데 “아산 지방민의 보고에 의하면,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 청나라 병사가 한 명도 남김없이 成歡과 天安으로 갔으며 그 수는 약 1,000명이고 아직 紅貝에 소수가 잔류해 있다고 했다.”고 한다(平城 기병소위의 보고로 전투 후에 수령한 것). 소사장 高地에서 적의 塹壘 4개를 전망할 수 있었으며 그 거리는 약 20리로 砲隊鏡으로 보니 깃발이 숲처럼 서 있고 그 軍容이 매우 왕성했다. 그렇지만 그 척후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정오 12시에 적의 상황과 지형을 정찰하기 위해 西山·木窰 두 보병중위와 水井·高野 두 포병중위에게 조선 사람의 옷을 입혀서 파견했다. 이는 前方의 지형이 매우 광활하기 때문에 우리 旅團이 소사장에 도착한 것을 비밀로 하기 위함이다. 이들 정찰장교는 오후 8시 45분 명령받은 임무를 끝내고 돌아 왔다.

이보다 조금 늦게 적의 정황과 지형을 정찰하기 위해 右翼隊의 진로 방향으로 樋口 소위를 파견했다. 소위가 야밤중에 이르도록 돌아오지 않아 매우 근심하였지만 부대가 출발하기에 임박하여 돌아 왔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우익대의 진로 우측에는 깊은 진흙질의 개천과 도랑이 있어서 渡河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하였다. 통구 소위는 결국 복장을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조선 마부의 분장을 한 채로 中隊長代理로 戰場에 임했다.

오후 6시 모든 隊長을 모아 다음날의 작전 계획의 요지를 알려주었으며, 또 이번 전투의 승패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浮沈에 관계된 중대사임을 일깨워준 뒤 火酒를 베풀어 멀리서 兩陞下의 만세를 봉축했다.

一. 오후 11시 30분 공격명령이 하달되었다. 그 명령의 大要는 이미 上申해 둔 바 있다. 이와 같이 전달이 늦어진 이유는 아산으로 내보낸 기병 斥候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끝내 그들의 정보를 받아 볼 수가 없었다.

이와 동시에 軍勿浦에 있는 독립 中隊에게 鋤斤里까지 전진할 것을 훈령하였다. 이는 적이 아산 방향으로 퇴각하면 그 퇴로를 습격하기 위함이고, 우익대의 우측을 멀리서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一. 이날 밤 구름이 점점 걷히면서 별이 빛났다. 全團枚를 받들고 영시에 露營地를 출발하였으며 사기가 더욱더 왕성해졌다(그 행진의 순서 역시 상신해 두었다).

一. 소사장 고지를 출발해 渡河한 후 우익대를 제외한 諸隊는 어제 정찰차 나갔던 장교 척후의 유도로 성환역 배후 쪽으로 나가기 위해 하천 좌측 기슭을 따라 魚貫 형태로 전진했다. 도로가 협애하고 조악한데다가 사방이 어두웠기 때문에 행진을 뜻대로 신속히 할 수가 없었다. 끝내 그 후미를 渡河場에서 일시 開進시켜 우익대의 행진로를 열게 하는데 이르렀다.

一. 오후 2시 東路 지대장이 沙峴에서 보낸 보고가 도달되었다. 말하길

“오후 0시 30분 지대의 척후가 稷山 북방에서 적의 기병 약 8명을 만나 3~4발의 사격을 받았으며 그 중 1명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사살된 것 같다.”라고 하였다(어제 오후 5시 30분 사현發로 된 이 보고는 그 불길함을 감추기 위해 참모가 남몰래 받아 두어 전투가 끝난 후에 알았음).

一. 본 縱隊가 어느 곳을 행진하고 있는지의 소식이 매우 늦어지고 있어서 기병 전령을 내보내려고 하여도 도로가 협애하여 할 수 없었다. 단지 공연히 속만 태우고 있었는데 오전 3시 5분 우익대가 있는 방향으로부터 약간 격심한 총성을 들었다. 그리고 본대의 행진이 더 한층 느려지고 다만 全軍의 심기만 초조해질 뿐이었다.

一. 3시 30분경 달빛이 약간 구름사이로 새어나와 행진이 조금 용이해져 참모를 도보로 전진시키었고 점차 左翼隊의 보병이 그 행간 거리를 약간 늘리어 중간 길이 끊겼기 때문에 그 진로를 수색케 하고 어제 있었던 포병대의 장교 척후에게 부탁해서 부대의 유도를 맡게 하여 시간을 낭비했음을 알았다.

一. 이와 같은 일로 고민하던 중 오전 3시 45분 右翼 방향의 총성이 멈추었다. 이에 관한 전투의 상세한 보고는 다음과 같다. 우익대는 오전 2시 소사장을 출발해서 성환역으로 통하는 도로를 전진했다(이때 군대의 편제는 前衛가 보병 제13중대이고 본대는 제10·7·9중대와 工兵中隊(1小隊缺)이었다. 오전 2시 45분 소사장 남쪽 하천에 가설된 교량에서 좌익대와 헤어져서 秋八里로 통하는 도로를 전진했다.

오전 3시 5분 추팔리에서 북쪽으로 600m되는 곳인 기린洞에서 적병 2개 대대정도(馮字 旗 2개)가 가옥에 의지하여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우리의 침병이 10m정도로 근접하는 것을 기다려 불의에 급사격을 해 왔다. 前衛 중대는 즉시 논두렁에 흩어져서 급사격을 했으며 본대인 3개 중대는 점차 우익으로 다가갔고 工兵 중대는 후방 하천 제방에 진을 쳤다. 적의 사격이 점차 치열해졌다.

3시 25분 제10·7중대는 각각 1개 소대를 散兵하여 線의 우익에 증가해서 급사격하였다.

4시 45분 본대 3개 중대는 적의 좌익을 향해 돌격했고 적군은 추팔리로 퇴각했다. 이때는 사방이 어두워서 彼我的 구별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사격을 할 수가 없었다.

4시 5분에 집합을 명하고 각 가옥 안을 수색시켜 적군 2명을 생포했다.

이 전투가 우익대의 사상자를 가장 많이 낸 때이다.

一. 오전 4시 동쪽하늘이 약간 밝아 왔다. 본 縱隊는 마침 밀림 때문에 멀리 행진하는 모습이 은폐되었고 게다가 적이 척후병을 내서 이 부근을 감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에게 발견되는 일 없이 우리 부대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원래의 계획으로는 이 시각을 전후해서 적의 배후와 옆으로 개진할 예정이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은 장애가 있어 목적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1시간 남짓 더 소요되었다.

一. 이러한 사이 우익대가 만약 계속 전진했다라면 고립해서 적지에 침입하여 그 寡弱한 병력(5개 중대 工兵을 합함)으로 위험한 지경에 빠질 터이나, 마침 알맞게 전술한 것 같이 적이 그 전진 哨兵 部隊를 추팔리 동쪽 촌락으로 내보내서 우리 우익대를 방해하여 1시간여를 소비했기 때문에 左右翼 두 부대가 함께 戰機를 같은 시각에 맞게 되었다. 이를 어찌 兩陛下의 성덕이라 하지 아니 할 수 있겠는가.

一. 좌익대의 선두는 4시 30분 예정했던 장소 즉, 芥子坊子산에서 약 1,200m떨어진 高地에 도달했다. 그리고 좌익대의 開進을 완전히 마친 것은 5시 15분이었고 좌익대는 그 병력을 둘로 나누어 前驅隊와 본대 2대로 구분했다.

一. 5시 20분 좌익대의 전구대는 芥子坊子산의 보루를 향해 전진했으며 적에서 약 700m떨어진 고지에 도달하여 일제 사격을 개시했다. 이것이 좌익대의 전투개시였다.

一. 우익대는 5시 20분 다시 前衛를 내보내서 전진하게 하였는데 5시 50분 추팔리 남쪽 약 500m에 도달했을 때 그 전방 약 400m되는 곳에 적병이 흩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 즉시 발포하였다.

一. 오전 5시 35분 砲兵團은 芥子坊子산의 동쪽에 砲를 放列하고 사격을 개시했다.

一. 旅團의 예비대는 포병대의 좌익 후방에 開進을 마쳤다.

一. 기병은 이때 수색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예비대 후방 약간의 거리에 있었다.

一. 衛生隊와 제2야전병원은 이 시각에 소사장 고지의 남단에 정지하여 전진 혹은 개설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一. 東路 獨立支隊(육군보병대尉 文平은 오전 1시 사현의 露營地를 출발하여 前溪里를 거쳐 직산縣을 향해 나아가고 전계리에서 적 4,50명의 척후를 만나고 오전 6시 20분 직산현의 동쪽 약 1500m되는 곳에서 직산현 서북쪽 고지에 그 적병이 있음을 보고 바로 직산 동남단에 있는 작은 언덕에서 일제 사격을 했다. 적은 잠시 응사했지만 잠시 뒤에 퇴각했고 지대는 곧 그 고지를 점령했다. 그리고 南越店에서 직산으로 통하는 길에 1분대를 분파하였다.

一. 군물포의 독립 지대(육군 보병대위 小笠原松態)는 5시 25분 鋤斤里를 점령하고 적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一. 鷄頭津의 독립 지대는 아직 그 위치에 있었다.

一. 이상의 諸配置로 보아 旅團의 공격 初動 動作은 완전히 목적인 대로 정비되었다.

一. 본대의 진황(右翼隊·砲兵團·豫備隊 및 騎兵隊 포함)

甲. 좌익대는 적의 陣地의 鎖鑰點인 芥子坊子산을 함락시키기 위해 前驅隊(제11연대, 제2대대)를 芥子坊子산의 적을 향해 전진케 하였다. 이 大隊은 5시 20분 전개하여 제8중대는 5시 30분 적에서 약 700m떨어진 고지에 도달, 일제 사격을 개시했다. 적도 역시 이에 응하여 彼我의 사격이 교환된 잠시 뒤에, 제8중대는 다시 전진해 적에서 약 500m거리까지 근접했다. 이때 제2대대장이 제6중대를 그 우익으로 증가시켰을 때, 제8중대장은 적병 약 1개 중대가 군기 두 개를 앞세우고 남쪽 약 1,500m지점으로부터 전진하여 우리의 배후로 다가오려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에 개의치 않고 芥子坊子산 남쪽 약 150m에 있는 제일 높은 곳(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는 산)을 점령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 중대는 6시에 이 고지에 도달, 맹렬한 사격을 시작하였다. 大隊의 제일선도 200m까지 접근하여 그들의 진지를 절반가량 포위하고 10차 포화를 퍼부어 전투가 매우 치열하였다. 芥子坊子산의 적은 한때 그 보루에서 철수하려 했으나 그 서쪽 낮은 지대에 군집해 있던 약 600~700명의 일부가 가세하여 다시 저항했고 기타 부분은 우리의 공격이 빠르고 심했기 때문에 가세할 수가 없었다. 조금 지나서 적의 사격이 약간 약해지고 퇴각하려는 기미가 보였다. 이 기회를 타서 제6·8중대의 나머지 병력은 모두 적진으로 돌입, 그 진지를 탈취하고 적을 추격했다. 이때가 6시 50분이었다. 이 진지를 탈취하기 전 우리 포병은 그 보루에 榴彈과 榴散彈을 발사하여 원조했다. 이보다 앞서 6시 10분 우리의 배후와 옆

에 나타난 적에 대항해서 제7중대를 파견하여 적으로부터 약 500m떨어진 고지를 점령케 하였다. 더욱이 제3대대와 제5중대를 전진시켜 芥子坊子산에 돌입시키려 했을 때 적병이 退走했다. 그래서 제3대대로 하여금 芥子坊子산 서쪽 脇下에 있는 3개의 幕營을 공격케 하고 또 제8·5중대도 모두 전진해서 그 협하에 있는 2개의 막영을 공격하였다.

東路 지대는 제7중대가 두 소나무 고지를 점령했을 때 그 중대의 제1·3소대를 성환역 방향으로 전진시켰으며 제2소대는 직산현 서쪽 논 가운데로 퇴주하는 적을 공격케 하였다. 앞서 제2소대에서 분과했던 1개 분대도 이때 제2소대에 합류해서 같이 행동하였다. 오전 7시 이 제2소대를 제외한 기타 支隊는 성환역 동남단에서 우리 本隊와 합류했다.

포병단은 처음 제6중대를 우익으로, 제5중대의 일개 소대를 좌익으로 하여 적의 맨 우익에 있는 幕營의 남쪽 약 200m에 배치해 있으면서 우리를 엄호하기 위해 적병을 향해 발포하였다(오전 5시 35분). 호위 중대(보병 제11연대의 제12중대)는 포병중대의 우익에 위치하여 그 우측을 엄호했다. 포병중대가 試射를 끝내려 했을 때 적이 모두 음폐했기 때문에 다시 적의 第1線 幕營을 격파하려고 하였다. 試射를 끝내려 했을 때 여단장의 명령으로 약 800m를 전진해서 오전 6시 8분 발포를 개시하였다. 이때 좌익대가 芥子坊子산으로 전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를 엄호하기 위해 포탄을 집중적으로 퍼부어 속사 사격을 하였다. 좋은 거리에서 포탄이 터질 때마다 좌익대의 歩兵들이 함성을 내지르고 全軍의 사기가 매우 융성하였다. 이때부터 적의 많은 화력이 우리 砲列線을 향하게 되었고 총탄이 비오듯 하였다. 우리 砲兵의 芥子坊子산 포격은 아주 맹렬했으며 약 100개의 포탄을 소비하였다. 이 사이에 적병이 증원되어 芥子坊子산으로 전진해 왔으므로 또 이를 포격하였다. 이때 예비대인 보병 제21연대의 2개 중대 중 1개 중대를 전개해서 芥子坊子산 측면 배후로 전진시키고 또 포병을 호위하고 있는 중대는 砲列 북쪽 밀림 속으로 전진시켜 이 속에 있던 적의 척후를 몰아 쫓으면서 전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의 좌익 방면에 대한 공격은 무르익었고 적을 재빨리 추격하였다. 포병은 다시 500m를 더 전진해서 제3의 진지를 차지해서 적의 퇴거자를 추격하였다. 보병은 점차로 전진하고 적의 歩兵은 계속 도주했다. 포병은 다시 제4진지로 전진했는데 이때 적의 포병 砲 4門이 우익대를 향해 발포하던 것을 바꾸어 우리 포병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하였다(1,700m). 이때 적의 포탄 한 개가 제5중대 第1砲車 우측 바퀴 옆에서 터져 포수 2명이 부상했다. 잠시 뒤에 敵砲는 발사를 중지하고 퇴각을 속행했으며 우리 보병은 全線에서 이를 추격하여, 오전 7시 30분 완전히 성환역 북쪽 고지를 점령했고 적이 平澤 동쪽 고지로 퇴각하는 것을 우리 포병이 계속 추격하였다.

오전 8시 보병과 포병은 논을 지나 평택 동쪽 고지에 이르렀다.

이때까지의 좌익대 전투선의 形況은 우익으로부터 보병 제11연대의 제12중대, 포병대대(2개 소대 빠짐) 예비대인 보병 제21연대의 2개 중대, 歩兵 제11연대의 제2대대, 같은 제3대대와 東路 지대였다. 기병중대는 예비대와 같이 전진하였지만 적이 평택의 동쪽 고지로 퇴각하자 적의 포병 진지 옆을 지나 전진하였다. 그리고 적의 포병 일부는 그들 진지 남쪽 산허리까지 포를 끌고 나왔지만 그대로 포를 방치한 채 패주하였다. 이때 제11연대도 전진을 개시했으며 우리 기병은 패주하는 적의 보병을 습격하여, 그 중 8명을 참살하였다.

乙. 이 사이의 우익대의 景況은 다음과 같다.

오전 5시 50분 전위대가 추팔리 남쪽 약 500m지점에 도달하여, 그 오른쪽 전방 약 400m지점에 적병 200명쯤이 산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 곧 전개해서 사격했다.

6시 10분 전방 약 800m에 있는 삼림에 적병 약 400명이 횡대로 집합하자 우리 제9중대는 즉각 우측으로 전개, 이를 향해 일제 사격을 했다. 제10,12중대는 예비대가 되어 散兵의 후방 50m의 고지의 산기슭에서 개진하였다.

6시 30분 제1선 부대는 점차 적의 좌측을 향해 전진했고 예비대를 뒤따랐다. 彼我的 사격이 맹렬해졌다.

6시 50분 전방 약 1,200m고지에 있는 적의 포병이 우리 散兵을 향해 榴彈사격을 하였다. 제9,7중대는 우측으로 전진했고 工兵中隊는 예비대의 후방 고지에 이르렀다.

7시 15분 전방에서 200명의 적병이 퇴각하여, 공병중대를 우측으로 우회시켜 적의 퇴각을 위협하게 하였다.

7시 40분 적의 포병은 포사격을 중지했으며 우리 부대는 점차 앞으로 전진하였고 적병은 아산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8시 우익대를 집합시켰다.

丙. 6시 5분 위생대는 소사장 하천에 도착했다. 이때 기린洞에서 전투가 벌어져 위생대가 소재하는 곳까지 탄환이 날아와서 위험하였기 때문에 약 400m에 있는 촌락으로 퇴각을 명했다.

5시 총격이 점차 약해지므로 하천을 건너가서 봉대소를 개설했다. 이때가 5시 30분이었다. 전방 근무에 1개 소대와 1개 분대를 사용하고 2개 분대를 후방 근무에 충당하였다. 전방 근무자는 전선의 사상자를 거둔 뒤에 후방 근무에 사용하였다.

오전 7시 50분 봉대소를 전진시켜 성환역 북방 약 800m에 있는 삼림 속에 개설하였다.

우리의 우익 고지는 환자 수송이 불편했으므로 이 방면에 2개 분대를 분견했으며 사상자는 즉각 야전병원으로 수송했다. 이 두 번째 봉대소 개설은 오전 9시 10분이었고 그 폐쇄는 오후 2시 30분이었다. 이 업무 중 위생대의 병졸 한명이 유탄을 맞아 전사하였다.

丁. 야전병원은 소사장에 개설하고 부상자를 위생대로부터 수용해서 이들을 치료하였다.

戊. 군물포 지대(西路 지대 육군 보병대위 小笠原松熊)는 이날 오전 3시 30분 上細橋의 露營地를 출발, 오전 5시 25분 서척리를 점령했다.

오전 6시경부터 성환역에 있던 적병이 2縱隊로 퇴각하므로 서척리 남쪽 고지로 前中隊를 전개시켜 그 퇴로를 측면에서 사격하였다.

이 중대는 본대가 아산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고 본대를 뒤따랐다. 그리고 이 중대에서 1개 소대를 白石浦로 분견했는데 도중에 鷄頭津의 독립 소대를 만났다.

己. 계두진 독립 소대장은 전투가 시작됐다는 말을 듣고 적이 그 근거지에서 背退하는 것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해 하천을 건너 전진하였다.

또 이 중대는 어제부터 우리 군함의 보트가 때때로 해안에 출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一. 오전에 給養隊에 명해서 가능한 한 많은 식량을 군물포에 운반케 했으며 또한 승전을 대본영과 공사관에 전달할 것을 명했다.

一. 오전 10시 諸部隊를 上土橋에 정돈시켰다.

오전 10시 15분 기병대로 하여금 즉각 적의 뒤를 밝게 하였으며 좌익대와 포병단 및 예비대는 성환으로부터 曲橋里로 나가는 길로 전진케 하고(20만 분지 1 지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우익대는 서척리를 경유하여 아산 방향으로 전진케 하였다.

이때 적의 부상자 1명을 잡아 힐문했더니, 支那兵은 그저께까지 두세 번에 걸쳐 아산으로부터 성환으로 이동했으며 그 군대는 盧台武毅軍 5營, 山海關 2營의 군대라고 했다. 이 병졸은 武毅軍 副中營에 소속되어 있던 자로서 부상 때문에 잠시 후 사망하였다.

오전 0시 30분 본대를 멈추어 大休止를 하였으며 급양대로부터 馱送해 온 점심을 후미로부터 분배케

하였다. 이때 폭우로 인마가 모두 젖었다.

오후 1시 15분 기병대가 적이 각개로 분리되어 아산 방향으로 퇴각했다고 보고해 왔다.

본대는 오늘 동틀 무렵부터 행동을 개시하였다. 전투 후 50리를 조금 못되게 더 추격하였으며 또 일몰후가 아니면 아산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오늘밤은 金城洞과 그 부근에서 宿營하기로 결정했다. 이때가 오후 5시 30분이었다. 그러나 우익대의 위치를 잘 알 수 없었고 다음날 아침 행군을 개시하여 비로소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우익대는 이날 밤 아산으로 들어가 적의 근거지를 점령하였다. 이날 밤 도주하다 뒤쳐진 적 수 명이 우리 우익대의 露營地로 사격을 가해 와서 1명을 부상시켰다.

이날 밤 각대의 위치는 우익대와 포병단·예비대·동로 지대는 모두 같이 금성동과 그 부근에, 좌익지대와 군물포 독립지대 그리고 계두진 지대는 모두 같이 아산과 그 부근에서 宿營, 위생대와 야전병원원은 소사장 부근에 주둔했다.

一. 적은 처음 성환 서쪽 고지를 퇴거할 무렵에는 얼마쯤 隊伍를 이룬 것 같았지만 추적이 빠르고 심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완전히 散亂한 것 같았다. 우리가 행진하는 도중에 끊임없이 한명 또는 수 명의 淸兵이 민가나 삼림 등에서 사격하였다. 또 조선인의 옷을 약탈해 입고 산중으로 도주한 자들이 있으며 우리 배후에는 아직도 약간의 遲留兵이 있었다. 또 적의 진영을 감시하기 위해 남겨 두었던 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각개 전투를 해서 적을 살상했다고 보고를 해왔으므로 오후 5시 30분 步兵 제11연대에서 1개 소대를 차출해 적의 成歡 幕營을 감시대로 삼았다. 더욱이 小笠原 대대의 부대를 서척리로 보내서 병참 수비대로 삼았다.

一. 敵情이 前記한 바와 같았고 또 아직 아산에 있는 우익대에 대한 사정을 잘 알지 못했으므로 여단은 우익대로 하여금 屯浦로부터 들어가는 길로, 좌익대로 하여금 곡교리 길로부터 1개 중대 제11연대의 제9중대를 중간에서 진격시켜 아산을 함락시키려고 이 명령을 보냈는데, 그 傳令인 기병이 여러 가지 곤란을 겪은 끝에 비로소 우익대가 아산에 있는 것을 알았다.

一. 30일 諸隊가 牙山에 들어가 宿營하였고 적의 各營 즉, 幕營했던 자리와 假設 廠舍 등에 방화하고 창고에 있던 화약은 모두 압수하였다. 이 압수물은 각 중대에서 10명씩 차출하고 게다가 빈 馱馬를 사용하여 이날 백석포로 운반하게 하였으며 보병 제21연대 제7중대로 하여금 그 호위와 운반을 감시케 하였다. 이날 밤 인천 병참 지부로부터 보내온 소증기선으로 曳船을 삼아 인천에 보냈다. 성환에 있는 전리품은 陸送하여 龍山에 도착하였으며 이 호위를 위해 제11연대 제12중대를 보냈다.



〈일본 중군화가의 전쟁화〉

이와 같이 바다에서는 풍도 앞바다에서, 육지에서는 성환과 아산에서 사실상 이미 日 · 淸 兩國 間의 戰端이 유발되었으므로 7월 31일 제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駐劄하는 각국 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통고서를 보냈다.

제국 정부는 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일어난 분의를 정당하고 또한 영원하게 타협 지을 것을 바라여 여러모로 공명정대한 수단을 다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력도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 임무를 다 하기 위해 여기에서 각하께 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전쟁 상태가 현존함을 통지 드리는 영광을 간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에 거듭 각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敬具.

1894년 7월 31일

外務大臣 陸奧宗光

帝國駐劄 各國 公使

그리고 같은 날 우리나라에 주차하고 있는 청나라 공사 汪鳳操가 공사관과 영사관을 철수한다고 통지해 왔다. 제국 정부도 이와 동시에 在淸國 제국 공사관과 영사관을 철수하라고 전보 訓令을 했다. 우리 天皇陛下는 드디어 청나라에 대해 開戰의 詔勅을 발포하였다. 그 조치는 다음과 같다.

天佑를 保全하고 萬世一系의 皇祚를 이어받은 大日本帝國 皇帝는 忠實 勇武한 그대들 인민에게 고하노라.

朕은 이에 청나라에 대해 宣戰을 포고하노니 朕의 百僚와 有司는 朕의 뜻을 잘 받들어 육지에서나 海上에서나 청나라에 대한 交戰에 從事함으로써 국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모름지기 국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각자의 權能에 상응하는 일체의 수단을 다 하는데 필히 빠짐이 없도록 기하라. 생각건대 朕이 즉위한 이래 이제 20有餘年, 文明化를 평화로운 다스림에서 구하고 美사를 외국에서 구하는 것은 극히 불가함을 믿으며 有司들이 항상 우방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여 다행이 列國과의 교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친밀을 더해 갔다. 그런데 청나라가 조선사건에서 우리에게 대해 착착 교린의 순리를 어기고 信義를 지키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고 나오는 것을 어찌 뜻했으랴. 조선은 제국이 먼저 啓誘해서 열국의 伍伴에 나아가게 한 독립된 일국이다. 그러나 청나라는 항상 조선을 스스로 속방이라고 칭하고 음으로 양으로 그 내정에 간섭하고 그 나라에 내란이 일자 속방이 極難에 처해 있다는 구실로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朕은 1882년 체결한 조약에 의거, 군대를 파견하여 변란에 대비케 하였다. 나아가 조선이 禍亂에서 영원히 벗어나 앞으로의 치안을 확보해서 東洋全局의 평화를 유지하기 바라고, 우선 청나라에 고하기를 협동해서 일을 처리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청나라는 이와 반대로 여러 가지 言辭를 만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제국은 이러한 입장에 처해 조선에 권하기를, 그 秕政을 釐革해서 안으로는 치안의 기본을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독립국의 權義를 完遂하라고 하였다. 조선은 이미 이를 肯諾하였으나, 청나라는 시종 비밀리에 백방으로 그 목적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말을 이리 저리 회피하고 시기를 지연시키면서 그들의 水陸 군비를 갖추었다. 그 군비가 일단 이루어지자 무력으로 그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다시 大兵을 韓土에 파견하여, 우리 군함을 韓海에서 요격하여 거의 亡狀이 극에 달했다. 즉, 청나라가 計圖하는 바는 분명히 조선치안 책임의 소재를 밝힐 곳을 없게 하여 帝國이 술선해서 모든 독립국의 반열에 끼게 한 조선의 지위를 이를 표시한 조약과 더불어 몽매하게 배척하고 제국의 권리와 이익을 손상시켜서 동양평화를 영원히 담보하지 않게 하는 데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곰곰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그들이 謀計하는 바

를 깊이 미루어 헤아리건대 실로 처음부터 평화를 희생물로 그 非望을 이룩하려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러 朕은 시종 평화적 방법으로 제국의 광영을 中外에 선양하기를 전념하고는 있으나, 역시 이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아니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대들 인민의 忠實 勇武함을 倚賴하여 신속히 영원한 평화를 극복함으로써 제국의 광영을 보전하기를 기약하노라.

御名 御璽

1894년 8월 1일

內閣總理大臣 伯爵 伊藤博文

遞信大臣 同 黒田清隆

海軍大臣 同 西郷從道

內務大臣 同 井上馨

陸軍大臣 同 大山巖

農商務大臣 子爵 榎本武揚

外務大臣 陸奥宗光

大藏大臣 渡邊國武

文部大臣 井上毅

司法大臣 芳川顯正

이 조칙을 발포한 같은 날 청나라 황제도 역시 우리나라에 대해 개전의 조칙을 발포하였다. 그 조칙은 다음과 같다.

7월 1일 황제의 勅諭를 다음과 같이 받들었습니다.

“朝鮮이 우리 大清의 藩屏이 된 지 200여 년으로 해마다 職貢(職分과 奉貢)을 다하여 온 것은 中外가 다 아는 바이다. 근간 십수 년 그 나라에는 내란이 잦아 우리 조정에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듭 파병하여 평정하였고 아울러 파견한 인원을 그 나라 도성에 주재시키면서 수시로 보호하여 왔다. 올해 4월중에 조선에는 또 다시 土匪의 변란이 있어 그 국왕이 군사를 보내 진압을 도와줄 것을 청해왔으며 사연이 박절한지라 즉시 李鴻章에게 군대를 출동시켜 도와주라고 훈령하여 겨우 牙山에 도착하였으나 도적의 무리들은 도망하여 흩어졌다. 그런데 왜인들이 까닭 없이 병력을 증강하여 漢城에 돌입하고 또 이어서 만여 명을 증파하여 조선을 강박하고 국정을 고치도록 여러 가지 강요를 자행하고 있으니 도리로써 깨우치기는 어렵게 되었다. 우리 조정에서는 藩邦을 다스리되 그 나라 내정만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여왔고 일본은 조선과 조약을 맺고 자주와 평등을 표방하고 있으니, 다시는 重兵으로 강압하거나 정치의 개혁을 강요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공론도 모두 일본의 출병은 명분도 없고 인정과 도리에도 어긋난다 하여 철병을 권하고 화평을 유지코자 담판도 하였으나, 그들은 끝내 거들떠보지도 않아 아직까지 타결이 못되고 있으며 도리어 계속 병력을 증가하고 있어 조선 백성이나 중국 상민들은 날마다 불안이 더해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도 병력을 더 내보내 보호하려 하였는데 중도에 이르러 돌연 많은 倭船을 만나 그들이 우리의 방비 없음을 틈타 아산항 해상에서 발포 공격하여 우리의 운송선을 파손하였다. 그 거짓된 심사를 모름지기 예측키 어렵게 되었다. 그 나라는 조약도 준수치 않고 公法도 지키지 않으며 멋대로 날뛰고 속임수를 함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먼저 사단을 일으킨 것은 공론에 분명히 밝혀졌으며 이를 천하에 포고하여 알리려 한다. 우리 조정에서 이번 일을 처리하는데 仁과 義를 다하였으나 그들이 조약을 지키지 않고 틈을 만들어 무리를 저지름이 이미 극에 달하여 그 형세가 나로서 두 번 다시는 용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홍장은 즉시 파견한 각 군대를 엄치하여 신속히 나아가 진압케 하고 강한 군대를 증강하여 계속 진발시켜 조선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沿江 沿海의 각 將軍 督撫 및 統兵大臣은 즉시 군오를 정돈하여 왜인의 輪船을 만나는 대로 각 항구로 쳐들어가 선두부터 쳐부수어 있는 대로 섬멸하라. 조금이라도 물러나는 죄를 범함이 없도록 하라. 이상 통지하는 바이니 잘 받들어 행할지이다.”

여기에서 일·청 양국의 교제는 완전히 깨지고 1871년 이래 실시해 온 현행 수호통상조약과 기타 양국간에 체결된 여러 조약은 자연히 모두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清日戰 朝鮮慰問使 派遣]

1895년 3월 12일 오전 10시발신 井上公使 수신 大山 第二軍司令官 野津 第一軍司令官 朝鮮 軍部大臣 趙義淵 의 15명을 우리 군대 위문을 검해 전황 시찰차 국왕께서 파견하시게 되어 大本營의 허가를 얻어 내일 仁川을 출발하는 薩摩丸을 타고 大連灣으로 향하게 되었음. 이는 이 나라 사람들이 日·清戰爭의 실황에 어둡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아직 의구심을 품고 뜯소문과 虛傳에 놀라는 상태이므로 우리 쪽에서 권하여 파견케 한 것이니 그곳에 도착하면 적절히 취급하기 바람.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내겠음.

[주요인물]

홍주목사 이승우(李勝宇, 1841~1914)

효령대군 후손으로 진사시에 합격한 후 홍릉참봉과 사헌부 감찰, 진위현령 정선군수를 역임하였다. 고부군수로 있으면서 1882년 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 교리, 병조참의, 승정원 우부승지와 사간원 대사간 등 요직을 지낸 다음 홍주목사로 부임하였다.

1894년에 충청도 서해안 일대의 동학농민군이 홍주를 공격하자 이를 물리치고, 초토사가 되었다. 매천 황현이 쓴 『매천야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호서에 있던 적들이 홍주를 침범하자 목사 이승우가 그들을 맞아 크게 격파하였다. 홍주는 내포(內浦)의 웅부(雄府)이다. 이승우는 재능이 많아 그가 가는 곳마다 명성이 자자했고, 관리와 백성들도 그를 믿었다.

당시 홍주 관아에서는 성곽을 의지하여 적도를 초멸하자고 의논하고, 난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적도 수백 명을 생포하거나 살해하였다. 이에 적들은 1만여 명의 대대가 합세하여 성을 삼중으로 포위하였다. 이때 이승우는 땅을 파 대포를 묻은 후 탄환을 넣지 않고 소리만 요란하게 내었다. 적중(賊中)에서는 서로 희희낙락하며 “들은 말에 의하면 납으로 만든 탄환은 도인(道人)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 말이 정말이다”라고 하면서 성 가까운 거리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승우는 이때 대포에 탄환을 넣어 일제히 발사하자 적들은 서로 부딪혀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었으므로 그 탄환을 맞은 사람은 그대로 죽었다. 또 그들은 남보다 뒤에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차례로 쌓여 그 시체가 성보다 높았으며, 긴 언덕처럼 쌓인 곳은 세

곳이나 되었다. 이승우는 성문을 열고 적들을 모두 쫓아 버렸다. 그 적들은 10리 안팎에서 산이 무너지듯 사방으로 도주하였다.”

1895년 을미개혁으로 지방관제가 개혁될 때 홍주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이해에 홍주에서 강직한 관리로 이름났던 김복한·이설·안병찬 등이 을미사변 직후부터 기병을 계획하다가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을 일으켜서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이때 관찰사로 있던 이승우는 거짓으로 이 의병진에 가담한 뒤 몰래 순검대를 끌어들여 김복한·이설을 비롯한 의병진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 투옥함으로써 의병진을 강제 해산하게 하였다. 1896년에는 함경도 관찰사, 1904년에는 충청북도 관찰사, 1905년에는 전라북도 관찰사를 지냈다.



〈그림11〉 육군 보병대위 마쓰자키 나오오미

(松崎直臣, まつざき なおおみ,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그림12〉 안성천 도하를 시도하는 松崎直臣 대위

[일본에서 마쓰자키 대위를 소개하는 글]

成歙の戦いは、日清戦争における最初の陸戦です。明治27年6月8日に葉志超総督、聶士成山西太原鎮總兵に率いられた清国軍(北洋陸軍、歩兵約2500名、山砲8門)が牙山に上陸しました。そして7月24日時点で3880名に達します。7月25日に朝鮮政府から大島圭介公使に対して、牙山の清国軍撃退が要請され、7月26日に混成第9旅団にその旨、伝達されました。7月28日に日本軍は牙城に籠る清国兵を攻撃するために出発。7月29日、佳龍里において清国兵の攻撃により歩兵第21連隊第12中隊長・松崎直臣歩兵大尉が戦死し、他数名が死傷しました。この戦いを安城の渡しの戦いと言います。しかし午前8時30分に日本混成第9旅団は成歙の敵陣地を制圧します。大島旅団長は清国軍の主力が牙山にあるとして、7月29日午前に全旅団に牙山へ向け出発を命じます。午後3時ごろ、牙山に到達しますが、清国軍は敗走した後でした。この作戦の日本側の死傷者は88名だったのに対して、清国兵は500名以上の死傷者を出し、武器等を放棄して平壤まで逃亡しました。また安城の渡しの戦いで歩兵第21連隊の木口小平二等卒は死んでもラッパを離さずに吹き続けたという逸話が残っています。

[번역]

성환 전투는 청일전쟁에서 일어난 첫 번째 육상전투입니다. 1894년 6월 8일, 葉志超총독과 聶士成산서태원진총병이 이끄는 청국군(북양육군, 보병 약 2,500명, 산포 8문)이 아산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는 3,880명에 달했습니다. 7월 25일, 조선정부가 오시마 케이스케 공사에게 아산의 청국군대를 격퇴하도록 요청했고, 7월 26일에 혼성 제9여단에 이사안이 전달되었습니다. 일본군은 7월 28일, 아산에 웅거 중인 청국군을 공격하기 위해 출발, 7월 29일 가룡리에서 청국 병사의 공격으로 보병 제21연대 제12중대장 마츠자키 나오오미가 전사하고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투를 안성천 도하 전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전 8시 30분에 혼성 제9여단은 성환의 적진지를 제압했습니다. 오시마 여단장은 청국군의 주력이 아산에 있을 것으로 보고 7월 29일 오전, 전 여단에 아산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합니다. 오후 3시경, 아산에 도착하고 보니, 청국군은 패주한 후였습니다. 이 작전의 일본군 사상자는 88명이었던 것에 비해, 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온 청국군은 내고 무기 등을 버리고 평양까지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천 도하 전투에서 보병 제21연대의 키구치

코헤이 이등병은 죽는 순간에도 나팔을 놓지 않고 계속 불었다는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기구치 고헤이(木口 小平, きぐち こへい)

〈그림13〉 시마네현 하마다호국신사(島根浜田護國神社)에 있는 기구치 동상



〔일본에서 기구치 이등병을 소개하는 글〕

木口 小平(きぐち こへい、1872년9월10일) - 1894년7월29일)は、日清戦争で戦死した日本陸軍兵士。ラッパ手として、死しても口からラッパを離さなかったとされた。その逸話は明治35年から昭和20年まで小學校の修身教科書に掲載され、戦前の日本においては廣く知られた英雄であった。

小平は岡山縣川上郡成羽町新山(後の高梁市)の農業木口久太の長男として生まれ小學校に進學するが、1884年(明治17年)12月に中退。その後小泉鑛山にて鑛山夫として働く。1892年(明治25年)12月から廣島の歩兵第21連隊に入營し歩兵二等卒となり、1894年(明治27年)6月に日清戦争に出征する。この時の所屬は第21連隊第3大隊第12中隊で、中隊の喇叭手を務めていた。同年7月の成歡の戦いに参加する中29日敵弾を受け戦死したが、歩兵一等卒に進級するという扱いは受けなかった。

기구치 고헤이(木口 小平, 1872년 9월 10일-1894년 7월 29일)는 청일전쟁에서 전사한 일본육군 병사이다. 나팔수로있던 그는 죽는 순간에도 나팔을 놓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의 일화는 1902년부터 1945년까지 소학교 수신교과서에 게재되었고, 당시 일본에서는 널리 알려진 영웅이었다.

코헤이는 오카야마현 카와카미군의 농부 기구치의 장남으로 태어나 소학교에 들어갔지

만 1884년 12월에 중퇴하였다. 그 후 코이즈미 광산에서 광부로 일했다. 1892년 12월부터 히로시마의 보병 제21연대에 입대하여 이등병이 되었고, 1894년 6월에 청일전쟁에 나서게 된다. 이때의 소속은 제21연대 제3대대 제12중대로, 중대의 나팔수를 맡고 있었다. 같은 해 7월 29일, 성환 전투 중에 적의 탄환을 맞아 전사했지만, 일 계급 진급 등의 대우는 없었다.

참고자료

청일전쟁

1894~1895년 조선의 지배를 둘러싸고 중국(청)과 일본 간에 벌어진 전쟁.

개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중국 중심 세계질서(Sino-centric world order)'에 중지부를 찍고 신흥 일본을 이 지역의 패자로 등장시킨 동양 사상 획기적인 전쟁이었다. 또한 당시 아시아에서 대립하던 영국과 러시아 등 제국주의 열강들간의 영토분할경쟁을 촉발시킨 계기로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 전쟁 결과, 조선은 뿌리깊은 청국의 종주권에서는 벗어났으나,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대상으로 바뀌어 인적·물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수난을 당하였다.

역사적 배경 1894년 봄 전라도에서 제1차 동학농민군(東學農民軍)이 봉기하자 조선 정부는 양력 5월 7일 홍계훈(洪啓薰)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 진압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장성에서 정부군을 격파한 농민군은 31일 전주까지 함락시켰다.

6월 2일 전주가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정부는 자력으로서는 농민군을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 임오군란 진압시의 전례에 따라 청국의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劄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원병을 요청하였다.

위안스카이를 통해 파병 요청을 받은 청국의 직례총독 겸 북양대신(直隸總督兼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은 6월 6일, 텐진조약(天津條約)에 의거하여 일본에 파병 사실을 통고하는 한편, 직례제독 예즈차오(葉志超)와 덩루창(丁汝昌) 휘하의 군사 2,800명을 충청도 아산에 급파하였다.

일본 정부는 6월 2일 서울주재 임시대리공사 스키무라(杉村濤)로부터 조선이 청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때마침 중의원(衆議院)에서 내각탄핵상주안이 가결되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던 내각총리대신 이토(伊藤博文)는 이 보고를 받은 즉시 각의를 열어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그리고 '일본공사관 및 거류민을 보호한다.'라는 구실로 제5사단 오시마(大島義昌) 소장 휘하의

혼성여단을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이미 일본 정부는 조선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내정개혁'을 도모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한반도에 대규모 일본군을 파병, 청일전쟁을 일으키고자 계책을 꾸미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6월 5일 참모본부 내에大本營(大本營)이 설치되고, 동시에 오시마가 거느린 혼성여단 선발대가 요코스카(橫須賀) 항을 출발, 9일 인천에 상륙하여 곧바로 서울로 진군하였다. 그 뒤 6월 하순까지 8,000여 명의 일본군이 경인(京仁)간에 집결하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이 독단으로 대규모 군인을 파병한 데 당황하고 이에 항의, 즉시 철병할 것을 요청하였다. 더욱이, 6월 11일 정부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전주화약(全州和約)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외국군이 간섭할 구실이 없어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육전대(陸戰隊)와 함께 서울에 귀임한 오토리(大鳥圭介) 일본공사는, 위안스카이와 3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양국군의 공동 철수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경과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내에서의 정치적 혼란을 청국과의 전쟁으로 해결하고자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으려 급급하였다. 그리하여 개전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철병안 대신 조선의 내정을 공동으로 개혁하자는 안을 청국에 내놓았다.

일본의 예상대로 청국측이 이 제안을 거절하자 일본은 청국에 '제1차 절교서(絶交書)'를 보낼과 동시에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이에 이홍장의 조정 의뢰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이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7월 중순 일본 정부는 청국에 '제2차 절교서'를 보내는 한편, 영국과 영일신조약(英日新條約)을 체결, 영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얻어 개전을 서둘렀다.

본국 정부의 개전 결의를 전달받은 오토리 공사는, 조선 정부에 청국의 대조선종주권 주장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시한부 최후통첩을 발한 뒤 23일 경복궁을 불법 점령, 쿠데타를 통해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김홍집(金弘集) 등을 앞세운 친일정권을 수립하였다.

청일전쟁은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 일본군은 서울의 조선군대를 무장시킨 다음 아산 근처에 집결한 청군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청일간의 본격적인 전투는 7월 25일 일본 해군이 풍도(豊島) 앞바다에서 청국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해전에서 청국군함과 청국 증원군을 태운 영국수송선 가오승호(高陞號)가 일본 해군의 기습공격으로 격침되었다.

이어 29일에 벌어진 성환전투에서 일본 육군은 아산에 상륙했던 청국군을 쉽게 격파해

버렸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육·해상의 초전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8월 1일에야 비로소 청국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으며, 청국도 이에 응해 대일선전포고를 하였다.

일본 정부는 열강의 간섭을 피해 가능한 한 빨리 승리를 거두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육군이 9월 15~17일 평양에 집결한 청국군 1만 4,000명을 격파하고, 17일 해군이 황해 전투에서 청국함대를 격침시켜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평양과 황해에서 대승을 거둔 일본군은 곧이어 중국 본토에 대한 공략을 서둘렀다.

10월 하순 조선에 진주했던 일본의 제1군은 압록강을 건너 남만주로 진격하고, 제2군은 랴오둥반도(遼東半島)에 상륙하여 11월 하순 여순(旅順)·다롄(大連)을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 1895년 2월 2일 산둥반도(山東半島)의 웨이하이웨이(威海衛)에 있던 청국의 북양함대기지를 공략하였다.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자 청국은 전쟁을 마무리짓기 위한 강화회담을 서둘러, 장인환(張蔭桓)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1895년 2월 초 두 차례 열린 히로시마회담(廣島會談)에서 일본측은 자국에 더욱 유리한 강화조건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국 전권대신의 위임장이 불완전하다며 그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전투를 재개하였다. 그 결과 3월 중순까지 일본 육군은 랴오둥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청국은 그제야 이홍장을 전권대신으로 교체하고 강화회담 재개를 서둘렀다. 3월 20일부터 시모노세키(下關 : 馬關)에서 이토와 이홍장이 양국을 대표해 강화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3월 24일 이홍장저격사건이 일어나 한때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양전투와 황해해전 직후부터 전쟁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영국·러시아·프랑스·독일·미국 등 열강의 간섭을 우려한 일본은 결국 4월 17일 청일강화조약, 즉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을 성립시켰다.

청일전쟁은 주로 청·일 양국간의 군사적 대결이었지만, 한반도 내에서 일본군과 동학의병(東學義兵) 간의 조일전쟁(朝日戰爭)을 수반한 전쟁이기도 하였다. 1894년 10월 중순 전라·충청도에서 전봉준(全琫準)·손병희(孫秉熙) 등은 동학농민군(의병)을 이끌고 조선을 강점한 일본군에 대항하는 전쟁, 즉 조일전쟁을 개시하였다.

이 동학의병의 항일군사활동은 당시 요동·산둥반도에서 청군과 전쟁을 벌이던 일본측에서 볼 때는 후방을 교란하는 중대한 위협이었다. 때문에 일본의 대본영에서는 이노우에

(井上馨) 공사의 서울 부임과 함께 동학의병을 무력으로 조기 진압하기로 결정하고 조선 관군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토벌전을 벌였다.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받은 일본군과 조선 관군의 조직적인 공세에 직면한 동학의병은 11월 18~19일의 목천 세성산전투, 12월 4~7일의 우금치전투에서 패배를 맛보았다.

이어서 전봉준과 김개남(金開南) 등 동학의병 지도자들이 12월 24일 체포되어 조일전쟁은 일단락되었다. 이노우에 공사가 지휘한 동학의병 토벌작전이야말로 일본이 청일전쟁 중 조선에서 벌인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청일 간에 조인된 시모노세키조약의 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 독립자주를 손상시키는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공헌(貢獻)·전례(典禮) 등은 장래 완전히 이를 폐지한다.' 이로써 중국이 전통적으로 조선에 대해 행사해 왔던 종주권은 부정되었다.

동시에 일본은 강화도조약·제물포조약·헨진조약 등으로써 일관되게 추진해 온 조선에 대한 우월한 정치·군사·경제적 지배권을 확고하게 장악하였다. 둘째, 청국은 랴오둥반도·대만·평후(澎湖)열도 등을 일본에 할양한다. 셋째, 청국은 전비배상금으로 고평은(庫平銀) 2억 냥(약 3억 엔)을 일본에 지불한다. 넷째, 청국은 일본에게 구미 열강이 청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등한 통상상의 특권을 부여함을 승인한다.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된 지 6일 후인 1895년 4월 23일 러시아를 중심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이 일본 정부에 대해 랴오둥반도를 청국에 반환하라는 요구, 즉 삼국간섭(三國干涉)을 하였다.

프랑스는 러불동맹(露佛同盟)의 동반자 입장에서, 독일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아시아 쪽으로 돌리게 만들어 중국분할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각각 러시아의 삼국간섭에 동조하였다.

결국, 5월 10일 삼국의 군사력에 대한 열세를 인정한 일본 정부는 간섭에 굴복, 랴오둥반도 영유권을 포기하고, 대신 청국으로부터 배상금 3,000만 냥을 받기로 하였다. 삼국간섭을 계기로 일본은 러시아를 장래의 가상 적국으로 인식, 러일전쟁에 대비한 군비확장에 착수하였다.

삼국 간섭 이후 러시아는 랴오둥반도 남부를, 영국은 웨이하이웨이와 그 주변 지역을, 독일은 자오저우만(膠州灣) 주변 지역을 각각 조차(租借)하게 되었다.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조선에서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시설을 설치하고, 강화도조약 체결 이래 구축된 불평등조약 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게 필요하였다.

또한 본원적인 자본을 축적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이권을 획득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강제로라도 일본의 보호국으로 묶어 두는 것 등이었다.

서울주재 일본영사 우치다(内田定雄)에 의해 처음 제창된 일본의 조선보호국화안은, 경복궁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무쓰(陸奥宗光) 외상의 입안으로 8월 17일 내각회의에서 공식적인 정책 목표로 채택되었다. 오토리공사는 이 결정에 따라 조선 정부로 하여금 내정 개혁, 즉 갑오경장(甲午更張)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8월 20일에는 경부·경인 간의 철도부설권 및 군용전신선 관할권 등의 이권을 일본에 양도할 것을 보증한다는 조일잠정합동조관(朝日暫定合 同條款)을, 26일에는 전쟁중 조선은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일본군의 진퇴와 그 식량준비 등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조일맹약(朝日盟約)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리고 15일과 26일에는 일본 고문관과 군사교관을 조선 정부 내에 배치한다는 약속을 조선의 친일정부로부터 받아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열강의 간섭과 조선인의 반발을 우려, 당분간 이들 조약의 즉각적인 실현이나 제도 개혁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는 삼갔다. 이에 따라 그 당시 집권하였던 김홍집·유길준(兪吉濬) 등 갑오개화파 관료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국정개혁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양대첩을 계기로 일제는 조선 정부에 대해 적극간섭정책을 택하기로 결정, 이를 실행하기 위해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원훈이자 현직 내무대신인 이노우에를 조선주재 공사로 발탁하여 서울에 파견하였다.

이노우에 공사는 조선의 보호국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종과 박영효(朴泳孝)를 중심으로 하는 친일정부를 꾸렸다. 그리고 조선 정부 내에 일본인 고문관을 배치하고, 조선 정부 제도를 일본식으로 개혁하는 등 조선 정부와 일련의 신조약을 체결한 뒤 500만 원의 정치차관 공여 등을 골자로 하는 적극적인 내정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특히 500만 원이나 되는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을 영국 치하의 이집트

와 같은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 이를 미끼로 조선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권뿐만 아니라 일부 행정권까지도 장악할 것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이 차관공여안은 1895년 2월 하순경 3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로 책정되었다. 차관 제공이 시기적으로 지체된데다 그 액수도 원래보다 적었으며 조건 또한 불리해, 박영효 같은 조선측의 애국적인 집권자들의 반발을 초래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되었다.

더욱이 청일강화의 조짐이 대두된 1895년 2월 중순부터 러시아의 간섭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전쟁종결외교에서 라오둥반도의 할양 문제에 치중하기로 결심한 무쓰 외상은 2월 27일, 러시아 정부에 조선의 독립을 명실공히 보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사실상 보호국화정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삼국간섭 이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노우에 공사를 경질하고 그의 후임으로 예비역 육군중장 미우라(三浦梧樓)를 선발, 파견하였다. 미우라 공사는 서울 부임 후 조선에 대한 장기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스기무라 서기관 등과 더불어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를 계획하였다.

그러하여 1895년 10월 8일 미우라 공사는 대원군을 앞세우고 일본군·순사·장사 등을 동원하여 왕궁에 난입, 황후를 시해하였다. 황후시해사건(皇后弑害事件)이 일어나자 조선인의 반일감정은 극에 달하였다. 또한 관계 열강의 비난이 세차게 일어나 일본은 곤궁에 빠졌다.

이러한 때에 친일적인 김홍집 내각이 11월 중순 단발령을 선포, 시행하자 곳곳에서 반일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이를 기화로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자신의 거처를 러시아공관으로 옮기는 이른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조선의 친일정권은 붕괴되고 일본은 조선에서 정치적·군사적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결과청일전쟁은 청국·일본·조선 등 관련 각국간의 국제질서를 일본 중심으로 재조정 시킴과 동시에, 이들 각국의 근대화 방향을 결정지은 역사적 전쟁이었다.

일본은 삼국의 간섭으로 라오둥반도를 빼앗는 데는 실패했지만 청일전쟁 결과 대만 등 중국 영토를 식민지로 확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제국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청국으로부터 얻어낸 배상금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반면에 청국은 이 전쟁 결과 조선에 대한 전통적인 종주권을 상실한데다 열강의 격렬한

제국주의적 분할경쟁의 대상국으로 전락, 대내외적으로 왕조의 붕괴를 재촉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편, 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전쟁중 일본의 보호국화 기도에 휘말린 조선왕조는 갑오경장이란 공전의 제도개혁을 겪음으로써 전통적인 지배체제가 약화되었고, 동학농민의 병 등 반일민중의 타격이 컸다. 또한 일본군에 경복궁을 점령당하고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는 등 임진왜란 이래 최대의 수난을 당하였다.

참고문헌

『갑오경장연구』(유영익, 일조각, 1990)

『청일전쟁과 조선』(박종근 저·박영재 역, 일조각, 1989)

『한국사』-현대편-(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63)

『동학당과 대원군』(이상백, 『역사학보』 27·28, 1962)

『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王信忠, 北京 清華大學出版部, 1936)

『日清戰爭』(藤村道生, 東京 岩波書店, 1973)

『日清戰爭の研究』(中塚明, 東京 青木書店, 1968)

『日清戰役外交史の研究』(田保橋潔, 東京 刀江書院, 1951)

『近代日鮮關係の研究』(田保橋潔,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陸奧外交』-日清戰爭の外 交史的研究-(信夫清三郎, 東京 叢文閣, 1935)

Minister Inoue Karou and the Japanese Reform Attempts in Korea during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Young Ick Lew,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27-2, 1984)

Russian Policy toward Korea before and during the Sino-Japanese War(M.N.Pak with Wayne Patters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5, 1984)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t the Time of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 Anglo-Russian Far Eastern Policy and the Beginning of the Sino-Japanese War(Yo Sasaki, The Memoirs of Toyo Bunko 42, 1984)

Kenkenroku : A Diplomatic Record of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Gordon Mark Berger, ed. and tr., 東京大學出版會, 1982)

Korean-Japanese Politics behind the Kabo-Ulmi Reform Movement, 1894 to 1896(Young Ick Lew,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3, 1981)

The Diplomacy of Japan, 1894-1922 : Sino-Japanese War and Triple Intervention (Morinosuke Kajima, Tokyo : Kajima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1976)

The Pigtail War : American Involvement in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Jeffrey M. Dorwart, Amherst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75)

The Cause of Sino-Japanese War, 1894(Payson J. Treat, The Pacific Historical Review 3, 1939)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hinese Empire(Hosea B. Morse, London : Longmans Green, 1931) <출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차~3차

동북아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포럼과 평화순례

제3차 동북아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포럼과 평화순례

- 1894, 동북아시아의 사람들, 동학농민혁명군과 후비보병19대대 -



1. 사업목적 및 추진 및 방법

- 한중일 3국 갈등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 진압을 위해 파견되었던 후비보병 제19대대의 부대 편성 및 출발지인 에히메현에서 한국과 일본의 NGO들이 함께 평화순례와 포럼을 시행하면서 양국의 참전자 후손 및 후예들이 화해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반을 닦는다.

-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양국의 관련 역사적 진실을 공유 공감하고 이를 상호 소통함으로써 평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 평화순례를 통하여 후비보병대대의 흔적을 찾고 후손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역사포럼을 통하여 양국 전문가 및 시민운동가,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한일 및 동북아 평화의 길을 모색한다.

2. 사업개요

- ① 주최 : 동학민족통일회
- ② 주관 : 동학민족통일회 동학연구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일본 코리아협회 에히메 지부
- ③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 ④ 일시 : 2012.7.27.~ 7.31
- ⑤ 장소 : (답사)일본에히메현 마츠야마시 일대 (발표) 에히메대학교

3. 결과

- 한일 양국의 NGO 단체 및 시민들이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해 과거의 실상을 함께 이해하고, 앞으로 평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결의를 일본 시민들과 나누었으며 그에 따른 공감대 확산을 이루었다.

- 본 사업은 2011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2011년에 한국을 방문하였던 일본측 NGO활동그룹(일본코리아협회-에히메)과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확장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직접적인 역사 갈등의 피해 당사자(동학농민군 후손 및 일본군 참여자 후손) 및 주변인사(동민회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역사 탐방, 연구, 화해교류를 주선 시도함으로써 동북아평화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그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본인들이 가해자의 후손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던 후비보병 19대대와 후손과의 만남의 자리는 조심스럽고 어려운 자리였으나, 침략의 역사조차 모르고 살고 있던 일본 시민들에게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특히 일본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아픔을 겪지 않게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코리아협회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다. 그들이 노력을 함께 확인하고 나누기 위한 순례에서 연대의 참뜻을 살릴 수 있었다고 본다.

- 1차 후속사업으로 일본 에히메대학의 평화순례단 (교수 및 대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본회 및 한일양국 역사 관련 사적지(윤봉길기념관, 평화의 집(위안부)) 등을 방문하였다.(지원비용 본회 자비부담)

- 평화순례단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이 모르고 있던 과거사를 재인식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본회에서는 이 순례단과 인사동일대와 탐골공원 등을 안내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도 함께 참석하였다.

- 이번 사업에는 에히메신문의 하타기자가 동행 취재하여, 2회에 걸쳐 신문에 기사를 게재하였다. 에히메신문은 시코쿠 지방의 주요일간지로 시코쿠 지방에서 가장 구독률이 높은 신문이다.



4. 일정

일자	일정
7월 27일	- 출국 / 에히메 도착 - 에히메 코리아 회원들과 교류회
7월 28일	동북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평화순례 1일차 - 후비보병 후손과의 만남(우에오카) - 상구사 - 감항유적지
7월 29일	동북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평화순례 2일차 - 후비보병 후손과의 만남(우다카) - 후비보병 후손과의 만남(쿠노) - 미츠하마항(후비보병 상륙지) - 다이린지(후비보병 숙영지)
7월 19일	동북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평화포럼 - 발표자1. 와다교수(에히메대학교) : 윤봉길과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를 생각한다. - 발표자2. 이노우에 가츠오 교수(북해도대학교) : 동학농민군을 포위섬멸한 일본군의 사료를 찾아서 - 발표자3. 박맹수(원광대 교수) - 발표자4. 신영우 (충북대 교수) : 1894년 일본의 철도실측대 호위병과 동학농민군 진압 - 발표자5. 성주현(청암대교수) : 동학교서에 나타난 동학혁명기 일본군의 인식
7월 20일	귀국

제2차 동북아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포럼과 평화순례 -동학농민혁명과 제국 일본-



1. 사업 목적

- 동북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동북아 3국의 각축의 기점인 청일전쟁과 그에 앞선 동학농민혁명을 둘러싼 일본과 청국(중국)의 경쟁,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의 행적과 그에 대한 조선 민중의 대응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본사업을 기획 입안하였다.

- 즉, 1894년 당시 조선의 민중들은 '동학'으로 사상적, 조직적 결집을 이루면서 내적으로는 국정을 개혁하고 외적으로는 자주적인 근대화를 위한 모색을 하던 중, 한반도를 제국주의적 성장(일본) 혹은 제국 체제 수호(청국)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청국과 일본의 견제 속에 좌절을 맛보아야 했고, 이는 동북아에 본격적인 갈등과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동학농민군-일본군)의 전쟁/전투에 참가했던 청국군, 일본군,

농민군들의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편성/동원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전쟁/전투에 임하였으며, 전쟁/전투 종료 후 그들은 어떻게 되어 갔을까를 이해하는 것은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한 전후 동북아의 공통된 역사를 이해하며, 동북아 3국 시민, 청소년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사업개요

- 주최 : 세계NGO역사포럼, 동북아역사재단
- 주관 : (사)동학민족통일회,
- 장소 : 순례(충청도 일대) 포럼(연세대)
- 평화 순례 ‘후비보병 19대대의 발자취를 따라서’
: 2011년 8월 21일(일) /신영우교수(충북대)/충청도 일대
- 역사 포럼
: 2011년 8월 22일(월)/연세대학교 위당관/ 13:00~18:00
- 1) 발표1 :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과 제노사이드 성격
 - 오노우에 마모루(尾上 守, 일본 코리아 협회 · 에히메(愛媛) 회원)
 - 토론자 : 강효숙 (한양여대)
- 2) 발표2 :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의 출진과 「카이난(海南) 신문」 의 보도
 - 신영우(충북대)
 - 토론자 : 성주현 (경기대)

3. 결과

- 충북지역을 답사하며 전문가의 안내를 통해 당시의 일본군의 이동 및 전투 현장을 살펴보고 또한 전문가 포럼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점검해 보았다. 답사와 포럼에는 본회 회원, 동학농민혁명 유족, 천도교인 및 역사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청일전쟁 당시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해 파견되었던 일본 에이메현 후비보병 19대대의 행적을 연구해 온 “오노우에 마모루”(일본 코리아협회 에이메 회원) 내외분과 에이메신문 하타 기자

가 함께 하여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 답사 지역은 충주의 가흥 병참부 자리 - 군용전소 자리 - 가흥창 목계나루(군수물자를 강을 통하여 운반하던 곳) - 수안보(옛지명: 안보) - 대안보 병참부대 - 보은군 장안면 장내 - 보은집회터 - 동학대도소 - 보은 동학공원 - 옥천의 중약전투지 - 문의전투지 등을 탐방하였다.

- 이를 통하여 일본이 주도면밀한 지역정찰과 영토 침탈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면서 조선 정부의 동학군 진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청일전쟁을 이 땅에서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며 참가자 모두 동북아 3국을 아우르는 근현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다. 특히, 동북아 평화의 새 역사를 위하여 '국가' 단위 외에도 각국의 민중(=시민)들의 시각에서 삶과 역사를 새롭게 접근하고 각국 시민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나갈 것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위 지역을 탐방하고 다음날 연세대학교 위당관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역사 NGO시민단체,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본회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동북아시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가는 역사포럼과 평화순례" 참조)

제1차 동북아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포럼과 평화순례

- 잊혀진 90년, 제암·고주리 학살 현장을 찾아서 -



1. 사업 목적

스코필드 선교사에 의해서 전세계에 알려진 제암, 고주리의 잔혹한 폭력의 현장을 역사 NGO세계대회에 참가자, 3·1운동유족회 회원, 동민회 회원 등 40여명과 돌이봄으로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화해의 방법을 찾는다. 아우러 학술 강연회를 통해 “평화와 역사 화해”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2. 사업개요

① 주최 : 세계NGO역사포럼, 동북아역사재단

- ② 주관 : (사)동학민족통일회, 제암/고주리추모사업위원회, 한국종교연합
- ③ 후원 : 제암/고주리순국선열유족회
- ④ 일시 : 2009년 8월 22일 09:00 ~ 18:00
- ⑤ 장소 : 제암리 기념관 / 제암리교회/ 고주리 학살현장
- ⑥ 인원 : 선착순 40명

3. 결과

- 참가자들의 주제인 “평화와 역사 화해”에 공감대 형성
- 화성 지역과 그 외의 전국의 주요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을 연결하여 “독립운동 벨트”를 설정 한다.
- 역사 화해의 장이 될 평화공원을 제암리 일대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4. 일정

시간	기행 및 행사	비고
08:30 ~ 09:00	기행접수 수운회관 출발	
09:00 ~ 10:30	제암리 이동	버سی이동
10:30 ~ 12:00	역사현장 방문 - 제암리 기념관 / 제암리교회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역사현장 방문 - 고주리 학살현장	
14:00 ~ 16:00	서울 이동	버سی이동
16:00 ~ 18:00	발표1. - “3.1독립운동과 종교연합” 임형진 / 동학민족통일회 사무총장 발표2. -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성주현 / 독립기념관 연구원	덕성여대 평생교육원301호 (안국역 4번 출구)
18:00 ~	역사NGO세계대회 기념행사	덕성여대 캠퍼스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안내

동학민족통일회 소개

동학민족통일회는...

동학민족통일회는 “동학이념의 사회적 구현과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1991년 5월 11일 결성된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동학민족통일회는 동학과 천도교로 이어지는 찬란한 한국 근대 민족주의 운동사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그 정신을 수호해 민족창달과 번영의 민족사적 임무를 수행하고자 등장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동학과 천도교가 전개한 민족운동은 그대로 우리 민족의 수난사와 동일합니다.

동학은 위대한 민족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백오십여년 전 경주 용담정에서 수운 최제우 선생에 의해 시작된 동학(東學)은 당시의 국내 외적 위기에 대처한 조선과 민중을 구원할 유일한 방책이었음에도 기득권의 논리에 젖은 지배층과 외세 결탁세력들에 의해 철저히 탄압되고 또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도(道)를 주창한 이들을 탄압할 수는 있어도 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의 진리와 사람을 한울처럼 대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정신으로 각성된 민중은 드디어 1894년 갑오년의 동학혁명으로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선 것입니다.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동학이념은 우리 역사 오천년을 통 털어 최초로 각성된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는가 정도를 외면한 무능한 조정은 일제를 끌어들이 동학군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 결과가 조선의 일제병탄이었습니다.

천도교는 문명개화운동과 3·1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동학혁명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동학 지도부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민중계몽을 위한 갑진개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낮은 민도를 끌어올리고 하루빨리 문명개화의 대열에 참여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식과 각성된 민족의식은 1919년 또 한번 조선 땅을 흔드니 그것이 기미년의 3·1운동인 것입니다. 천도교 3세

교주인 의암 손병희 선생의 계획과 지도 하에 전개된 3·1운동은 세계 최초의 비폭력 무저항의 시위운동으로 가장 강력한 민족운동이자 인권선언이었습니다. 인도의 타고르가 조선을 '동방의 빛'이라고 한 이유도, 간디가 감동해 인도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비폭력 무저항운동을 택한 것도 모두 3·1운동의 영향입니다.

천도교 청우당은 민족통합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 천도교는 청우당이라는 전위 단체를 만들어 교정쌍전의 의지를 실천합니다. 즉, 본격적인 사회운동 단체를 결성해 교(종교)가 아닌 정(정치)의 영역을 전담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우당은 일제하의 민중 계몽과 문화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청우당은 민족운동의 전위에 서서 자주독립국가를 완성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분열되는 좌우 이념대립을 완화, 통합시키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국제적 환경과 외세에 결탁하는 세력들에 의해 국토는 분단될 위기에 처해지고 청우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등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은 현실이 되고, 청우당은 해체되고, 천도교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동학민족통일회는 민족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단체입니다

역사는 아직 우리 민족에게 더 많은 위대한 실천을 요구합니다. 오늘 동학민족통일회가 재등장하는 이유도 이 같은 선배들의 위대한 정신과 실천을 계승하고자 함입니다. 동학민족통일회는 과거 동학 천도교의 위대한 이상과 실천성을 계승하고 그들이 구상한 지상천국 이상사회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숙명을 지닌 천도교 활동공간의 전위단체인 것입니다. 이에 동학민족통일회는 지금까지의 운동성을 성찰하고 새로운 사회운동단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동학이념에 입각한 인내천과 사인여천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 땅에 시급한 과제에서부터 작은 손길이 필요한 영역까지 동학민족통일회는 쉽 없이 전진하는 사회단체로 활동할 것입니다.

1991~2012 동민회 주요 연보

- 1991년 ○창립총회(5월 11일 황토현)
- 1992년 ○완도, 양주, 동두천, 성남, 대전, 대곡, 김제, 진주, 고성, 강서 지부 결성
 - 민족 정신 선양을 위한 교양 강좌
- 1993년 ○동학혁명군 전승 기념 대강연회 실시
 - 동민회보 창간
- 1994년 ○동학의 밤
- 1995년 ○옥수수 1500만톤 지원
- 1996년 ○천도교 민족통일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연구 발표회
- 1997년 ○천도교 민족통일방안을 위한 2차 학술연구 발표회
- 1998년 ○“민족분단 53주년에 즈음한 우리의 선언” 발표
- 1999년 ○“민족통일자주 동귀일체 통일방안” 제정
- 2000년 ○사무총장 북경 남북천도교 실무자회담 참석
 - “6·15 남북공동 선언 발표에 즈음한 성명서” 발표
 - 북한 천도교와 청우당 방문(주선원,오훈동)
- 2001년 ○종교인 금강산 평화 모임에 참가, 북한 청우당과 회동
 - 신덕순 대표의장,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참석,
청우당 강철원 부위원장과의 현안 논의
 - 임운길 의장 평양 방문
 - 8·15 남북공동행사 평양 축전 참가
 - 통일강연회(고성, 성남, 대전지부)
 -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성명 발표
- 2002년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참가”
 -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주년 기념 통일사진전 공동 개최
 - 금강산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주년 기념 민족통일 대회 참가’
 - 8·15민족통일대회 참가, 천도교 중앙총부, 여성회 및 청년회와 공동으로 생필품 전달
 - 개천절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 대표자 회의 참가

-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주제로 한라산, 백두산, 북경, 장춘, 연변 등 평화 순례 참석
 - 평양 단군릉에서 남북공동 개최된 개천절 행사에 참석, 청우당과 회동
 - 본회의 통일방안-민족자주통일방안-확정
- 2003년
- 민족공동행사 개최와 관련, 민간 사회 단체 관계자와 방북
 - 3·1민족대회(서울)에 북측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참석 및 대교당 시일 봉행
 -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에 한국민족통교협의회와 공동으로 지원물품 발송
 -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 기념식 공동 개최
 - 평양에서 개최된 8·15민족대회에 본회 회원들 참가
 - 평양단군릉에서 개최된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에 참석, 청우당 방문
 - 통일강연회(춘천교구, 관의교구)
- 2004년
-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일본의 우경화 정책을 경계한다” 발표
 - 동학혁명군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통과 환영 성명서 발표
 -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 기념 남북 민족대회에 참가
 -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초청으로 금강산 회담
 - 박남수대표의장,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선임
 - 임시정부 대장정 순례단 참가
 - “동북공정 역사 왜곡”에 엄중 항의하는 공동 성명서 발표
- 2005년
- 못자리용 비닐박막 5000만원어치 지원
 - 3·1절 기념식 행사장 변경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 제1차 월례통일 강좌 시행
 - 청우당과 심양 회담
 - 사단법인 등록
- 2006년
- 금강산남북회담
 - 제1차 남북회담(제1차 개성예비회담, 남북개성실무회담: 2월 진행)
 - 남북공동학술 발표회(8/20 개성)
 - 친일진상규명위원회 공동 업무
 - 평화통일 기행 및 (1차: 임진각, 도라산 전망대 외 2차: 철의 삼각지 및 노동당사)
 - 통일강좌 (주제: 천도교의 통일운동)

- 2006 동민회포럼
- 동민회 소식지 - 하나로 가는 길 발간
- 2007년 ○ 개성남북회담(5/17~24, 12/13)
 - 6·15민족대축전 참가
 - 북측 수해 지원차량 전달식 참석
 - 대국민역사강좌(1차: 서울 2차: 남원 3차: 포항, 4차: 고성)
 - 통일기행 및 강좌(10/12~13)
 - 동학순례(동학 사료 발굴 보전, DVD 제작)
- 2008년 ○ 박남수 상임의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 남북실무회담(6/28, 개성 7/26~30 평양, 11/6 개성)
 - 독도수호남북공동성명발표(8/11 프레스센터)
 - 대국민역사강좌(6/18 수원화성 7/31 대한출판문화협회)
 - 통일기행 및 강좌 (5/20, 강화도)
 - 동학순례(제천, 상주, 문경 지역)
 - 동학역사기행(9/18 전주)
- 2009년 ○ 남북실무회담 (3/28~4/1 평양)
 - 3·1절 남북공동연대사발표
 - 동학혁명 2차봉기 기념 남북연대 기념식(9/18 의암성사생가)
 - 동학정치학교(3월 ~6월 16주간)
 - 대국민역사강좌(7/13 부산, 8/7 대한출판문화회관, 8/7 동해)
 - 통일기행 및 통일 강좌(7/22~23 거제, 통영 일대)
 - 동학통일학교(6회 실시)
 - 동학순례(천안-논산-홍주)
 - 동북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역사와 평화순례(8/22 제암, 고주리)
 - 동학혁명 2차봉기 기념 역사 기행(9/18 충북 청원-청주)
- 2010년 ○ 심양남북 종교인 회담(1/20)
 - 밀가루 300톤 지원 -인도적 차원 북녘동포돕기 사업 공동 참가
 - 평화통일 학술 대회(7/2 동해문화예술회관)

제4차 동북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평화순례와 역사포럼

- 대국민통일강좌(3차례)
- 동학강좌 및 기행(3차 강좌, 여주, 이천일대)
- 강제병합 100년 특별강연(8/29 이이화)

2011년 ○북한어린이돕기현황 모니터링

- 대장경판각 1천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합동법회 참석
- 제1차 통일기원 특별기도 및 합동 수련회 봉행
- 북한어린이돕기 사업 시작 -북녀의 어린 한울에게 생명과 희망을
- 2011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역사포럼과 평화 순례(8월)
-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대회 공동 개최

2012년 ○북한어린이돕기 성금 200만원 전달(1월11일, 북한어린이 200명에게 설맞이 의류 전달)

- 2012년 동민회 포럼
- 한일군사정보 관련 천도교 관련단체 공동성명서
- 2012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역사 포럼과 평화 순례
- 8·29 일본규탄 남북공동성명 발표
- 10·4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는 남북공동 호소문 발표
- 개성남북실무자회담 11월 9일 개성(동학민족통일회와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 동학민족통일회 강령

1. 동학사상을 기본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한다.
1. 사인여천의 윤리로 도덕적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1. 경천·경인·경물의 삼경사상을 적극 실천한다.
1. 자유·평등·평화의 민주주의 발전을 기한다.

○ 동학민족통일회 사업 개요

통일기반 조성운동 : 정신개벽운동 | 민족정기 선양운동 | 인내천사상의 생활화 운동
삼경사상 실천운동 | 근면·절약운동

종교간 화합 협력 운동 : 종교화합운동 | 종교간 연대 사업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사업 : 월례통일강좌 | 초청강좌 | 통일순례 | 특별연찬 및
강습회 초·중·고·대학생들을 위한 통일 학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 북한 천도교 청우당과의 연락 및 교류, 북측 인
사 초청 | 북한 지원 및 공동사업 추진, 통일운동 민간단체와 공동행사 추진 | 남북한 민족
성지 공동 개발 및 공동순례, 상설 연락 사무소 운영

생명·환경사업 : 환경학교 개설 | 경물사상 실천운동 | 자원 재활용 운동 | 물사랑 운동 |
우리 쌀 사랑 운동

신문화 창조를 위한 신인간 운동사업 : 여성운동 | 어린이운동 | 공동체운동

역사바로하기사업 : 일본의 역사 왜곡 바로잡기 교양 | 계몽실천운동 | 중국 동북공정 왜
곡 시정 운동 |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시민협력, 역사, 교양 강좌

